

1

2

3

4

2017 드림센터 교육팀 운영사례집

# 넘나들며 성장하는 배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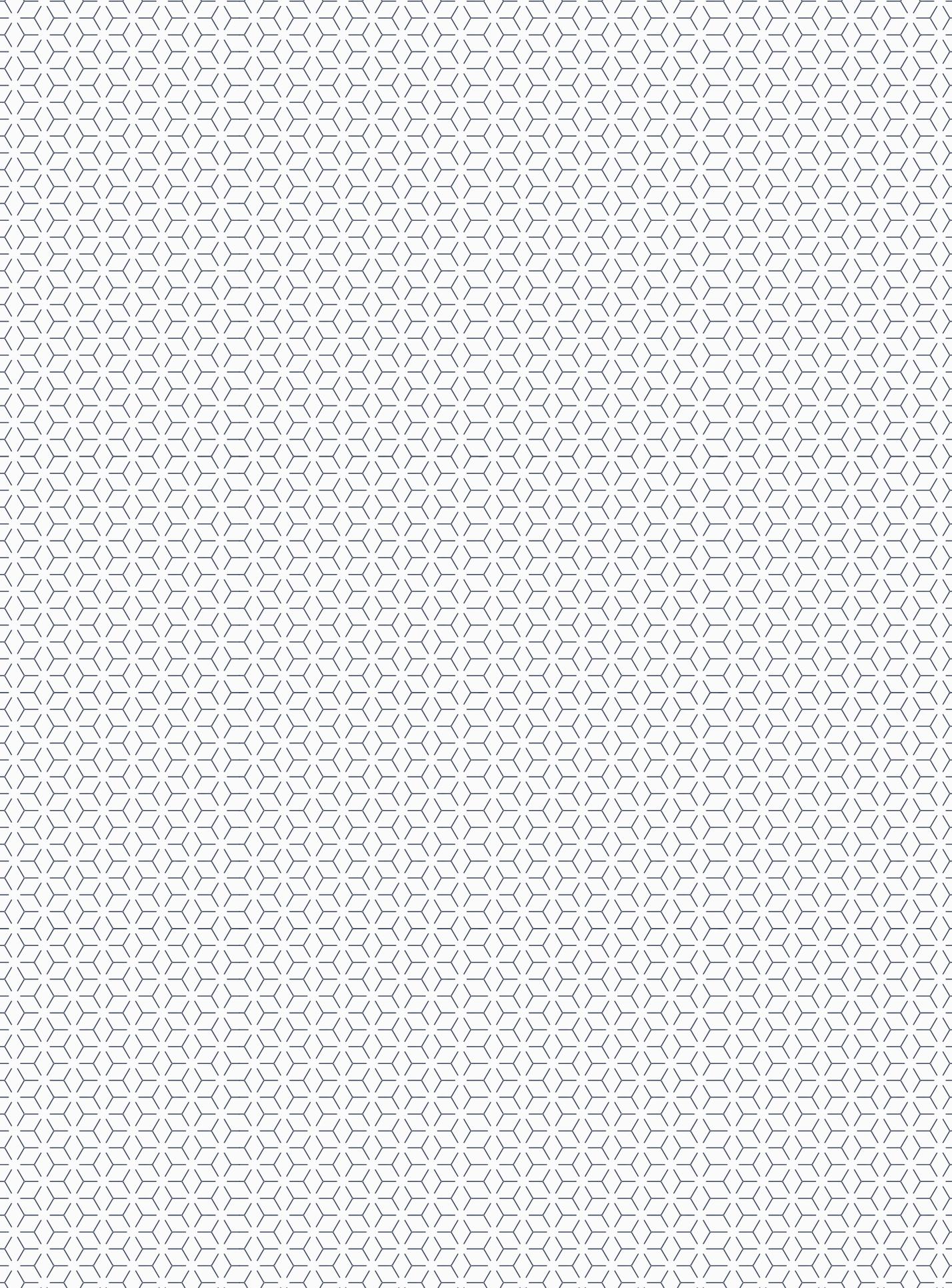
ver 3

5

6

DREAM CENTER

7



2017 드림센터  
교육팀 운영사례집

# 넘나들며 성장하는 배움터 ver 3

글쓴이 드림센터 교육팀, 외부집필진

기 획 박경아, 황현영

디자인 플랫폼(PLAT)

발행일 2018년 3월 31일

발행인 이창범

발행처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교육팀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전 화 02-2051-8600

홈페이지 [www.dreamcenter.or.kr](http://www.dreamcenter.or.kr)

ISBN 979-11-957138-7-5

\*이 책의 독창적인 내용에 대한 무단인용, 전재, 복제를 금합니다.

2017  
드림센터  
교육팀  
운영사례집

# 넘나들며 성장하는 배움터

ver  
3



책을 펴내며

## 2017년, 찰나의 순간들을 오늘, 여기에 풀어본다.

책은 어디에나 있다. 사무실 한 켠 책장에 쌓아진 책, 토요일 늦은 오후 ‘후후’ 불며 라면 먹을 때 냄비 아래에 있는 책, 서점에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는 책. 이처럼 우리는 활자 속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쉽게 책을 접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바로 나도 그랬다. 제작년과 작년을 거쳐 올해, 사례집을 제작하는 담당자가 되어서야 책이 만들어지고 세상 누군가에게 읽히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팀에서는 매년 책을 제작한다. 청소년들의 인터뷰를 담은 인터뷰집,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자료집, 또는 교사를 위한 매뉴얼과 교육팀의 1년을 정리하고 청소년들의 위기가 다양한 기회를 통해 성장하는 사례를 담은 운영사례집까지.

운영사례집은 교육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교육팀의 구성원들이 책의 원고를 작성한다. 교육팀 선생님들께 때로는 정중하게, 때로는 뉘달하듯 또 엄마한테 떼쓰는 어린이 이처럼 원고 제출을 재촉했다. 재촉 당하는 마음도 불편했겠지만 빨리 원고를 내놓으라며 뉘달했던 나의 마음도 불편했다는 것을 알아주길….

---

원고가 모아지면 디자인 업체에서 책을 디자인 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내 고통은 배가 된다. 오탈자는 없는지, 단어들은 문맥에 맞게 쓰였는지, 원하는 디자인의 방향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소통의 과정을 겪다보면 글씨만 봐도 머리가 뱅뱅 돈다. 원고를 수정하다 보면 하루가 꼬박 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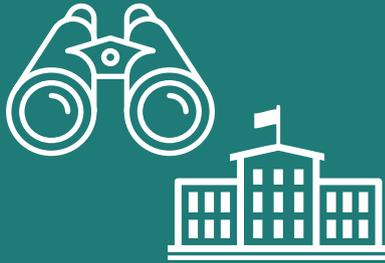
결국, 그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 최종 시안이 확정되면 하얀 종이에 우리가 작성한 내용들이 인쇄되고, 박스 여러 개에 담겨 사무실로 도착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의 1년이 정리되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사실, 책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보다 복잡하고 심오한 과정이 있다. 바로 1년 동안 교육팀을 오가는 청소년을 만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이 사례집도 이렇게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을 만나고 생활하며 보냈던 시간을 흘러가는 기억 속에 두기에는 우리가 살아온 1년이라는 시간이 소중한 것이기에….

교육팀원 황현영

# 차례

여는 글  
책을 펴내며 환영영 4



## I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교육팀이란?

1. 위탁형대안학교 꿈에학교	11
2. 도시형대안학교 이름학교	38
3. 점프-업 코스 검정고시 대비반	44
4. 기초생활캠프	48
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57
6. 드림발표회	63
7. 청정한 원탁토론회	69



## II 우리들의 2017 이야기

1. 그들은 내게 와서 상전이 되었다! 76
2.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77
3. 느린 변화에 대한 믿음 78
4. 이룸에서 우리가 탐구한 인문학 80
5. 꿈에 양케이트 82
6. 이룸학교, 우리 지금 어디쯤에 있는걸까? 88

닫는 글  
그리고 2018 박경아 136



1



2



3



5



1부

넘나들며 성장하는 배움터 ver 3.0

#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교육팀이란?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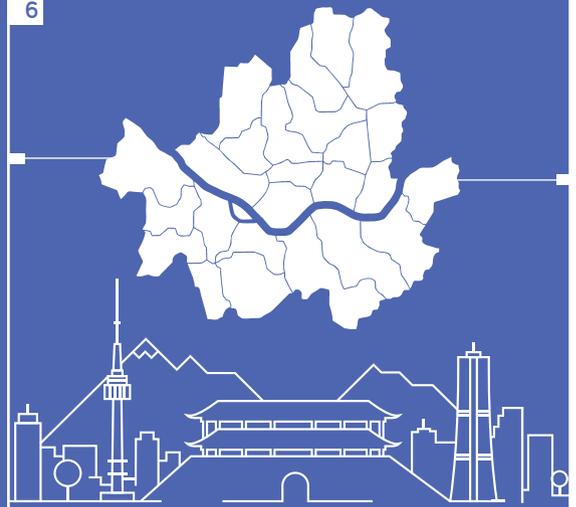




4



6



8

1. 위탁형대안학교 꿈에학교
2. 도시형대안학교 이룸학교
3. 점프-업 코스 검정고시 대비반
4. 기초생활캠프

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6. 드림발표회
7. 청정한 원탁토론회

# 교육팀이란?

드림센터 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6명의 교사들이 '교육팀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하며 고민했다. 지루하고 긴 글이 아닌 핵심만으로 교육팀을 소개하고자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 끝에 각자의 느낌과 생각으로 교육팀을 소개하기로 결정했다! 서로의 마음속에 교육팀이란?

**교** 사들이 너희들과 함께하며

**육** 두문자를 하고 싶은 날도 있지만

**팀** 장님이 옆에 계신다.

**이** 런 이런...

**란** (난) 오늘도 참는다. 랄랄라랄랄라 랄라랄라라!

**교** 직 생활 3년차를 넘기며...

**육** 도의 번뇌를 느끼게 한 이 짧지만 긴 세월,

**팀** 으로서 함께한 이들이 있었기에

**이** 령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란** (난) 교육팀의 일원이다!

**교** 차로에서 만난 아이들, 이룸학교와 꿈에학교, 학교 안과 밖이 만나는 교차로 어디쯤의

**육** 교처럼 아이들과 아이들, 마음과 마음을 잇고 싶은

**팀** 장님이

**이** 곳 드림센터 교육팀에서 한겨울의

**란** (난)처럼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 복을 벗고

**육** (6)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이 곳 교육팀에 와있다.

**팀** 내 좋은 동료들과 선배교사들 사이에서

**이** 령게 또 한해를 보냈다. 오늘도

**란** (난) 이렇게 성장한다^^

**교** 육을 위해 꿈에학교에 왔다.

**육** 탄전 참전용사가 된 듯, 착각하는 날도 있었지만 이제는

**팀** 이라는 마음으로.

**이** 것들을이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란** (난) 마음을 다잡는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꿈에♡

**교** 실에서

**육** 성으로 뽕뽕 터지는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

**팀** 사무실에서도 웃음이 터진다.

**이** 령게 행복할 수 있을까!

**란** (난) 복 받은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여러분도 모두 복 받은 사람~♡♡♡

# 1

## 위탁형 대안학교 꿈에학교

김현태, 이민지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과 사회적 기준 함양을 통해 성장의 동력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지정 위탁형 대안학교 꿈에학교입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위탁형 대안학교 꿈에학교
- **목적** 1. 자신의 삶에 주도적이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한다.  
2.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경험하고 나아가 사회적인 기준을 함양한다.  
3. 진로에 대한 목적의식을 찾아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한다.
- **대상** 서울시 내 학적을 둔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정원** 20명
- **일시** 연중
- **내용** 준비적응교육, 보통교과 수업, 대안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캠프

### 학교현황

#### • 교직원 현황

구분	교장	교감	교무부장	교사	강사	계(명)
인원	1	1	1	2	21	26

#### • 교육인원 현황

##### 1학기

구분	학년별			성별		위탁구분별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신규	재위탁
인원	1	5	10	7	9	12	4
계				16			

##### 2학기

구분	학년별			성별		위탁구분별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신규	재위탁
인원	-	8	8	8	8	13	3
계				16			

#### • 위탁사유

구분	학교생활부적응	별점누적	교사와의 갈등	기타(진로 등)
인원	9	6	4	2
계	21			



## • 준비적응교육

**운영목적** 예비 학생으로서 대안교육을 이해하고 자·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참여 구성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시행일자 및 인원

학기	회기	기간	인원		
			남	여	총 인원
1학기	1회	3월 27일 ~ 3월 31일 (5일간)	7	10	17
2학기	1회	8월 25일 ~ 8월 31일 (5일간)	8	8	16

### 프로그램 시간표

#### 1학기 준비적응교육 시간표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1교시	오리엔테이션	전일 일과 나눔				
2교시	꿈에 소개 및 대안교육 안내	개인성격유형검사 타인이해교육	청소년	학교폭력/	외부활동 등산	
3교시			성 인권교육	사이버예방교육		
점 심						
4교시	구석구석 드림찾기	학교, 공동체 이해	진로체험(미술)	학교 속 나 그리기		
5교시						
6교시	활동일지 작성 및 소감 나눔					

#### 2학기 준비적응교육 시간표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1교시	오리엔테이션	전일 일과 나눔				
2교시	꿈에 소개 및 대안교육 안내	진로탐색검사	집단상담 (음악치료)	외부활동 등산	내가 그리는 우리학교	
3교시						
점 심						
4교시	구석구석 드림찾기	청소년 성 인권교육	학교폭력/ 사이버예방교육			담임교사 면담
5교시						
6교시	활동일지 작성 및 소감 나눔					



공동체 활동



성 인권교육



외부활동

## • 교육과정 운영

**운영목적** 보통교과를 통해 기초학습능력을 향상하고, 대안교과 수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교과 운영

<b>보통교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제2외국어(중국어), 총 6개 교과</li> <li>• 국어, 수학, 영어 수준별 분반 수업 진행</li> </ul>	
<b>대안교과</b>	1학기	• 진로직업(바리스타/원예), 실용음악(보컬, 피아노, 기타), 표현예술, 놀이활동, 인문학, 문화체험, 진로탐색
	2학기	• 진로직업(바리스타/제과&슈가크래프트), 실용음악(보컬, 피아노), 표현예술, 체육(복싱입문), 인문학, 집단상담, 진로탐색 I, II

### 교과 시간표

#### 1학기 교과 시간표

	시간\요일	월	화	수	목	금			
	09:00~09:10	하루열기							
1	09:10~09:55	과학	창체		제2외국어		문화체험		
2	10:05~10:50		창체		제2외국어				
3	11:00~11:45	사회	선택(진로직업)		수학A	수학B	인문학		
4	11:55~12:40		바리스타 원예					인문학	진로탐색
	12:40~13:30	점심식사							
5	13:30~14:15	사회	실용음악		놀이활동		영어A	국어B	진로탐색
6	14:25~15:10		실용음악		놀이활동		영어A	국어B	진로탐색
7	15:20~16:05		표현예술				국어A	영어B	
8	16:15~17:00		표현예술				국어A	영어B	

#### 2학기 교과 시간표

	시간\요일	월	화	수	목	금			
	09:00~09:10	하루열기							
1	09:10~09:55	과학	제 2외국어		창체		창체	집단상담	
2	10:05~10:50		제 2외국어		창체		창체	집단상담	
3	11:00~11:45	사회	선택(진로직업)		수학A	수학B	인문학	진로탐색	
4	11:55~12:40		바리스타 제과&슈가크래프트						수학A
	12:40~13:30	점심식사							
5	13:30~14:15	표현예술	실용음악		복싱입문		영어A	국어B	진로탐색
6	14:25~15:10		실용음악		복싱입문		영어A	국어B	진로탐색
7	15:20~16:05		표현예술				국어A	영어B	
8	16:15~17:00		표현예술				국어A	영어B	

### 창의적 체험활동

구분	기간	내용
자율 활동	2017/4/4~2018/1/4 매주 수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회의 (규칙 상벌점 논의 및 근황 나눔)</li> <li>• 예방교육성인권(3회), 도박중독예방(1회), 약물중독예방(3회), 안전교육 등</li> <li>• 영화 관람 및 손작업 활동 등</li> </ul>
동아리활동	7월 ~ 12월 월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리 동아리</li> <li>• 보컬 동아리</li> <li>• 미드감상 동아리</li> </ul>
봉사 활동	2017/5/1  2017/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일천사병원 무의탁 노인 및 취약계층 정서봉사</li> <li>• 구룡마을 연탄나눔봉사</li> </ul>
진로 활동	2017/4/19 ~ 2017/12/29 매주 금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설계 및 진로 상담</li> <li>• 입시박람회 및 대학 탐방</li> <li>• 흥미 영역 관심사 탐구 및 현장 방문</li> </ul>

### 교과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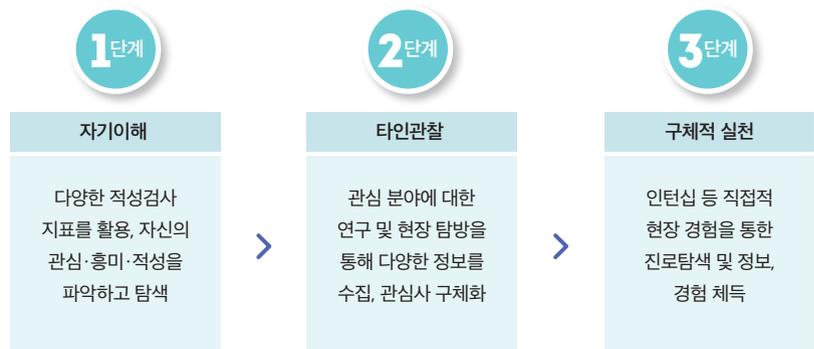
## • 프로젝트 수업

꿈에학교는 다양한 진로 수업들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 방향을 설정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 특성화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올해는 이런 진로탐색 교육을 학생 개별 프로젝트 활동의 형식으로 진행하여, 학생들 각자의 보폭에 맞는 맞춤형 진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운영목적** 진로 성숙도가 낮은 꿈에학교 학생들에게 자기이해, 타인관찰, 구체적 실천, 총 3단계의 진로탐색 프로젝트 수업 운영을 통해 학생별 진로 성숙도에 맞춘 맞춤형 진로 탐색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 운영내용

#### 추진방향



#### 추진방침

- 1) 두 개 반으로 나누어 담당 담임교사와 함께 진행한다.
- 2) 학생들의 흥미와 진로 성숙도를 고려하여 학생 개별 진도에 맞춘 수업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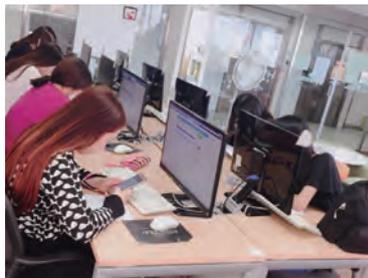
#### 운영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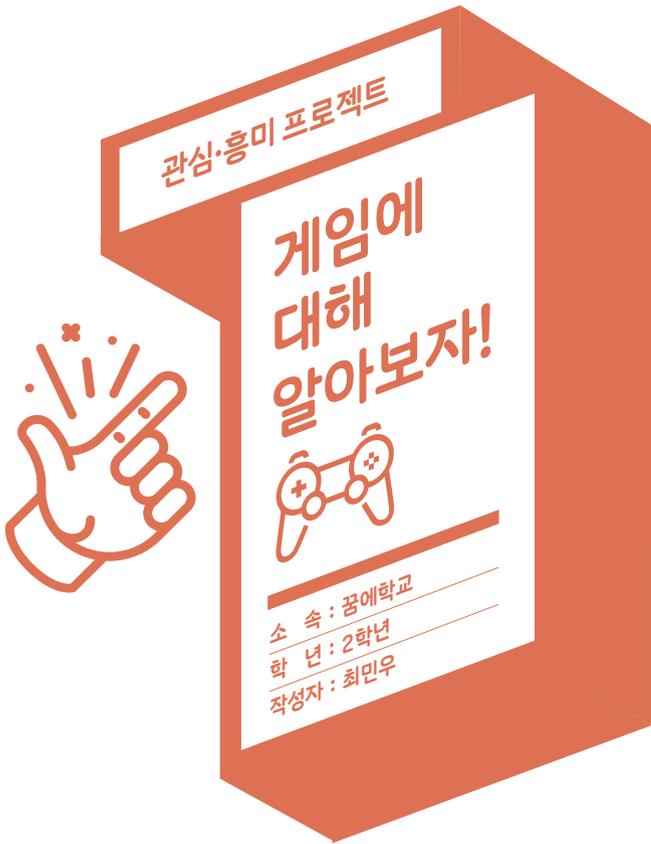
- 1) 일시 : 2017년 8월 ~ 2017년 12월, 매주 금요일(2학기 中)
- 2) 장소 : 꿈에학교 교실, 컴퓨터실
- 3) 내용 : 적성검사 및 개인 탐구영역 보고서 작성

## 세부내용

차수	수업주제	수업 및 활동 내용
1차	자기이해 I (진로적성검사 및 현장학습)	- 진로탐색 활동의 필요성 및 수업일정 공유 - 커리어넷 아로플러스를 활용한 진로적성검사1
2차		- 커리어넷 아로플러스를 활용한 진로적성검사2
3차		- 커리어넷 아로플러스를 활용한 진로적성검사3
4차		- 학교 인근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한 진로탐색 활동 진행
5차		- 검사결과 정리 및 학생별 진로탐색 활동 계획하기
6차		- 전문대학교 박람회 참관
7차	자기이해 II (관심 흥미분야 연구)	- 관심 및 흥미분야에 대한 연구 계획 및 보고서 작성
8차		- 관심 및 흥미분야에 대한 보고서 작성
9차		- 연구 보고서 발표 및 공유
10차		- 2학년 대상 대학교 탐방 진행 (3학년 기말고사 기간)
11차	타인관찰 (현장 인터뷰)	- 관심 분야 관련자 인터뷰 계획 및 준비
12차		- 관심 분야 관련자 인터뷰 진행
13차		- 관심 분야 관련자 인터뷰 진행, 인터뷰 결과 정리
14차		- 인터뷰 결과 발표 및 공유
15차	구체적 실천 (인턴십 및 현장체험)	- 현장체험 섭외 및 준비
16차		- 현장체험 진행 1
17차		- 현장체험 진행 2
18차		- 진로탐색 수업 활동내용 총정리 및 공유

## 활동사진





1. MBTI 유형분석
2. 사전계획서
3. 프로젝트 진행 일정
4. 자료조사 결과
5. 참고자료 및 참고사이트
6. 소감문

## 01 MBTI 유형분석

자신의 MBTI 유형	MBTI 유형 특성과 자신의 성격
<p><b>유형</b> (INFP)</p>	<p><b>유사점</b> 따뜻하고 조용하다.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며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에 열정적인 신념을 갖는다. 낭만적이다.</p>
	<p><b>차이점</b> 성실성이 생활에서 묻어난다. 책임감이 강하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경향이 있다.</p>
<p><b>내 성격의 장점</b></p>	<p>따뜻하다. 이해심이 많다. 열정적인 신념을 갖는다. 관대하다.</p>
<p><b>내 성격의 개선하고 싶은 점</b></p>	<p>이해심이 많아 잘 속는다. 조용하다. 원래 내 유형은 책임감이 강하다고 나오지만 나는 책임감이 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p>

성명	최민우	지도교사	김현태
선정 주제명	게임	작성일	9월 15일(금)

**[동기]** 주제 선정 이유

평소 게임을 좋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가고 싶기 때문에 게임을 주제로 선정했다.

**[목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게임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여 중독이 아닌 적당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다.

**[방법]** 주제에 대한 자료조사 방법(인터넷, 책, 기관방문, 인터뷰, 다큐동영상 등)

인터넷, 책, 다큐동영상

**[내용]** 주제에 대한 자료 조사에 포함될 내용

1	게임의 유래	6	게임중독에 빠지는 이유
2	게임을 하는 이유	7	게임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
3	게임을 해서 얻어지는 장점	8	게임관련 직업의 종류
4	게임을 해서 얻어지는 단점	9	게임 관련 학과
5	게임중독의 위험성	10	-

**[기타]** 필요한 학습자원(기자재, 자료) 및 외부도움(사람, 방문 장소 등)

## 03

## 프로젝트 진행 일정

프로젝트주제	게임	단 계	관심 및 흥미분야 연구
수행기간	2017년 9월 15일(금) ~ 10월 19일(목)		
학생성명	최민우	지도교사	김현태
필요한 학습자원 (컴퓨터, 카메라, 캠코더 등)	필요한 외부도움 (선생님, 현장방문 등)		
	컴퓨터, 책, 핸드폰	-	

	날짜	내용	장소
1	9월 15일 (금)	관심 및 흥미분야 프로젝트 계획	교실
2	9월 27일 (수)	게임의 유래, 게임을 하는 이유, 게임관련 직업의 종류	교실
3	9월 28일 (목)	게임을 해서 얻어지는 장점, 게임을 해서 얻어지는 단점, 게임 관련 학과	교실
4	10월 13일 (금)	게임중독의 위험성, 게임중독에 빠지는 이유, 게임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	교실
5	10월 19일 (목)	연구보고서 발표 및 공유	교실

## 1. 게임의 유래

## 1) 초창기 성장

최초 컴퓨터 게임들 중 하나는 1961년에 당시 MIT 학생인 Martin Graetz 그리고 Alan Kotok이 MIT 임원이던 Steve Russell가 같이 통계적인 계산에 사용되던 PDP-1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스페이스워!(Spacewar!)'를 개발했다.

PC 게임의 첫 세대는 보통 플레이어가 컴퓨터 키보드로 명령을 입력해 컴퓨터와 소통하는 텍스트 모험 게임이나 쌍방향 소설이었다. 첫 텍스트 모험 게임인 '어드벤처'(Adventure)는 1976년에 Will Crowther가 PDP-11용으로 개발하고 1977년에 Don Woods가 확장했다. 1980년대 들어서, 개인용 컴퓨터들은 '어드벤처'와 같은 게임을 실행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나, 이 때는 그래픽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나중에 게임들은 '폴 오브 레디언스'나 '바즈 테일'과 같은 SSI 골드 박스 게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적인 그래픽과 함께 텍스트 명령이 결합되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 크리에이티브 컴퓨팅(나중에 컴퓨터 게이밍 월드) 같은 취미 생활자 그룹 그리고 게임 잡지들에 의해 게임들이 만들어지고 배포되었다. 이들 간행물들은 독자들이 하여금 코드를 제출함으로써 격려하여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와 경쟁하기 위해 컴퓨터에 타이핑하여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코드를 제공했다.



## 2) 게임 산업 위기

1980년대 초부터 비디오 게임 시장은 수많은 회사들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만들어낸 수준 낮은 게임들로 범람했고 비디오 게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낮아졌으며 교육용, 개인용 컴퓨터의 인기는 극적으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미국 게임회사들이 도산하였고 이에 따라 험잡 처분된 게임들이 시장에 흘러들어가 정가 라인이 붕괴되고 있었다. 1987년, 미국에 닌텐도 NES가 발매될 때까지 시장은 침체기에 들어선다.

A multitude of gaming systems can make for an ugly developer environment and hurt the game market. Just ask 1983.



### 3) 현재의 게임

1995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의 등장과 슈퍼 마리오 64 같은 3D 콘솔용 타이틀의 성공은 PC에서의 하드웨어 가속을 이용한 3D 그래픽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그 결과로서 ATI Rage, 매트록스 Mystique 그리고 S3(현 S3그래픽스) VIRGE와 함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생산되었다. 1996년 발매된 최초의 3인칭 슈팅 게임인 톰 레이더는 혁명적인 그래픽으로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운영 체제의 주요 변경으로 오래된 MS-DOS용 게임들이 윈도 NT, 윈도 XP에서 도스 박스 같은 에뮬레이터 없이는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윈도 9x 계열 운영 체제에서는 리얼 도스를 사용하지만 윈도 NT 계열의 운영 체제에서는 가상 도스를 구현하는 NTVDM를 사용하는 것이 그 까닭이다.)

빠른 그래픽 가속기와 CPU 기술의 발전은 컴퓨터 게임의 사실도를 높였다. ATI의 레이디언 R300과 엔비디아의 지포스 6 시리즈는 개발자들이 현대 게임 엔진의 복잡한 작업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PC 게임은 현재도 3D 그래픽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개발되는 게임은 대부분 그래픽 이외에도 물리학적 연산의 수행으로 게임 내 등장하는 모든 객체의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하복 물리 엔진 같은 물리 엔진 소프트웨어도 사용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광대역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동시 접속해 즐기는 온라인 게임 시장이 최근 발달하고 있다.

## 2. 게임을 하는 이유

할 것이 없어 시간을 보내려고 하기도 하고, 게임 내에서 더 높은 성취를 거두기 위해 하는 경우도 많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하는 경우도 있으며, 중독에 빠져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게임기획자들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게끔 게임을 만들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재미있으라고 만들어진 게임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아서 직접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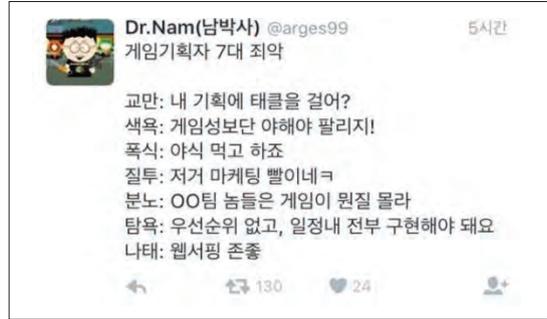
## 3. 게임 관련 직업들

### 1) 게임기획자

게임기획자는 PC 게임, 네트워크 게임 등 게임용 소프트웨어 제작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담당한다.

- 게임 시장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게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새로운 게임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이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한다.
- 게임의 장르와 대상 연령층, 게임 난이도, 게임의 각종 캐릭터의 역할 및 특징, 기본적인 스토리 전개 등을 설정하고, 그래픽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본격적으로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한 베타테스트를 하고 시연회에 참여하는 등 홍보 업무를 하기도 한다.

- 대사를 작성하는 등 세부적인 게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기획의도를 이해하기 쉽게 그래픽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 등에게 전달한다.
- 게임이 제작되어 상품화가 되었을 때 시장진입 및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지를 판단한다.
- 게임의 제작이 완료되면, 게임의 홍보와 마케팅 전략, 배급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2) 게임시나리오작가

컴퓨터게임 시나리오작가는 컴퓨터 게임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게임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개발하는 일을 담당한다.

- 다양한 자료를 읽거나 조사하며, 게임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여 새로운 게임 소재를 발굴한다.
- 게임의 주제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게임 시나리오를 창작한다.
- 게임의 스토리 전개를 구성하며, 게임의 개발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 3)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는 각종 컴퓨터게임 대회에 참가하여 게임을 한다.

- 프로그래머는 게임감독, 팀원들과 함께 전략시뮬레이션, 롤플레이팅, 액션게임, 온라인게임 등 컴퓨터 게임에 대한 기술 및 전략을 익히고 꾸준히 연습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한다.
- 소속회사에서 개발한 새로운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한 베타테스트를 하며, 새 게임소프트웨어가 출시되면 시연회와 홍보를 하기도 한다.



## 4) 기타직업

비디오 게임해설자, 게임마케터, 게임감시관 및 조사관, 비디오게임 디자인 등이 있다.

# 4. 게임 관련 대학교 학과

## 1)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언어와 문학작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언어와 글의 문법적 구조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변천사를 학습한다. 주로 게임 시나리오, 스토리, 대사집 구성 등의 활동과 연관이 있는 학과이다.

## 2) 문예창작과

문예창작과에서는 장르론, 창작실기, 문학개론, 문장론, 구성론 등을 비롯하여 문학 각 장르의 본질과 체계를 이해하고 창작에 관련된 실기 함양하기 위한 교과목을 익힌다. 국어국문학과와 비슷하게 시나리오 작성, 스토리, 대사집 구성과 관련이 있다.

## 3) 컴퓨터게임학과

컴퓨터 상에서 구동되는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의 제작 원리를 배우고 이를 위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 윈도우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등을 익힌다. 게임 프로그래밍 등 게임을 전반적으로 만들고 구현화하는 작업과 관련이 있는 학과이다.

## 5. 게임의 장점

일단 게임을 함으로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푸니 타인에게 피해나 상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 날 때 어디서나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요즘은 단순노동게임 이외에 전략게임종류나 기억력암기게임, 스피드게임 종류 등 많아서 두뇌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남녀노소 불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6. 게임의 단점

중독성이 강하고, 오래할 경우 자신이 할 일을 망각하고 빠져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게임을 오래 하면 눈이 피로해서 안구 건조증이나 시력이 나빠지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오기도 하며 운동을 안 하게 되어 살이 찌기도 하는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한다.



## 7. 게임중독의 위험성

게임 중독에 빠지면 먼저 시간감각이 없어진다. 낮과 밤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만 해야겠다는 시도는 매번 실패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된다. 지나치게 오래 사용하여 현실세계에서 해야 할 학업, 업무의 성과가 떨어지며, 대인관계가 줄어들는다. 학생은 출석을 하지 못해 휴학을 하거나 제적을 당하기도 하며, 직장인은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켜 그만두게 된다.

심하면 컴퓨터가 있는 방이나 PC방에서 며칠간 꿈쩍도 않고 식사까지도 그 안에서 해결하면서 지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 컴퓨터 사용시간을 놓고 가족과 갈등을 일으키고, 폭언과 공격적 행동을 하는 등 반항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갈등,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강해질 때 게임에 접속하면 기분이 나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보상이나 자가 치료를 위해 게임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병적인 탐닉에 대한 죄의식, 자기조절 실패로 인한 좌절감 등이 우울감을 악화시키고 자존감을 낮춰 더욱 게임에 몰두하게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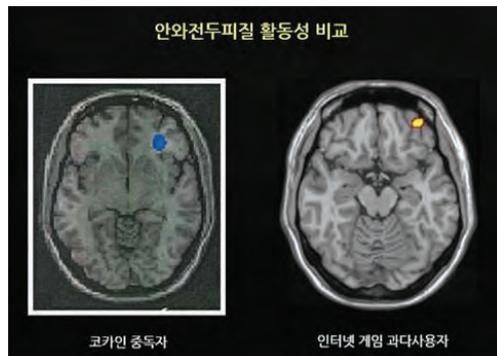


## 8. 게임중독에 빠지는 이유

자극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특히 자극이 이전에 접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거나, 가변성이 있어서 어떻게 변화할지 잘 모르는 것일 경우에는 더욱 주목을 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극에 더 집착하게 된다. 과거에는 이런 자극들이 우리의 생존과 관계 있는 중요한 것인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낯선 사람은 우리의 적일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목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생존과 관계없는 다양한 자극의 홍수에 휩싸이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들이 출몰한다. 이 대부분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자극들이지만, 항상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기에 주목하게 되고 끝없이 이 속을 헤매고 다니게 된다.

항상 상황이 바뀌면서 끊임없는 주목을 요구하는 온라인게임 역시 마찬가지다. 더구나 게임들은 새로운 아이템 획득, 등급 승진 등의 강력한 자극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한정된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하도록 만든다. 게임 개발자들은 사용자의 주목을 얻기 위해 항상 더 자극적인 것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바로 이것이 중독을 일으키는 덫이 되는 것이다. 한편, 우울감, 강박적 경향, 산만함과 집중력 저하, 충동성, 낮은 자존감, 사회적 불안감 등 다양한 종류의 정신과적 문제가 인터넷중독과 관계된다. 특히 우울증은 인터넷중독과 관련이 있다. 우울증 환자는 의욕, 흥미



가 떨어져 평소에 하던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인터넷은 적은 노력으로도 집중,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일시적으로 우울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활동은 접어둔 채 인터넷에 몰두하게 되며 겉보기로는 인터넷중독으로 보일 수 있다.

## 9. 게임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

인터넷중독(게임중독)은 아직 정신과 진단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중독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인터넷중독이 의심될 경우는 인터넷중독 평가뿐만 아니라 인터넷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전문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우울증 등 인터넷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인터넷중독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절대시간이라는 양적인 측면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적응적 행동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모든 온라인게임은 중독성이 있다. 중독성이 있다는 것은 빠져보기 전에는 스스로 알 수 없고, 이미 빠진 뒤에는 헤어나오기 힘들다. 따라서 무심코 게임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원래 성격이 충동적이거나, 지나친 집착을 하거나, 다른 건전한 취미생활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며, 다른 건전한 취미생활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도 게임이나 무한정 인터넷 서핑 같은 문제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일차적인 방법이다. 가정에서라면 컴퓨터에 패스워드를 걸어 놓아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고 싶은 순간적인 욕구가 생기더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일단 중독이 되면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타율적인 통제가 필요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밤 시간에 PC방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때 청소년 야간 게임 접속 금지가 논의된 바 있는데, 게임산업을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문제가 되겠지만 심리적, 환경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게임산업의 진흥과 청소년 인터넷중독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인터넷이나 게임에 접근을 할 수 없게 된 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은 갈망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당히 하면 욕구가 충족되는 정상적인 상황과는 달리, 중독이 되었을 때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중독과 관련된 치료에서는 그룹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그룹 프로그램은 예방 프로그램과 치료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모두 인지행동적 모델을 주로 이용한다. 또한 개인치료로서도 인지 치료가 많이 사용되며 인터넷중독을 가진 환자들은 오랫동안 비적응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현실생활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고통에 대한 정신치료도 시행될 수 있다. 인터넷중독과 관계되거나 인터넷중독으로 보일 수 있는 우울증, 강박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치료하면 인터넷중독 증상도 호전될 수 있다.



## 05

## 참고자료 및 참고사이트

## 1. 참고자료 및 참고사이트

	검색 내용	참고문헌, 자료, 사이트	비고
1	게임의 유래	네이버 지식인 및 블로그	
2	게임을 하는이유	-	
3	게임관련 직업의 종류	커리어넷, 워크넷	
4	게임을 해서 얻어지는 장점	네이버 지식인	
5	게임을 해서 얻어지는 단점	네이버 지식인	
6	게임관련 학과	커리어넷, 워크넷	
7	게임중독의 위험성	네이버 지식인 및 블로그	
8	게임중독에 빠지는 이유	네이버 지식인 및 블로그	
9	게임중독을 극복하는 방법	네이버 지식인 및 블로그	

## 06

## 소감문

## 1 수행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자료가 없거나 잘 안 나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직접 쓰시 선생님이 자꾸 다시 쓰게 해서 어려웠다.

## 2 재미있거나 좋았던 점

내가 만든 보고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하며 보여줄 때 뿌듯했다.

## 3 조금 부족했던 점

사실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붙여 넣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 했던 점이 부족했다. 발표할 때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하니까 모르는 티가 많이 났다.

## 4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깨우친 것(배운 점)

뭐든 계획적으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게임이란 것이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내가 게임에 대해 궁금해 하고 알아본 것 중 게임 중독에 대한 내용이 많았던 것을 볼 때, 나 스스로도 게임 중독의 무서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다.

## 5 다음 발표회 때 다르게 하고 싶은 점

보고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또박또박 발표하고 싶다.

## 6 끝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

현태쌤.

인터뷰 프로젝트

스포츠 에이전트란?



소 속 : 꿈에학교  
 학 년 : 2학년  
 작성자 : 허준원



1. 사전계획서
2. 프로젝트(인터뷰) 진행 일정
3. 프로젝트(인터뷰) 연결과정 일지
4. 프로젝트(인터뷰) 질문 및 답변
5. 소감문

성명	허준원	지도교사	김현태
프로젝트 주제	스포츠 에이전트 인터뷰	작성일	2017년 11월 24일(금)

#### [동기] 프로젝트 주제

탐방 직업      스포츠 에이전트

직업 선정 이유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에 원래 관심이 있었다. 스포츠를 좋아하기도 하고, 선수들을 관리하는 일이 재미있을 것 같다.

#### [목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평소 막연히 관심만 가지고 있던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해결할 수 있다.

#### [방법] 인터뷰 대상 직업에 대한 섭외 방법 (외부도움, 인터넷 검색 등)

인터넷 검색 등

#### [내용] 관심직업에 대한 자료 조사에 포함될 내용

탐방직업	방문 및 인터뷰 대상	현장방문 장소
스포츠 에이전트	스포츠 에이전시 회사 방문 및 담당자 인터뷰 (현재 섭외 중으로 구체적 대상은 미정)	섭외된 스포츠 에이전시 회사 (현재 섭외 중으로 구체적 장소는 미정)

## 02

## 프로젝트 진행 일정

프로젝트주제	스포츠 에이전시 인터뷰		
수행기간	2017년 11월 24일(금) ~ 12월 29일(금)		
학생성명	허준원	지도교사	김현태
필요한 학습자원 (컴퓨터, 카메라, 캠코더 등)	팀원의 역할		
		이름	맡은 역할
노트북, 핸드폰	허준원(단독)	계획서 작성, 인터뷰 섭외, 질문 작성, 인터뷰 진행, 보고서 작성	

	날짜	내용	참고자료
1	11월 24일(금)	인터뷰 프로젝트 계획 세우기 및 계획서 작성, 인터뷰 섭외 준비	-
2	12월 7일(목)	인터뷰 계획서 작성 및 인터뷰 섭외	-
3	12월 8일(금)	인터뷰 섭외 / 인터뷰 진행	인터넷
4	12월 15일(금)	인터뷰 진행	-
5	12월 28일(목)	인터뷰 보고서 작성	-
6	12월 29일(금)	인터뷰 보고서 작성 및 발표	-

## 03

## 프로젝트(인터뷰) 연결 과정 일지

날짜	2017년 12월 7일(목)	작성자	허준원
연결경로	전화통화		
현장개요	현장명	미정	
	담당자명	미정	
	연락처	미정	
	위치	미정	
	홈페이지	미정	
진행사항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 에이전시 연락처를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일단 거리가 가까운 강남구에 있는 두 개의 에이전시 회사들에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 되거나 인터뷰를 못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늘은 시간 관계 상 많이 연락을 해 보지는 못했다. 생각보다 스포츠에이전시가 바쁜 것 같다. 다음에는 오늘 연락이 안 된 곳 포함해서 더 많은 곳에 연락을 해 볼 계획이다.		
최종결과 (방문/취소/미룸 등)	전화 연결이 안 되어 다시 섭외		

날짜	2017년 12월 8일(금)	작성자	허준원
연결경로	전화통화, 이메일 발송		
현장개요	현장명	미정	
	담당자명	미정	
	연락처	미정	
	위치	미정	
	홈페이지	미정	
진행사항	어제 전화연결이 안 된 곳은 오늘도 전화가 되지 않았고, 다른 곳도 연말이라 바빠서 인터뷰가 어렵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에이전시 회사들이 바쁜 시기인 듯 하여 선생님과 이야기 해 현장인터뷰가 아니고 이메일로 진행하는 서면인터뷰를 해보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몇몇 에이전시 회사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 인터뷰를 신청하는 메일을 보내보았다. 다음 수업 때에는 이메일 답장 여부 및 인터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일단 오늘 연락한 에이전시 회사에서 답이 없다면 다른 에이전시 회사의 이메일도 확인해야 한다.		
최종결과 (방문/취소/미룸 등)	이메일 답변 기다리기		

<b>날짜</b>	2017년 12월 15일(금)	<b>작성자</b>	허준원
<b>연결경로</b>	이메일		
<b>현장개요</b>	<b>현장명</b>	리코스포츠에이전시	
	<b>담당자명</b>	이예랑 대표님	
	<b>연락처</b>	leecosports@naver.com	
	<b>위치</b>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b>홈페이지</b>	<a href="http://leecosports.com/">http://leecosports.com/</a>	
<b>진행사항</b>	이메일을 보냈던 곳 중,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스포츠에이전시에서 답장이 왔다. 연말 일정이 많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서면 인터뷰 진행이 어렵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리코에이전시의 이예랑 대표님이 진행했던 인터뷰의 영상과 자료들을 많이 보내줬다. 이 인터뷰 영상과 자료들 중에서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과 관측은 소스들이 많이 있어 이 자료를 이용해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어떨까 싶다. 수업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다들 바쁜 시기인 듯 하여 현실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b>최종결과 (방문/취소/미룸 등)</b>	선생님과 상의해 인터뷰 영상들과 인터뷰 기사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 중 필요한 질문과 대답을 추려내서 인터뷰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함		

질문	내용	답변
1	스포츠 에이전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스포츠 선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생활을 훌륭히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선수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광고와 스폰서십을 유치하고 선수들의 초상권, 마케팅, 미디어 관계 등을 관리해주는 것이 바로 에이전트다. 기본적으로 선수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모든 일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많이들 얘기한다. 그래서 스포츠 에이전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선수들이 활동할 때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한 계약 협상이라든지 그 외에 선수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전반적으로 해 주는 사람을 스포츠 에이전트라고 보면 될 것 같다.
2	스포츠 에이전트를 준비하는 방법	대부분의 에이전트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갖고,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 대학 진학을 많이 택하고 있다. 학과는 스포츠매니지먼트 관련학과, 경영학과 또는 마케팅학과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경영 및 협상, 마케팅 그리고 법 관련 공부를 하면 에이전트 기술능력을 향상시켜줄 것이다.
3	스포츠 에이전트란 직업의 발전 가능성	아직은 초창기 단계인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시장은 그 발전 가능성이 큰 편이다. 아직은 사실 미개척 분야이지만 지금 이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기회는 많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고 충분히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4	직원을 채용할 때 특별히 눈여겨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한 사람을 하나의 능력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려는 일을 좋아해야 한다. 일도 잘 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을 선호하는 편이다. 밝고 긍정적이면서 적어도 딱 한 가지 정도는 스스로 자신이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요즘 구직자들은 스펙 쌓기를 너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학력, 학점, 어학실력은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아직 회사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점을 감안해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뽑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5	스포츠 에이전트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스포츠 에이전트도 연예인 매니저와 같이 항상 선수를 쫓아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일부터 한다. 스포츠 에이전트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워낙 많아 연봉협상 등 계약만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매니저를 따로 두기도 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 에이전트는 선수를 위해 최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항상 배우는 자세도 필요하다.
6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어떤 회사인가?	이미 알려진 것처럼 가장 많은 야구 선수들이 소속된 에이전시다. 톰크루즈가 출연한 영화 제리맥과 이어에 나오는 선수들의 조력자이자 대리인 역할을 하는 회사다. 최근 야구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볼트모어 오리올스의 김현수 선수를 비롯해 지난해 시카고 컵스에 입단한 권광민 선수가 우리 회사 소속이다. 박병호 선수는 광고, 협찬 등 국내 활동에 대한 에이전트 역할을 맡고 있다.
7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에이전트가 꿈이라는 젊은이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게 야구규약은 읽어 봤는지다. 단순히 야구를 좋아하고 아는 사람이 야구 선수가 있다고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게 아니다. 다양한 조건, 형태로 이뤄지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폭넓은 지식도 필요하다.

**1 수행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인터뷰 진행 및 섭외단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웠다. 일단 인터뷰 대상을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다. 에이전트를 어디서 찾아야 되고 어떤 연락망으로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는데, 막상 찾아본 에이전트들에서 인터뷰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2 재미있거나 좋았던 점**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 업계가 점차 유망해지고 있는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다. 또한 스포츠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어떻게 계약 되고 있는지 그 절차를 알게 되서 신기하고 좋았다.

**3 조금 부족했던 점**

일정 등의 이유로 직접 인터뷰를 못한 점이 아쉽다. 또한 이메일로 겨우 연락이 닿은 리코스스포츠에이전시에서 일정이 바빠 서면 인터뷰 진행이 어렵다 해서 제대로 된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고 기존에 진행된 인터뷰 영상을 통해 보고서를 정리하게 되어 아쉬웠다.

**4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깨우친 것(배운 점)**

스포츠 에이전트를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는 것과 공부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단순히 선수들의 연봉 계약만 맡는 게 아니라 선수 관리와 이미지 메이킹 등 스포츠 선수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5 다음 보고서 작성 때 다르게 하고 싶은 점**

직접 에이전트를 만나서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다. 리코스스포츠에이전시에서 보내 준 자료에 여러 가지 참고할 만 한 정보와 내가 가진 궁금한 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내용이 많긴 했으나,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스포츠 에이전트를 준비했는지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있었던 여러 경험, 실제로 겪었던 어려웠던 점, 선수관리비법 등 물어보고 배우고 싶은 게 아주 많다.

**6 끝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

리코스스포츠에이전시에서 인터뷰는 못해주셨지만 답장을 안 하실 수도 있었는데 여러 자료들을 보내주시고 양해를 구해주셨다는 점이 참 고맙다. 그리고 옆에서 계속 도와주신 김현태 선생님도 고맙다.



## "꿈에 그리던, 꿈에 학교"

꿈에학교 재학생 전해빈

내가 꿈에학교에 온 이유는 본교 적응과 가족 갈등, 그중 진로문제가 중심이었다.

서류 통과에 이어 면접까지 통과 되었을 땐 너무나도 안정을 느끼는 한편으로는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조금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처음, 적응기간에 대안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꿈에학교가 위치한 드림센터의 시설과 활동, 선생님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때 놀라웠던 건 본교 선생님들과 달리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안전(학교 내 뿐만 아닌 외부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것 이었다. 그 때 당시 심적으로 힘들었던 나에게 그저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위로와 행복 이었다. 같이 위탁 온 친구들이 모두 남자여서 소외감을 느끼긴 했지만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다보니 언제 어색했냐는 듯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 그 때 까지만 해도 적응기간이라도 수락해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하고 뭐든 적극적으로 참여 했다. 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에...

그러다가 정식으로 위탁이 되고 처음 꿈에학교에 들어왔을 때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무서웠었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래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 나와는 전혀 반대의 성격을 가진 꿈에학교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다. 당시, 내 또래 여자아이도 학교에 잘 나오지 않아 더 외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들이 나에게 물었다. "꿈에학교에는 왜 오게 되었니?" 나는 내가 학교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언니들을 격려와 위로를 해 주었고, 순간 지난 날들이 생각나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올 뻔 했었다. 그 이후부터 이곳에 있는 꿈에학교 학생들과 친해지고 선생님들과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듣다 보니 삶에 대한 의지가 없고 매일 학교에 가기 싫던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일주일 내내 오고 싶은 곳으로 변화되면서 장래 희망에 대해 더 확고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교보다 자유로운 교육방식이란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반고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해야 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꿈에 학교 학생들은 더 열정적이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선택한 길이니 후회란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언제나 나에게 고민을 들어주고 아플 때 걱정해 주고 늘 곁에만 있어도 힘이 되고 웃게 만들어 주는 꿈에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었던 것 같다. 나를 변화 시켜 주신 내 인생에 큰 선물이 된 꿈에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여서 이곳에 온 한 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다. 부모님께서도 내게 한동안 없었던 웃음이 생기고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도 많은 고마움과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내 인생에 변화와 자신감, 의지를 갖게 해 준 꿈에학교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마음에 담아 두어야겠다.

어느덧 꿈에학교에 온지 5개월,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장기간으로 편안함과 즐거움을 가졌던 시기 였던 것 같다. 아니 일 것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내가 앞으로 오는 행복들을 나누어 주고 싶다. 그 만큼 난 너무 행복했었으니까...

---

## 꿈에학교

꿈에학교 졸업생 김승연

저는 꿈에학교에 다닌 지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는 항상 같은 공부만하고 제한된 규정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선생님들과의 다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탁형 학교를 찾아다녔지만 괜찮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꿈에학교를 알게 되었고, 면접을 보게 되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강동구에 사는 저에겐 학교가 너무 멀기도 하고 잘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을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다르게 같이 들어간 친구들과 원래 다니던 언니, 오빠, 동생들이 잘 적응 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선생님들도 제 마음을 잘 알아주고 이해해주셔서 잘 적응했습니다. 물론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께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말대답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무작정 혼내려 는 본교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차분하게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꿈에학교에선 일반학교와 다르게 외부로 나가서 체험을 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고 다양한 수업들을 하며 여러 가지활동을 경험 할 수 있게 해주어서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에 관심이 생기고 제 진로를 찾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국,수,사,과,영 같은 기본과목들의 수업도 재밌고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수업을 해서 집중해서 공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사하고 저도 커서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전 20살이 되고 졸업을 해서 사회로 나가야하는데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계속 학생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꿈에학교에서 배운 점들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보람찬 사회 생활을 해서 학교를 무사히 졸업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꿈에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가장 고생하신 부모님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은 만큼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꿈에학교를 다니면서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꿈이 없던 저에게 목표를 만들어준 꿈에학교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 언젠가는~

2017년의 꿈에학교는 ‘안정화’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안정화? 꿈에학교는 원래 바람 잘 날이 없는 학교다. 각자 학년이 다르고 특출난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 1년을 생활하다 보니 언제나 시끌벅적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앞서 언급한 바람으로 비유하자면 사시사철 바람이 불기로 유명한 대관령 같은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학기가 끝나고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나 안정화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실제로 학기 중에는 정말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뭐가 안정화냐고? 원래 지난 기억은 조금은 미화되기 마련이 아닌가... 지난 1년을 천천히 돌아보자니 매년 세차게 불던 바람이 그래도 올 해는 조금 잔잔해졌(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드림센터의 풍운아 집합소였던 꿈에학교가 올 해는 그래도 조용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년 간이나 거세게 불던 바람이 잦아든 이유가 무엇인지 나름 생각을 해 보았다.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담당인력의 증원이라고 생각한다. 작년까지의 꿈에학교는 담임 1명, 부담임 1명으로 총 2명의 실무진이 구성되어 있었다. 담임이 학교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부담임은 행정적인 보조역할 및 꿈에학교 외의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조였기에 부담임의 꿈에학교 업무 비중에 한계가 있었고 이는 담임의 업무 부담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올 해는 담당 인력의 수는 2명으로 동일하지만, 두 교사가 꿈에학교에 전담으로 투입되어 공동 담임으로 꿈에학교의 업무를 분담하는 구조로 변화했다. 이 변화로 인해 기존에 담임교사 1명에게 지워지던 업무가 2명에게로 분산되어 전체적인 학교 운영의 안정화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학생들에 대한 보다 밀접한 돌봄이 가능해진 점이라고 본다. 첫 번째 이유와도 연관된 사항으로, 담당 업무의 분화로 담임이 컴퓨터 앞이 아닌 학생 앞에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의 수업, 교육활동 외에도 학기 중 매일 아침 진행된 담임들의 모닝 콜(아침마다 학생들의 상황과 등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 매 주 1회 진행된 공동체 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근황토크(해당 주에 있었던 개인적인 대소사를 이야기하며 현재 본인의 상태나 기분을 공유하는 시간),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진행된 상담과 면담 등으로 학생 - 선생간의 상호 소통과 이해의 기회가 증대되었다. 이 시간들이 담임들에게는 학생들에 대해 보다 잘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학생들에게는 학교,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상기한 변화들로 인해 생긴 학생 - 선생간의 신뢰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 변화의 초석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학생 각자의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다. 결국 학교 운영 구조에 대한 변화의 시도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정화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올 해를 돌아보면 아쉬웠던 점도 많이 있다. 학교의 특성화 과정으로 설정한 ‘진로탐색’이라는 주제에 대해 아직 교육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수업, 학교 내 활동으로 풀어내는 데에 미흡하며, 학생들의 생활 관리나 학사 운영 등에 있어서도 보완할 점이 많다. 어떻게 보면 개선되어야 할 것 투성이라 아직은 안정화되면 안 되는, 갈 길이 먼 학교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의 서두에 ‘안정화’라는 이야기를 꺼내

며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았던 이유는 어쨌든 현재 꿈에학교가 보다 발전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학교지만 발전하고 나아지기 위한 많은 노력과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런 시간들이 계속 쌓이다보면 언젠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들이 하나씩 채워지고 학생과 선생 모두가 좋은 학교라고 자부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



### 1.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드는 학교 만들기

- 퍼실리테이션을 이용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교육 과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 초기 교육 과정 계획부터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한다면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나, 준비적응 이후 바로 교육 과정 운영이 진행 되어야 하는 상황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어 1학기 교과는 학교와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탐색 과정으로 운영하고, 2학기 교과는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한 선택 수업으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또한, 다원화 되어있는 위탁형 대안학교 별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 등을 통해 교육과정이 다양화 된다면 더욱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 2. 진로 탐색 특성화 학교로 나아가기

- 2017년에는 진로 특성화로 진행된 교육 과정을 통해 1학기에는 자·타인에 대한 이해, 이색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면 2학기에는 본인이 흥미를 가진 직업군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진로 심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행 하였다.
- 그러나 인턴십이나 현장방문 진행 시 학생들이 연계할 기관이나 작업장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18년에는 지역 내 자원 발굴과 더불어 인근 대안학교 간 진로 직업·인턴십 자원풀을 공동으로 운영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 3. 매일 매일 조금씩 등교하는 습관 만들기

- 생활관리 부분에 있어 매일 아침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등교 시 유선연락을 통해 학생들의 컨디션을 매일 체크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었다.
- 이를 기반으로 학생-학부모-교사가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운영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배움의 틀을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이름학교

도시형 대안학교 이름학교는 비인가 대안학교로써 건강한 시민을 비전으로 학생들과 평등하게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이름학교는 청소년들이 '활력'을 되찾고, 각자의 보폭에 맞춰 '배우며'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도시형 대안학교 이름학교
- 목적 학교밖청소년들이 경험학습과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한다.
- 목표 1. 교사와 학생의 민주적 의사소통 체계와 절차에 따라 상호경험이 만나고 관계교육을 한다.  
2. 무기력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개별 욕구를 개발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한다.  
3. 16년 평가를 통해 도출된 '행복과 자립'을 키워드로 교육과정을 발전시켜 운영한다.
- 대상 학교밖청소년
- 정원 15명
- 일시 2017년 2월 ~ 12월
- 내용 준비기간, 공통과정(기초지식교육, 시민교육, 생활교육, 공동체활동), 길찾기 교육과정(경험과 체험, 진학진출)

## • 교직원 현황

구분	교장	교감	교무부장	교사	강사	계(명)
인원	1	1	1	3	33	39

\*1, 2학기 강사 중복인원 10명 포함

## • 교육인원 현황

## 1학기

구분	과정별		성별		신규	기존
	경험과 체험	진학진출	남	여		
인원	7	6	5	8	3	10
계			13			

## 2학기

구분	과정별		성별		신규	기존
	경험과 체험	진학진출	남	여		
인원	8	6	4	10	2	12
계			14			

## 학교현황



## • 준비기간

### 운영목적

학생들이 2017년 이룸학교의 방향과 교육을 이해하고 학기 시작을 준비하며 신입생과 재학생이 함께 어울려 서로를 알고, 학교 공동체를 만든다.

### 시행내용 및 인원

학기	기간	내용	인원		
			남	여	총 인원
1학기	3월 2일 ~ 3월 31일	소개 및 공동체 인사, 자발적 참여 시스템 경험, 기본교육(소방교육, 건강검진)	5	8	13
2학기	8월 28일 ~ 9월 22일	팀별 자치활동, 세상보기 외부활동	4	10	14

### 프로그램 시간표

#### 1학기 준비기간 시간표

구분	2/27/월	2/28/화	3/1/수	3/2/목	3/3/금
10:00~12:00				전일 일과 나눔	공동교과 안내 과정소개
13:00~15:00				센터 내 인사 공동체 놀이	팀별 자치 활동 팀 나누기 계획세우기1
	3/6/월	3/7/화	3/8/수	3/9/목	3/10/금
10:00~12:00	공동교과 안내 과정소개, 선택	기초생활캠프 1차 기획회의	과정별 1차 모임	서로 알아가기	팀별 자치활동 -서울숲
13:00~15:00	팀별 자치 활동 계획세우기2	센터 놀이 시설 이용	팀별 자치 활동 계획세우기3	기초생활캠프 2차 기획회의	
	3/13/월	3/14/화	3/15/수	3/16/목	3/17/금
10:00~12:00	2차 답사	기초생활캠프 3차 기획회의	과정별 2차 모임	건강검진	팀별 자치활동 -에버랜드
13:00~15:00		팀별 자치활동 -놀이	소방 및 재난 교육	팀별 자치활동- 쉬기(자공방)	
	3/20/월	3/21/화	3/22/수	3/23/목	3/24~26/금~일
10:00~12:00	과정별 3차 모임	과정별 4차 모임	준비기간 평가	기초생활캠프	
13:00~15:00	기초생활캠프 4차 기획회의	기초생활캠프 최종준비			
	3/27/월	3/28/화	3/29/수	3/30/목	3/31/금

기초생활캠프

## 2학기 준비기간 시간표

구분	8/28/월	8/29/화	8/30/수	8/31/목	9/1/금
10:00~ 12:00	개학식 - 근황토크 및 자기소개 - 준비일정안내	2학기 안내	기초생활캠프 1차 기획회의	2학기 1차 기획회의	세상보기- 외부활동
13:00~ 15:00	센터 내 인사 공동체놀이	팀별 자치, 외부활동 팀 나누기 계획세우기1	내부안전교육	팀별 자치, 외부활동 계획세우기2	
	9/4/월	9/5/화	9/6/수	9/7/목	9/8/금
10:00~ 12:00	2학기 2차 기획회의	팀별 자치활동	기초생활캠프 2차 기획회의	팀별 자치활동	세상보기- 외부활동
13:00~ 15:00	팀별 자치, 외부활동 계획세우기3		건강검진 (신입생대상)		
	9/11/월	9/12/화	9/13/수	9/14/목	9/15/금
10:00~ 12:00	2학기 3차 기획회의	팀별자치활동	기초생활캠프 3차 기획회의	세상보기- 외부활동	2학기 4차 기획회의
13:00~ 15:00	성교육		기초생활캠프 4차 기획회의		준비기간 평가
	9/18/월	9/19/화	9/20/수	9/21/목	9/22/금

기초생활캠프

## · 학기운영

### 운영목적

학교밖청소년들이 경험학습과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한다.

### 교과시간표

#### 1학기 교과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길찾기교육과정			공동체의 날		길찾기교육과정	
	진학 진출반	경험과 체험반			진학 진출반	경험과 체험반	
10:00~ 12:00	미디어 소통	착한 가게 찾기	<생활자립교육> 컴퓨터실용 /이미지관리	공동체회의	<생활자립교육> 기초포토샵+동영상	개인	금속 공예
12:00~13:00 점심시간							
13:00 ~ 15:00	회의 산책 /청소	경제반 블로그	<기초지식교육> 수학1 / 수학2	<공동체수업> 자기표현	<시민교육> 소통 / 인문학	학습	케이크 데코 & 피아노
15:00~15:15 쉬는시간							
15:15 ~ 17:15	글쓰기	보컬	<기초지식교육> 영어1 / 영어2		<생활자립교육> DIY 가구 만들기	시간	

## 2학기 교과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길찾기교육과정			공동체의 날		길찾기교육과정	
	진학 진출반	경험과 체험반			진학 진출반	경험과 체험반	
10:00 ~ 12:00	일본어 글쓰기	개인 프로 젝트	<생활자립교육> 독서모임 / 돈관리	공동체회의	<생활자립교육> 요리 / 3D 프린팅	개인	캘리 그래피  피포 페인팅
12:00~13:00 점심시간							
13:00 ~ 15:00	개인 프로 젝트  세상보기	개인 프로 젝트	<기초지식교육> 수학1 / 수학2 / 기초학습반	<공동체수업> 자기표현	<시민교육> 소통 / 인문학	프로	개인 프로젝트  기초학습
15:00~15:15 쉬는시간							
15:15 ~ 17:15		춤  기타	<기초지식교육> 영어1 / 영어2		<생활자립교육> PPT / 운동	젝트	

## • 공동과정

**운영목적** 학교의 비전인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과 빅픽처를 그릴 수 있는 바탕교육을 진행한다.

### 내 용

과정	수업	내용
기초지식교육	수학/영어	• 기초교과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성취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시민교육	인문학/소통	• 건강한 시민으로 갈 수 있는 바탕교육 • 토론을 통해 사고와 생각의 확장 • 생각 정리 및 나눔
생활교육	기초생활캠프 생활자립교육	• 기초생활을 만들고 구성원으로 서로 익숙해지는 시간, 서로 알기, 이해하기 • 실질적인 생활교육을 통한 자립·생각 정리 및 나눔
공동체활동	공동체회의 자기표현	• 구성원으로써 함께 살아가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연습 • 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지켜보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수업

## • 길 찾기 교육과정

이룸학교는 반별 운영 시스템인 길 찾기 교육과정을 통해 서로의 성장의 속도를 받아들이고 본인의 속도에 맞추어 각자의 길을 찾는 과정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험과 체험/진학진출로 나뉜 두 반은 나이와 학년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속도에 맞춘 과정을 교사와 논의 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과정에 맞는 개별 학습 혹은 활동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각자의 삶의 방향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 경험과 체험

**운영목적** 개인 및 공동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활동을 경험 및 체험하여 크고 작은 성취와 행복의 경험을 갖고, 이를 통해 자기 긍정성을 길러내어 정서적 자립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한다.

### 내 용

과정	내용
블로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배움의 과정, 결과를 다양한 매체로 블로그에 기록</li><li>• 성장 및 변화를 기록하여 확인하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하여 재생산</li></ul>
문화예술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각자 흥미를 가진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수업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줄 아는 것으로 발전시키고 성취감을 경험하여 긍정적 자아상 확립</li></ul>
개인프로젝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생 개개인의 흥미에 맞춘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고 정리하는 과정</li></ul>

## 진학진출

**운영목적** 삶의 방향을 디자인 하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 실천을 하여 실질적인 일의 세계를 경험한다.

### 내 용

과정	내용
탐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진로에 대한 개별 탐색(진로검사, 직업인 인터뷰 및 정리, 일일직업체험, 인턴십)을 통한 방향 설정</li></ul>
진학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과 탐색, 입시 등 대학에 대한 구체적 준비</li></ul>
개인프로젝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맞춘 주제 및 개별 활동을 선정하여 탐구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li></ul>



## 진통 끝에 마주할 성장을 기다리며

이룸학교는 지난 1년간 진통을 겪었습니다. 4년 전 학교를 개교한 후 처음 겪는 어려움이 학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 안에서의 생활적, 관계적 동력이 많이 떨어져 학생들 사이에서의 어려움 혹은 학교를 잘 나오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1년 내내 보였습니다. 이는 3년 동안의 학교 운영 안에서 변화되어 온 것들을 받아들이고 학교 안에 녹여 내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학교의 구성원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3명이었던 담임 교사진은 두 명으로 변화되었고 이를 통해 경험과 체험, 자기탐색, 진학진출 세 반으로 운영되던 것이 경험과 체험, 진학진출 두 반으로 나뉘고 자기탐색 과정을 두 반 안에서 흡수되어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를 처음 개교 할 당시 있었던 학생들의 모습과 현재의 학생들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자기 긍정성이 높고 일탈의 모습을 보이던 학생들은 현재 무기력과 은둔으로 본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년 동안 진행되어진 교육 과정이 큰 변화 없이 동일하게 운영 된 점입니다. 이는 학생은 변화되어 가지만 수업의 내용은 예전 방식으로 운영되어져 현재 있는 학생들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 부분을 올해 많이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 한해 이룸학교는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며 진통을 겪었습니다. 교사들도 학생들도 변화하는 분위기와 풀리지 않는 매듭을 계속 풀어가는 것을 느끼며 1년을 버텨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학교 내에 꽃도 피었습니다. 한 학기를 정리하는 다양한 방식의 공유회 안에서 서로의 성장을 느끼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올해의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박하지만 서로 가진 것들을 공유하며 내가 학교를 다니며 성장한 모습을 한명도 빠지지 않고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가 걸어온 지 4년째, 올해는 학교를 돌아보고 구성원에 대한 깊은 탐구와 고민을 통해 학교가 변화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해왔던 것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우리가 함께, 평등하게 소통하며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변화할 학교가 기대됩니다.

# 3

## 점프-업 코스 검정고시 대비반

황현영

점프-업 코스는 학교밖청소년의 최종학력 향상과 멘토와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자존감 강화를 도모하고, 진로탐색으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며 건강한 성인으로서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점프-업 코스
- **목적** 검정고시 대비학습으로 인한 학교밖청소년의 최종학력 향상과 청소년의 자존감 강화를 돕는다.
- **대상** 학교밖청소년
- **정원** 20명
- **기간** 1차 검정고시 대비반 2017년 2월 1일 ~ 4월 11일  
2차 검정고시 대비반 2017년 5월 26일 ~ 8월 16일  
선행학습반 2017년 10월 10일 ~ 12월 29일
- **내용** 초/중/고졸 검정고시 대비반 수업, 중간평가, 최종 모의고사, 회고파티

### 현황

#### • 교육 과목 및 강사 현황

과목별 분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도덕	2과목 이상	계(명)
인원	3	8	5	3	1	1	1	3	
과정별 분포	초졸	중졸	고졸	2과정 이상	기타				
인원	0	2	18	1	4	25			
회차별 분포	1차	2차	선행반	2회 이상					
인원	4	7	1	13					

#### • 교육인원 현황

과정별 분포	초졸	중졸	고졸	개인학습	계(명)	
인원	1	8	39	3		
회차별 분포	1차	2차	선행반	2회 이상		
인원	19	17	4	11		
성별 분포	남	여				51
인원	22	29				
기존/신규	기존	신규				
인원	11	40				

• 2017년 검정고시 응시 결과

과정	응시자	합격자	과목합격	불합격	*미응시
고졸	19	17	2	0	7
중졸	6	5	1	0	0
초졸	1	1	0	0	0
총합	26	23	3	0	7

• 총 인원 51명 中 중도탈락자 18명 제외 결과



• 세부 일정 및 내용

구분	기간	내용
오리엔테이션	1차 2월 1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및 담당자 소개</li> <li>• 점프업 코스 프로그램 안내, 규칙설명</li> </ul>
	2차 5월 26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고시 과정 관련 정보 공유</li> <li>• 신청서 작성 및 시간표 공지</li> <li>• 수준평가 진행</li> </ul>
1, 2차 검정고시 대비반	1차 2월 6일(월)~4월 8일(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수업 진행</li> <li>• 수준별 소그룹(영어, 수학), 강의형(암기과목) 수업 구성</li> </ul>
	2차 5월 29일(월)~8월 9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진학 및 고득점 희망자, 수능준비자를 위한 고득점 반 개설</li> </ul>
검정고시 회고파티	1차 4월 11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고시 응시과정 회고</li> </ul>
	2차 8월 16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이후 미래 계획</li> <li>• 소회 나눔</li> </ul>
야간자율학습	1차 3월 2일(목)~4월 7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고시 대비 야간 자율학습 운영</li> </ul>
	2차 7월 3일(월)~8월 8일(화)	
중간평가	1차 중졸 3월 22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성취 평가 진행</li> <li>• 성적우수자, 생활태도 우수자 시상</li> </ul>
	1차 고졸 3월 23일(목)	
최종모의고사	2차 7월 19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당일 시간관리, 긴장감 극복을 위해 본 시험보다 촉박한 일정으로 최종모의고사 진행</li> </ul>
	1차 4월 7일(금)	
1, 2차 검정고시	2차 8월 8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검정고시 실시</li> <li>• 2차 당일지원 &gt; 송파중학교</li> </ul>
	1차 4월 8일(토)	
선행학습반	2차 8월 9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고시 준비 이전 기초학습반 운영</li> <li>• 영어, 수학 외 과목 인터넷 강의로 자습 진행</li> </ul>
	9월 25일(월)~12월 29일(금)	

## • 검정고시 대비반

### 운영목적

초/중/고졸 검정고시 대비 수업을 통해 학업성취를 높이고 최종학력을 향상한다.

### 프로그램 시간표

\* 1, 2차 검정고시 대비반은 초졸, 중졸 검정고시 응시자가 적어 개별 수업으로 진행하고 고졸 검정고시 대비반 수업 위주로 진행됨

\* 1, 2차 검정고시 응시 한 달 전부터 18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함

### 1차 검정고시 대비반 시간표

구분	월	화	수	목	금	
10:00~12:00	고	사회	과학	수학A	-	한국사
			수학A			
점심시간 12:00~13:30						
13:30~15:30	중	국어	-	과학	수학	-
	고	국어1	수학B	도덕	-	영어C
15:30~17:30	중	사회	-	도덕	수학	-
	고	수학	영어B	영어A	-	수학C
저녁시간 17:30~18:30						
18:30~20:30	고	-	영어A	국어2	-	-

### 2차 검정고시 대비반 시간표

구분	월	화	수	목	금	
10:00~12:00	고	국어	사회	수학A	한국사	한국사
		과학		수학B		
		수학A				
점심시간 12:00~13:30						
13:30~15:30	고	-	-	도덕	수학B	영어
15:30~17:30	고	-	영어A	영어A	-	과학
			국어	영어B		수학C
저녁시간 17:30~18:30						
18:30~20:30	고	-	국어	-	-	-



## 2017년, 우리는 모두 한 단계 Jump-up을 하게 되었다

2017년은 교육팀의 팀원으로 드림센터에 입사하여 처음 맡게 된 위탁형 대안학교 꿈에학교를 떠나 학교밖청 소년을 만나는 점프업 코스로 업무가 바뀌게 된 한 해였다. 또, 점프-업 코스에 참여한 학생들은 검정고시 합격, 취업(?), 대학진학 등 여러 가지로 삶의 면면이 바뀌게 되는 시간이었다.

점프업 코스는 저마다의 이유로 공교육을 벗어난 청소년들이 또 다시 각자의 이유로 학업을 지속해 최종학력을 높이는 단기학습과정이다. 학교를 떠난 이유, 기간,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이유도 모두 다른 청소년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오롯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2017년을 달렸다.

말이야 쉽지 놓았던 연필을 잡고 다시 공부한다는 게 쉽게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굳은 결심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첫 수업을 진행했을 때의 표정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지각의 횟수가 늘어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때, 지각의 횟수가 쌓여 면담하고 교실청소도 하고, 결국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 중도에 탈락하는 인원이 발생했을 때, 또 각자의 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했을 때.. 담당자로서 청소년에게 더욱 동기가 되지 못함을 아쉬워했던 일을 기억한다. 점프업 코스의 참가자 51명 중 18명의 친구가 그렇게 중도 탈락을 하게 되었다.

아쉬운 이야기를 뒤로 하고 우리에게도 기쁜 순간이 있었다. 처음 드림센터에 와서 어색함도 잠시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생기고, 어려운 일에 먼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고, 학업뿐만 아니라 센터의 바리스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 알게 되고, 좋은 성적을 거둬 자신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일도 있었다. 그 결과, 남은 33명의 청소년 중(미응시 7명 제외) 26명의 청소년이 1, 2차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23명이 합격하고, 3명의 청소년이 과목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2017년의 점프업 코스는 조금 달랐다. 기존 점프업 코스는 교육팀에서 운영하는 도시형 대안학교 이룸학교의 담당자가 맡아 진행했다면, 올해는 한명의 담당이 오롯이 점프업 코스를 맡게 된 것이다. 담당인력이 확보되고 학생들을 긴 시선으로 만나니 교실에만 있던 청소년들이 사무실에 들어와 함께 이야기하고 사무실의 다른 선생님들과도 관계맺음이 원활하게 되었다.

또, 점프업 코스는 검정고시 대비반 수업 진행 후 검정고시를 응시하고 회고파티를 진행하면 점프업 코스의 과정이 마무리 되는데 이번 1차 검정고시 이후에는 회고파티와 더불어 드림센터에서 진행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검정고시에 응시한 청소년 10명이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2박 3일의 기간 동안 검정고시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1년의 과정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점프업 코스 청소년을 만나며 오만가지의 감정을 느꼈다. 물론, 나와 함께한 그 많은 청소년들도 이런 감정을 함께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 누군가의 엄마가 된 것처럼 아침마다 학생을 깨우고, 잔소리꾼으로 변하고, 친구가 된 것처럼 함께 자율학습 하며 치킨도 먹고 때로는 든든한 언니, 누나, 조력자의 역할까지. 이제 다가올 2018년도 점프업 코스를 운영하기에 앞서 조금 더 치밀하게 엄마, 친구, 언니, 누나, 선생님의 역할을 준비해야겠다.

'애들아! 아자하고 가~,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다!'

# 4

## 기초생활캠프

김현수

기초생활(시간 및 식생활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도시형 대안학교 학생들의 생활습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드림센터 교육팀에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캠프의 전반적인 일정(기상·취침·식사시간, 식단,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기초생활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삶'을 통해 또래와의 다양한 경험 및 학습을 하며 자립과 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래와의 유대감 형성을 도모하는 캠프입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기초생활캠프
- **목적** 도시형 대안학교 학생들이 함께 생활해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기초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확인하며, 짜임새 있는 일정을 통해 자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대상** 학교밖청소년
- **내용** 도시를 벗어나 자연 안에서 자급자족 및 다양한 활동을 하며 기초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습관을 형성하는 캠프
- **교육인원**

구분	1차			2차		
	남	여	지도자	남	여	지도자
인원	5	7	4	5	10	4
계	16			19		

### 일정

구분	기간	장소
1차	2017년 3월 23일 ~ 2017년 3월 31일, 9일간	강화도, 석모도
2차	2017년 9월 18일 ~ 2017년 9월 22일, 5일간	경주/통영, 안동

### 내용

#### 1차 기초생활캠프

##### 목표

- 공동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청소년들이 직접 정해 지킬 수 있다.
- 의식주 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한다.
- 청소년들이 직접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강화도 지역의 자연환경, 역사, 특산물 등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
- 생활 속에서 자립에 필요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내용**

도시형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8박9일간 함께 지내며 살림을 살아봄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기초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하며 자신에게 부족했던 기초생활 습관 형성에 집중한다. 또한 나와 타인에 대한 관심을 넘어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사회로 시야를 넓혀 강화도 지역 자유여행 및 역사 기행의 시간을 갖는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팀의 대표와 팀원을 구성하고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도록 하며, 캠프 준비 단계와 진행 단계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취의 경험을 갖도록 한다.

**여행 일정표**

- 3월 23일(목) ~ 3월 26일(일), 강화도 도래미 마을

시간 \ 일시	3월 23일(목)	3월 24일(금)	3월 25일(토)	3월 26일(일)
	우리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맺기			
8시~10시	기상 및 아침식사(각자)			
10시~12시	집합 및 이동 (센터→강화도)	강화 역사이야기 "외세의 침입을 막아낸 강화도" (부녀회장 해설사님)	강화풍물시장 "구경하기와 물건사기"	인절미/쑥개떡, 두부만들기 (도래미마을 어르신)
12시~14시	점심식사(도)	점심식사(외)	점심식사(외)	점심식사(외) 및 이동 (강화도→석모도)
14시~18시	(생활관리렛츠 컨퍼런스 1) "나는 분리수거 전문가다!"	강화역사이야기 -광성보, 초지진, 덕진진, 전등사, 갯곶돈대	강화풍물시장 "물건사기와 규모 있는 썸씀이"	숲속의집 입실(14시) 및 석모도 내 휴식
	마을탐방 (강화도 나들길따라서)			
18시~20시	저녁식사(도)	저녁식사(도)	저녁식사(도)	저녁식사(외)
20시~22시	자유시간	(생활관리렛츠 컨퍼런스 2) "나는 돈 관리/ 탕진 전문가다!"	강화도 내 활동 (볼타오르는 밤)	자유시간
22시~	취침시간(03시 전체소등)			

- 3월 27일(월) ~ 3월 31일(금), 석모도 자연휴양림(숲속의 집)

시간 \ 일시	3월 27일(월)	3월 28일(화)	3월 29일(수)	3월 30일(목)	3월 31일(금)
	우리들만의 시간 속에 생활 관리				
8시~10시	기상 및 아침식사(각자) * 화요일은 아침식사 권장				
10시~12시	마을탐방 (수목원 따라서)	친해지길 바라 2 (미니운동회!)	혼자만의 시간 (휴식과 명상)	“냉장고를 부탁해” (소박한 한끼 창의요리페스티벌)	퇴실(11시) 및 이동 (석모도→집)  점심식사(외)
12시~14시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14시~18시	(생활관리렛츠 컨퍼런스3) “나는 정리 전문가다!”	친해지길 바라 3 (찍지와의 시간)	친해지길 바라 4 (보문사와 바다)	친해지길 바라 5 석모도 이리저리 놀이	
	친해지길 바라 1 (끝내주는 온천)				
18시~20시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바비큐) 돼지와 함께 춤을!	
20시~22시	자유시간 / 공동체놀이		영화관람	불타오르는 밤	
22시~	취침시간 (03시 전체소등)				

## • 2차 기초생활캠프

### 목표

-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을 통해 낮 시간에 활동하는 습관을 형성한다.
- 즐거운 여행을 경험하며 또래, 학교, 2학기 생활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갖는다.
- 여행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자립심과 자신감을 기른다.

### 내용

본격적인 학기 시작에 앞서 4박 5일간의 여행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방학동안 무너진 생활습관을 다시 고쳐보고, 충분한 재미를 누리며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캠프 초반 2박 3일간은 팀별 테마여행을, 후반에는 혼자만의 시간 및 공동체 활동을 실제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도록 하며,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책임감과 자립심을 기르도록 한다.

### 여행 일정표

- 9월 18일(월) ~ 9월 20일(수), 통영과 경주

통영

## "채우고! 비우고!"

- ☺ 에너지, 음식, 즐거움, 체력, 기대, 근육을 채운다!
- ☺ 마음, 살, 스트레스를 비운다!

팀원 김현수, 이민지, 김준안, 오예원, 이소정, 이요한, 이준혁, 조희선(총8명)

	9월 18일(월)	9월 19일(화)	9월 20일(수)
08:00~10:00	고속버스터미널 →통영터미널	채우기 숙소 조식 및 외출준비	채우기 숙소 조식 및 퇴실
10:00~12:00	(7:20집합, 7:50~12:00 이동)		
12:00~13:00	채우기 총무김밥	채우기 해물떡배기	채우기 터미널근처
13:00~18:30	비우기 서피랑마을/ 루지/이순신공원	비우기 공설해수욕장 스노클링&물놀이 / 공설운동장 공놀이	서부정류장→안동터미널 (12:40~13:50 이동)
18:30~19:30	채우기 명게비빔밥	채우기 중앙활어시장 회	
19:30~20:00	기분나눔		
20:00~	자유시간 & 취침		

경주

## "힐링캠프 여유롭지 아니한가"

- ☺ 재충전을 하고 2학기를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 조금 느슨하고 힘을 뺀 여행
- ☺ 제 시간에 기상하고 밥을 먹는 반복적인 일상을 통해 기초생활패턴 다지기를 연습

팀원 유선숙, 박경아, 김시은, 이기혁, 이하나, 전재건, 최보현, 한다현, 허유빈(총9명)

	9월 18일(월)	9월 19일(화)	9월 20일(수)
09:00~10:00	고속버스터미널 →경주터미널	아침식사(숙소 조식) 및 외출준비	
10:00~13:00	(8:30집합, 9:10~12:55 이동)		
13:00~14:00	휴식 / 점심식사(쫄면) / 추억의 달동네	점심식사(중식)	경주역→안동역 (11:06~12:58 이동) / 점심식사
14:00~18:00		한복입고 산책 첨성대/황리단길/카페	
18:00~19:00	저녁식사(야시장)	저녁식사(쌈밥)	
19:00~21:00	야시장	안압지	
21:00~	자유시간 및 취침		

- 9월 20일(수) ~ 9월 22일(금), 안동

안동		팀원 김현수, 유선숙, 임호순, 김시은, 김준안, 박석원, 오예원, 이기혁, 이소정, 이요한, 이준혁, 이하나, 전재건, 조희선, 최보현, 한다현, 허유빈(총17명)	
	9월 20일(수)	9월 21일(목)	9월 22일(금)
09:00~10:00	팀별여행지에서 안동으로 모이기!  안동시내여행 / 장보기	아침식사 및 외출준비	아침식사 및 퇴실
10:00~13:00		혼자만의 시간 (휴식&나 생각하기)	하회마을→안동역 / 점심식사 / 안동역→청량리역 (13:25~16:42 이동)
13:00~14:00		점심식사(간고등어정식)	또는 안동터미널→고속터미널 (13:40~16:20 이동)
14:00~18:00		혼자만의 시간	집으로!
18:00~19:00	저녁식사(안동찜닭)	저녁식사(바비큐파티)	
19:00~21:00	팀별여행 이야기 / 혼자만의 시간 계획	여행마무리	
1:00~	자유시간 & 취침		



## 여기서 행복하기, 여행

이룸학교 재학생 최보현

여행의 여러 가지 정의 중 나는 여행이란 '여기서 행복하기'라는 말을 가장 좋아한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가는 여행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 가시방석일 것이다. 2학기를 맞아 4박5일로 간 기초생활 캠프는 통영+안동 코스와 경주+안동 코스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었다. 나는 좀 더 여유롭고 느긋한 가을 여행을 하고 싶어서 경주를 택했다. 수학여행지로 단골이지만 우리는 불국사도 첨성대도 가지 않기로 했다. 누군가는 경주까지 가서 그것도 안 보고 오나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우리가 기획해서 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고 싶은 곳만 갈 수 있었기에 억지도, 강요도, 후회도 없었다. 평소에 재미없는 여행지로만 남아있던 경주에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일정들은 물론 숙소까지도 모든 것이 비교적 느긋하고 행복했다. 순식간에 경주에서 이틀 밤을 자고 우린 깊은 산 속 안동 하회마을을 향해 떠나야 했다.

안동 시내에서도 마을버스를 타고 1시간정도 가야하는 안동 하회마을은 시내 쪽 보다 훨씬 더 춥고 선선했으며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가을을 정의한다면 그 곳의 날씨와 풍경이 딱 정석일 만큼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해가 기울 때쯤 도착해 하늘은 노을이 저 있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모스가 만개하여 가을바람을 타고 있었다. 사실 그 때부터 이미 나는 안동이 좋아졌는지도 모르겠다. 한옥 집에 들어가 짐을 풀고 우린 저녁으로 안동 찜닭을 먹으러 식당이 있는 마을까지 셔틀버스를

---

타고 갔다. 국물에 빠진 닭을 많이 안 먹는데 안동에서 먹은 안동찜닭은 정말 맛있었다. 마지막 국물까지 밥에 비벼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니 셔들은 막차가 끊겨 있었고 숙소까지 걸어가야 하는 길은 가로등 하나 없이 깜깜했다.

꽤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실에 나는 속으로 불만이 생기고 기운이 쪽 빠져 다른 애들도 그러겠거니 하고 보니 다들 신나보였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식당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제 서야 내가 원래 밤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니 내가 좋아하는 밤공기도 쿡속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매우 가벼운 발걸음과 마음으로 그 캄캄한 길을 저벅저벅 걸었다.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도 틀고 친구들이랑 팔짱을 끼고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가로등도 없어서 하늘엔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길을 가다 멈춰 서서 조용히 고개를 꺾어 별자리를 찾아보기도 하고 계속 감탄을 하는 애들도 있었다.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랑은 또 다른 모습에 정말 귀여웠다. 특히 반딧불이를 발견하고 더 잘 볼 거라며 유일한 불빛이었던 휴대폰 플래시마저 끄고 가는 모습들이 다들 행복해보여서 아직까지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나는 그 날 밤 이후로 완전히 안동을 좋아하게 됐다. 더 이상 따분하고 지루한 마을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 날 SNS에다가 글도 올렸었는데 지금 다시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그 때의 내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무슨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캄캄한 길을 걸었지만 분명 모두 웃고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조금 열악한 환경이었고 인터넷도 안 댔고 근처에 슈퍼 하나 없었지만 그런 조건 속에서도 분명 좋은 추억은 생겼고 서로에게 더 집중 할 수 있었다. 인터넷이 안 댔기에 평소에 안하던 보드게임도 하고 밤 새 수도도 떨고 바비큐 파티도 느긋하게 해 먹고 달밤에 방에서 춤도 추면서 캠프가 줄 수 있는 장점을 다 누렸다. 원래 여행이란 것이 제일 친한 친구랑 가도 싸우고 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덜 친했기에 서로 더 조심하고 더 안 싸울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캠프 가는 당일 날도 이런 저런 걱정들이 참 많았는데 막상 도착해서 뚜껑을 열어보니 모두 사라지고 좋은 추억들만 갖고 돌아온 것이 너무 신기하다. 뭐 하나 뻘한 일이 없었다. 언제나 예상을 뛰어 넘었고 물음표와 느낌표가 수 없이 반복되어지는 여행이었다. 그리고 나의 첫 기초생활캠프에 마침표가 찍혔을 땐 정말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했다.

---

## 기초생활캠프의 기억

이룸학교 졸업생 허유빈

이룸학교에서는 매년 학기가 시작하는 적응기간에 기초생활 캠프를 간다. 방학동안 흐트러진 생활 패턴을 바로잡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서로 익숙해지고 친해지기 위해서이다.

이번 기초생활캠프는 전과는 달리 좀 특이했는데 처음에 두 곳으로 나뉘서 간 후 같은 곳으로 가는 점 그리고 초점을 휴식에 맞춘 점이다. 장소는 경주-안동, 통영-안동 이렇게 두 종류였고 나는 경주를 선택했었다.

경주를 선택한 이유는 먼저 경주에서 안동으로 가는 것이 통영에서 안동으로 가는 것 보다 더 편하기 때문이었다. 통영도 좋지만 이동하다 피곤해지면 짜증만 날 것 같았다. 두 번째 이유는 경주의 숙소가 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경주 숙소는 게스트하우스였는데 침대에 블라인드가 달려서 블라인드를 친다면 각자의 개인공간이 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물론 통영 일정도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지만 결정적으로 이동의 편리함과 숙소의 장점 때문에 경주를 선택했었다.

추억의 달동네에서 옛날 교복을 입어보는 체험을 했는데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지는 못해서 아쉬웠다. 그리고 나오면서 마침 근처에 가보고 싶었던 카페가 있어서 상의 하에 다 같이 카페에 가서 빙수를 시켜 먹었다. 사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먹게 되어서 기분이 참 좋았다. 야시장에서는 저녁을 사먹었다. 나는 닭 날개에 밥을 넣은 음식을 골랐는데 내가 매운 맛을 잘 못 먹어서 그런지 매운 맛은 먹기가 좀 힘들었지만 데리야끼맛은 참 맛있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먹고 싶다. 자전거를 타고 첨성대와 최부자집에도 가 보았었다. 그리고 언덕을 반쯤 올라가다가 바람이 불어 도토리가 우수수 떨어져 머리와 허리에 도토리를 맞아서 좀 어이가 없었다. 경주에서 기차를 타고 안동으로 가서 통영 팀과 만나 버스를 타고 안동 하회마을로 갔다. 가다가 중간에 졸았지만 노을과 풍경이 잘 어울려 정말로 예뻐었다. 사진을 찍었지만 직접 본 것처럼 예쁘게 나오지 않아 매우 아쉬웠다.

안동은 별이 정말로 많았고 반딧불이도 있었다. 반딧불을 보고 공기가 깨끗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인지 별이 도시보다 많은 것은 물론이고 웬만한 시골보다도 훨씬 많았다. 안동에서의 마지막 밤에 밤 산책을 가다가 중간에 잠깐 길에 드러누워 봤었는데 많은 별들 덕분에 정말 그림 같은 밤하늘을 볼 수 있었다. 만약 돛자리가 없다고 안 누웠더라면 정말로 후회할 뻔 했다. 그리고 밤 산책의 목적지였던 커다란 옛날 그네에서 그네를 탈 때에도 밤하늘이 예뻐 더더욱 밤 산책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다.

안동 숙소는 한옥이었다. 다 좋았지만 벌레가 많은 점은 별로였다. 그리고 전통 방식대로 나무로 불을 때는 방식이었는데 불이 너무 강해서인지 방이 따뜻하다 못해 더웠다. 그래서 바깥은 춥지만 방이 덥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껴져 문을 꽤나 열었다 닫았다 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갈 때마다 식당이 멀어

서 버스를 기다렸다 타고 가야 했는데 그게 좀 불편하고 길이 험갈려서 힘들었다.

마지막 날 저녁에는 고기를 구워 먹고 꺼져가는 불에 마시멜로를 구워 먹어봤다. 원래는 1학기 기초생활캠프에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구워먹었다고 했지만 그때 하필이면 감기에 심하게 걸려 참여하지 못했다. 그때 마시멜로를 구워보지 못해서 무척이나 아쉬웠었는데 이번 기초생활캠프에서 입이 달아서 못 먹게 되고도 먹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들 것 까지 구워주면서 마시멜로를 원없이 구워 보아서 무척이나 재미있었다.

이번 기초생활캠프는 초점을 휴식에 맞춰서 그런지 전에 했던 캠프들보다 무척 편하고 재미있었고 일정을 나누어서 가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다음 기초생활캠프도 이런 식이었으면 좋겠다.



## 기초생활캠프를 진행하며

기초생활캠프는 작년 11월 말 드림센터에 발을 들이고 처음으로 제가 맡아 진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드림센터에 오기 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약 2년 간 활동을 했었는데, 이때에는 총괄 선생님이 캠프 별로 일정과 장소, 이동 방법을 다 짜놓은 상태에서 모뎀 지도자로서만 활동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초생활캠프는 제가 처음 계획부터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진행해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인턴도 아닌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초 단계로 돌아가 생각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이 어렵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렇게 준비한 만큼 더 탄탄히 구성된 캠프, 주제와 의미가 있는 캠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캠프를 진행하면서 크게 느꼈던 것이 있다면 역시 '준비된 상태에서의 융통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룸학교 특성상 학생들이 직접 회의를 거쳐 일정과 그 안의 내용을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다양한 경우를 예측하고 준비를 해 둔 상태에서 실제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니 더더욱 완성도 있고 만족스러운 캠프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전 기관에서 캠프를 하면서 알게 된 수많은 놀이들, 그리고 비구조화 된 시간에도 아이들과 계속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저의 강철 체력도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자유 시간에 무얼 할지 몰라 멍 때리는 친구들에게 몇 가지 놀이를 알려주어 같이 하고 있다 보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 둘 모여서 다 함께 즐기기도 했습니다. 간혹 몇몇 친구들이 '선생님은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놀이를 많이 알아요?' 라고 물을 때마다 어찌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워낙 덩벙대고 서툰 것이 많아 이것저것 걱정되는 부분이 한 둘이 아니었는데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과 모뎀 친구들을 항상 살피고 챙기는 리더들, 그리고 캠프를 함께 즐기며 만들어가는 이룸학교 친구들이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큰 역할을 해주어 캠프가 참 따뜻하게, 재미있게, 안전하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동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면 각자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조곤조곤 이야기 하여 서로

타협을 이뤄내고, '경쟁'보다 '함께 즐기기'에 집중하는 미니 운동회를 준비하여 모두가 즐기는 시간을 만들어 내고, 조금씩 자기 생각을 소리 내어 전달하고, 감정에 솔직해져서 원하는 것을 위해 당돌하게 도전할 줄도 알게 된 우리 이룸학교 친구들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아이들한테서도 이런 사소하지만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신입 길잡이교사인 저에게도 분명히 변화와 성장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초생활캠프도 잘 해냈고,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 잘 해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더 즐겁고 더 알찬 캠프의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 제언

### 1. 새로운 기초생활캠프 기획

- 기존의 기초생활캠프는 처음 이룸학교가 생기고 기초생활캠프를 시작할 때에 있던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를 떠나고 다른 성향, 다른 모습의 친구들이 이룸학교를 채워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기초생활 요소가 무엇인지, 어떤 캠프가 적절할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겠다. 이에 맞춰 9박10일 (혹은 4박5일)의 기간, 캠프 장소, 이동 방법, 진행 내용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 1학기 기초생활캠프에서는 학생들이 '이룸학교란 이런 곳이다.'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2학기 기초생활캠프에서는 이미 알고 지낸 친구들과 그동안의 이룸학교에서 경험해왔던 '퍼실리테이션'을 활용, 한껏 끌어올려진 자발성을 적극 활용하여 직접 캠프를 기획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 2. 실생활과 연결되는 캠프

- 캠프 전반적으로 건강한 의식주 생활 습관 형성과 더불어 1학기에는 분리수거/정리정돈/돈 관리를, 2학기에는 대중교통 이용/시간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았다. 큰 문제없이 이에 맞는 프로그램에 임했지만 실제로 학기가 시작된 일상에서도 그 생활습관이 유지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다. 캠프 내에서 이야기하고 연습해서 익힌 습관들을 캠프에서 돌아와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 또한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재미를 느끼는 것도 좋지만, 그 즐거움과 성취의 경험을 나름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정리하는 과정을 추가한다면 더욱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캠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5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황현영

매년 학교밖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자격취득'에 도전하고, 1)8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인다. 하지만 검정고시로 취득한 학력 자격증만 가지고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에 어려운 점이 많아 자격증 교육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교육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7년 드림센터 교육팀에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밖청소년들에게 학력 자격취득 이외의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유의미한 가치, 정보를 나누고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멘토와 청소년이 직접 기획한 여행을 공모하여 더욱 다양하고 신선한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학교밖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

1) ©서울시교육청

### 사업개요

- **사업명**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목적** 검정고시 자격취득에 도전하는 학교밖청소년들에게 멘토와의 여행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며 나를 발견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 **대상** 서울시학교밖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 배움터 등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과 멘토
- **정원** 40명(1차 20명, 2차 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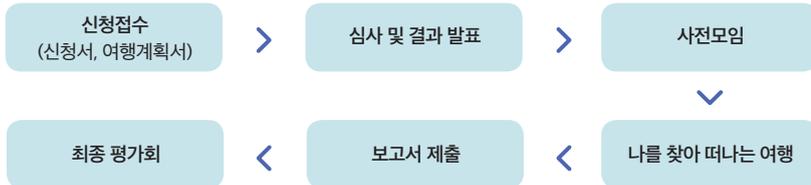
### 현황

#### • 교육인원

차수	참가기관	인원
1차	중앙청소년수련관 꿈지락학교	청소년 2인/성인 1인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도시속작은학교	청소년 4인/성인 2인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청소년 2인/성인 1인
	중구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2인/성인 1인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3인/성인 3인
	합계	청소년 13인/성인 8인
2차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사랑의학교	청소년 3인/성인 1인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힘, 꿈이룸학교	청소년 2인/성인 1인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4인/성인 2인
	금천청소년수련관 대안학교 원두	청소년 7인/성인 2인
	합계	청소년 16인/성인 6인
특별여행 : 점프업 코스	점프업 코스	청소년 10인
	합계	청소년 10인
계	실 인원 84명(청소년 70명, 성인 14명) 연 인원 299명(청소년 215명, 성인 84명)	
비고	근거 : 1, 2차 (사전모임 1회, 여행 3일, 최종평가회 1일 / 총 5일) 점프업 코스(사전모임 3회, 여행 3일, 최종평가회 1일 / 총 7일)	



• 1, 2차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1) 참가자 모집

참가자 모집

1차 - 2017년 4월 17일(월) ~ 4월 21일(금), 총 5일간

2차 - 2017년 7월 17일(월) ~ 7월 21일(금)

추가모집 2017년 7월 22일(토) ~ 7월 27일(목), 총 11일간

모집분야 및 신청현황

1차 - 총 9개 팀, 43명 지원(중복제외)

2차 - 총 4개 팀, 22명 지원

구분	모집내용	신청현황	
		소속기관	신청인원
자유여행	- 멘토와 멘티 3인 이상팀 구성 - 자유여행지에서 여행 및 숙박	1차	
		꿈지락학교	5
		광진구 꿈드림1	4
		도시속작은학교	7
		광진구 꿈드림2	4
		*이룸학교(중복지원)	4
		중구청소년지원센터1	3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
		중구청소년지원센터2	8
		2차	
		사랑의학교	4
		꿈이룸학교	3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
대안학교 원두	9		
공통여행	- 멘토와 멘티 2인 팀 구성 - 제주도에서 여행 및 숙박	1차	
		*이룸학교(중복지원)	4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2

## 2) 심사 및 결과발표

### 여행지원팀 선발심사 진행

1차 - 2017년 4월 21일(금)

2차 - 2017년 7월 27일(목)

### 심사 방법

- 심사위원 점수 합산 평균과 회의를 통한 팀 선발
- 심사위원단 : 센터장 이창범, 부장 임호순, 교육팀장 박경아, 교육팀원 김현태, 황현영

### 최종 선발 팀 결과발표

1차 - 2017년 4월 25일(월) / 꿈지락학교, 도시속작은학교, 광진구 꿈드림, 중구청소년지원센터1,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총 5개 팀 선발

2차 - 2017년 7월 27일(목) / 사랑의학교, 꿈이룸학교,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학교 원두, 총 4개 팀 선발

## 3) 여행지원금 교부

1차 - 2017년 4월 27일(목) ~ 4월 28일(금) / 총 지원예산 : 금7,000,000원(금칠백만원정)

2차 - 2017년 8월 1일(화) / 총 지원예산 : 금6,450,000원(금육백사십오만원정)

## 4) 사전모임

1차 - 2017년 5월 10일(수) / 아이디어디렉터 안다비 '나를 이끄는 리더십, 호기심' 강의 진행, 팀별 여행계획 공유

2차 - 2017년 8월 4일(금) / 정대웅 '관광하지 말고 여행하자' 강의 진행, 팀별 여행계획 공유

## 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팀별 여행지에서 여행 진행

1차 - 2017년 5월 15일(월) ~ 2017년 5월 17일(수) / 여행지 : 안동, 부산, 전주, 군산, 경주 등

2차 - 2017년 8월 21일(월) ~ 2017년 8월 23일(수) / 여행지 : 광주-목포-해남, 희리산자연휴양림, 대천, 통영, 부산 등

## 6)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팀별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1차 - 2017년 5월 18일(목) ~ 5월 26일(금)

2차 - 2017년 8월 21일(월) ~ 8월 23일(수)

**정산내역**

**1차**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잔액
중랑청소년수련관 꿈지락학교	1,400,000	1,027,290	372,710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도시속작은학교	1,840,000	1,840,000	0
광진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80,000	960,000	220,000
중구청소년지원센터	960,000	960,000	0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20,000	1,620,000	0
합계	7,000,000	6,407,290	592,710

**2차**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수입	잔액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사랑의학교	1,260,000	1,254,010	*2,856	8,846
사회복지법인 사랑의힘, 꿈이룸학교	1,025,000	874,910	0	150,090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30,000	1,730,000	0	0
금천청소년수련관 대안학교 원두	2,435,000	2,273,000	0	162,000
합계	6,450,000	6,131,920	0	320,936

\*수입 2,856원 : 체크카드 할인으로 인한 캐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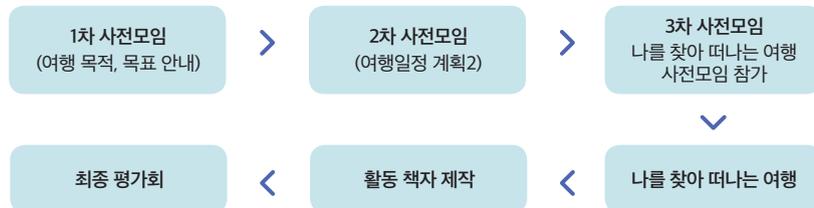
**7) 최종평가회**

**팀별 여행 진행사항 공유 및 발표**

1차 - 2017년 5월 26일(금)

2차 - 2017년 9월 1일(금)

**• 특별여행 : 점프업 코스**



1) 1차 사전모임 : 2017년 8월 3일(목)

**여행 주제 선정**

- 각자 떠났던 '기억에 남는 여행' 공유, 서로의 여행의 공통점 찾기
-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한 의견 나눔
- '네가 날 찾아봐' 서로에 대한 관찰일지 작성으로 타인이 보는 나와 내가 아는 나를 비교하기

#### 활동지 제작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야, 나 자기소개지, 관찰일지 제작

2) 2차 사전모임 : 2017년 8월 4일(금)

#### 사전모임(진로특강 및 팀별 여행계획 공유)

- 정대웅 '관광하지 말고 여행하자' 강의 진행
- 팀별 여행계획 공유

3) 3차 사전모임 : 2017년 8월 16일(수)

#### 답사 내용 공유

- 게스트하우스 방 구성, 교통 편 안내, 주변 볼거리 등 안내

#### 여행 일정 구성

- 회의를 통해 세부 일정 구성
- 국제시장, 비프거리, 강통시장, 광안리, 광안대교, 부산타워 등

4)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2017년 8월 21일(월) ~ 2017년 8월 23일(수)

5) 정산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잔액
점프업 코스	2,628,000	2,597,900	30,100
합계	2,628,000	2,597,900	30,100

6) 최종평가회

- 팀별 여행 진행사항 공유 및 발표 : 2017년 9월 1일(금)



## 여행이 주는 설렘

여행은 언제나 사람을 설레게 한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이 주는 느낌은 때론 사람을 긴장하게도 하고, 왠지 모르는 떨림을 갖게 한다. 또, 새로운 곳에서는 익숙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발견도 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드림센터 교육팀에서는 여행이 주는 설렘을, 발견을, 떨림을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검정고시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는 공부뿐만 아닌

---

삶의 영역에서의 배움을 주기 위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기획하였다.

교육팀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기획 단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작업까지 많은 시행 착오(모든 사업이 그렇지만)를 겪으며 한 순간, 한 순간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혹여 더 나은 방법이 있진 않을까 하는 고민을 수 없이 했던 기억이 난다.

사업의 기획을 거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실시된다고 서울에 있는 학교 밖 배움터 등에 홍보한 뒤, 많은 기관에서 관심과 문의를 보내주셨다. 접수된 여행 신청서를 보고 심사할 때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학교밖청소년'에게 씌워진 프레임이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행 신청을 한 청소년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는 중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신청서는 '아름다움은 어느 곳에나 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그리고 나에게도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큰 제목을 앞세워 '나'에게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 여행을 통해 찾아가는 팀이었는데 첫 모임 때, 나 닮은 것 찾기 활동에서 학생들이 나는 무엇을 닮았는지 칸을 채워 넣지 못했다고 했다. 또 억지로라도 적어낸 닮은꼴이 '먹다 남은 과자봉지'라고 했다. 이것마저 채우지 못해 끝끝내 칸을 채워내지 못한 청소년도 있다고 했다. 여행은 '나'에 대해 부정적인 친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오감을 활용하여 나와 내 주위의 지나쳤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각자가 가진 아름다움과 함께하는 이들이 가진 아름다움을 찾아 냈다고 한다.

참여한 모든 멘토와 멘티가 여행의 기회를 제공해 준 드림센터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현대 나는 이런 기회를 소홀이 생각하지 않고 잡아준 그들에게 더욱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기회는 대머리다.'라는 말이 있다. 그리스의 시라쿠사 거리에 가면 우스꽝스러운 동상이 있다. 그 동상의 앞머리는 술이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벗겨졌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이 동상 아래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이며, 뒷머리가 벗겨진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이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언젠가 우연치 않게 찾아 온 기회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아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정으로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전한다. 또, 앞으로 진행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많은 청소년들이 놓치고 나서 다시 잡을 수 없는 아쉬움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기회가 다가왔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그것을 쟁취하길 바란다.

# 6

## 드림발표회

“Always have a dream”

김현태

드림발표회? 꿈의 발표회라고 읽힐 수도 있고 분명 어디선가 동일한 이름으로 진행되는 발표회가 있을 만 한 거창한 이름이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드림발표회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대안학교 구성원들이 각자의 성장과 변화를 공유하기 위해 준비, 진행하는 연말 학습발표회를 뜻합니다. 2014년에 첫 번째 발표회가 진행된 이후로 벌써 4회째를 맞은 드림발표회는 매 년 학교 구성원들간의 길고 고된 준비과정을 통해 발표회의 주제와 내용을 구성해왔습니다. 2017년의 드림발표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를 드러냈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드림발표회(Always have a dream)
- **목적**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내 도시형 대안학교 이룸학교와 위탁형 대안학교 꿈에학교 구성원들의 한 해를 정리하고 1년간의 성장과 변화를 드러낸다.
- **대상** 도시형 대안학교 이룸학교와 위탁형 대안학교 꿈에학교의 구성원
- **운영기간 및 참가인원**

구분	진행 기간	진행 횟수	진행 내용	참가 인원
준비 기간	11월 8일 ~ 12월 8일	12회 + ∞ (기록이 남은 모임 기준 12회)	학교별 모임, 기획단 모임, 전체 회의 리허설 등	242
행사 당일	12월 9일	1회	학습발표회, 졸업식, 경품추첨식	130
평가 회의	12월 19일 ~ 12월 20일	2회	학생 평가회의, 교사 평가회의	30
<b>총 인원</b>				402

### • 내 용

1. 발표회 기획 회의 및 준비 (학교별 모임 / 기획단 모임 / 전체 회의 / 리허설)
2. 연말 학습 발표회, 졸업식, 경품추첨식 진행
3. 평가회 진행



## • 발표회 진행 일정 및 내용

구분	일정	진행 내용
전체 기획회의	1차 11월 10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발표회 영상 시청을 통한 머릿속 밑그림 그리기</li> <li>• 드림발표회 개요 소개 / 장소 및 일정 공유</li> <li>• 발표회 주제 및 제목선정 브레인스토밍</li> <li>• 발표회 주제 선정</li> <li>• 주제에 어울리는 발표회 제목 선정 (1차 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 다섯개 안으로 센터 전체 구성원 대상으로 2차 투표 진행</li> </ul> </li> <li>• 졸업식 진행 관련 논의</li> </ul>
	2차 12월 1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회 제목 선정 공지 및 포스터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LWAYS HAVE A DREAM' 선정</li> </ul> </li> <li>• 공연 리스트 및 내용 소개</li> <li>• 각 팀별 공연 필요 / 지원 사항 취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별 공연 구성원 / 소요시간 / 준비 및 지원사항 / 준비도 공유</li> </ul> </li> <li>• 공지사항 및 추후 일정 전달</li> </ul>
학교, 팀별 모임	상시 11월~12월 중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단 및 학교별 MC 선발</li> <li>• 공연, 발표 구성 및 준비</li> <li>• 전시물품 파악 및 준비</li> <li>• 사전 준비사항 체크</li> <li>• 경품퀴즈쇼 구성 및 준비</li> </ul>
기획단 모임	1차 11월 29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단 활동 범위 논의</li> <li>• 준비작업 담당업무 나누기</li> <li>• 경품 및 기념품 관련 논의</li> </ul>
	2차 12월 1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및 센터 건물 내 홍보포스터 부착</li> <li>• 홍보자료 제작</li> </ul>
	3차 12월 7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내 선생님들 대상 축하영상 촬영 및 초대장 돌리기</li> <li>• 증정품 및 경품 준비</li> </ul>
교사회의	1차 11월 8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회 진행 계획 관련 논의</li> <li>• 담당 업무 분장</li> <li>• 구성원 참여 방법 및 정도에 대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별 기획단을 선발하여 운영하기로 결정</li> </ul> </li> </ul>
	2차 11월 13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업무 진행사항 체크</li> </ul>
	3차 11월 20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업무 진행사항 체크, 학교별 준비 현황 공유</li> </ul>
	4차 12월 6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허설 피드백 및 변경사항 협의</li> <li>• 발표회 당일 업무분장</li> </ul>
	5차 12월 8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점검</li> </ul>
리허설	1차 12월 6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임테이블에 따라 공연 축약하여 센터 내에서 진행</li> <li>• 공연장 내 동선 및 공연 순서 숙지</li> <li>• 입, 퇴장 연습</li> <li>• 미흡사항(공연 별 완성도 및 입, 퇴장 퍼포먼스 등) 피드백</li> </ul>
	2차 12월 8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내 리허설로 풀 공연 진행</li> <li>• 1차 리허설 시 미흡했던 사항 및 실제 진행 시간 체크</li> <li>• 미흡사항 피드백 및 추가 연습 진행</li> </ul>
	최종 12월 9일(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당일 오전 공연장 무대에서 진행</li> <li>• 무대조명 및 음향팀과 세부사항 조율하며 리허설 진행</li> <li>• 최종 동선 및 공연별 진행사항 체크</li> <li>• 미흡사항 추가 연습 진행</li> </ul>
발표회 진행	12월 9일(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전 집결 및 사전 세팅, 리허설 진행</li> <li>• 준비사항에 맞춰 1부 발표회 / 2부 졸업식 / 3부 경품퀴즈쇼 진행</li> </ul>
평가회의	1차 12월 19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단 평가 회의 진행</li> </ul>
	2차 12월 20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평가 회의 진행</li> </ul>

## • 발표회 당일 공연 일정표

구분	시간	진행 내용
전시회 오픈	13:30~	• 전시물 자유 관람
슬라이드쇼 상영	13:30~14:00	• 교육팀 연간 활동 사진 슬라이드쇼 공연장 내 상영
입장 안내 및 정내 정리	14:00~14:10	• 입장 안내 방송 실시 • 내빈 좌석 안내
발표회 오프닝	14:10~14:20	• 사회자 인사 • 센터장 인사말 • 내빈 소개
1부 - 발표회 : Always have a dream	14:20~15:10	• 졸업생 및 관계자 축하 영상 4"
		• 이름 수업발표(공동체활동) - 카드섹션 공연 : 이룸학교 15명(드림하이) 4"
		• 이름 수업발표(인턴십)-인턴십 결과 보고 : 이기혁 5"
		• 이름 수업발표(음악)-뮤직비디오 상영 : 김시은(크리스마스 데이) 3"
		• 이름 수업발표(방송댄스)-뮤직비디오 상영 : 이룸 경제반(불장난) 2"
		• 학생 개인발표-노래 : 김준안(개사곡-옛사랑) 4"
		• 학생 개인발표-노래 : 전혜빈, 최보현(얼음꽃) 4"
		• 학부모 영상편지 - 지효정 어머니 7"
		• 꿈에 수업발표(실용음악)-노래+피아노 : 박정은T, 태지혜T, 허준원(내가 니편이 되어줄게) 3"
		• 꿈에 수업발표(실용음악)-노래+피아노 : 노송, 정우준(안아줘) 5"
• 꿈에 수업발표(실용음악)-노래+피아노 : 김용진, 김승연(Uncover) 4"		
• 꿈에 수업발표(실용음악)-합창 : 꿈에학교 14명(크리스마스니까) 5"		
인터미션	15:10~15:25	• 인터미션
2부 - 졸업식 : 꿈을 이룬 아이들	15:25~15:55	• 졸업식 진행 관련 알림 3"
		• 졸업식 축하 공연-이너심 : 이룸 졸업생 노태서, 노태동(광대를 위한 헌시) 5"
		• 꿈에 졸업발표 : 김용진 3"
		• 이룸 졸업발표 : 이하나 3"
		• 이룸 졸업발표 : 허유빈 3"
		• 이룸 졸업발표 : 지효정 3"
		• 졸업장 및 수료증 전달 5"
• 센터장 환송사 5"		
3부 - 경품퀴즈쇼 : 오지게 드림	15:55~16:25	• 퀴즈쇼 & 경품추첨식 : 전현수, 황현영
	16:25~16:30	• 공지사항 전달, 최종 마무리 멘트 및 폐회 선언
발표회 클로징	16:30~16:40	• 사진촬영 진행 (참석자 전원/학생/학교/졸업생 별) • 방문객 기념품 전달

• 활동사진



1차 전체 기획회의



기획단 준비 작업



기획단 준비 작업



팀별 회의 및 공연 준비



1차 리허설



작품 전시회



드림발표회 공연-이름학교 카드섹션



드림발표회 공연-꿈에학교 합창



졸업 축하공연 - 이름학교 졸업생



졸업식



경품퀴즈쇼



단체사진



## 담당자의 후일담

드림발표회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운영 중인 두 대안학교의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발표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성취감을 얻기도 합니다. 무대 공포증이 있어 사람들 앞에 나서기 힘들어 하는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서 합창을 하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기 바쁜 학생이 자신의 전시 작품 준비를 위해 새벽까지 학교에 남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뒤에 가질 수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드림발표회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전해지는 가장 큰 효과이자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드림발표회에 대한 소개나 설명이 아닌 담당자로서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단부터 제 후일담을 꺼내볼 예정이니 관심이 없으신 분께서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사실 드림발표회는 매년 담당자가 바뀌는 것으로 교육팀 내에서 암묵적(?)인 룰이 존재하던 프로그램입니다. 각 학교, 학생들의 1년간의 성장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학교의 연례 행사로는 가장 큰 자리이기에 담당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발표회를 2년 연속으로 담당하게 되어 연초부터 개인적으로 불만과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담당자로서 힘들었던 경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발표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미숙함, 부족함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그 불만과 근심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발간된 교육팀 운영사례집 '넘나들며 성장하는 배움터 ver.2'에 생생한 후기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올해에는 다행히도 한 번 해본 일이라 시행착오가 줄어들기도 했고, 작년부터 같이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손발을 맞춰 본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작년보다는 다소 무난하게 발표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 선생으로 일하면서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접하게 됩니다. 아니, 그냥 단순하게 접하게 된다고보다는 선생이라는 자리가 배우고 싶은 욕구를 일깨우는 자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선생들도 항상 변화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요..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했던, 대학교도 겨우겨우 졸업했던 제가 대안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저런 교사 교육이나 연수에 기웃거리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물론 선생으로서의 배움의 기회는 연수같은 배움의 자리에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제가 참가했던 교사연수에서 들었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 중 발표회를 담당했던 제 상황과 연관되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꼭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욕구는 본인이 가진 상황과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본인을 넘어서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 껍질을 깨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게 자극하는 것,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게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주변 어른들, 선생들의 역할이다'

2년간 지긋지긋하게 절 괴롭혔던 이 드림발표회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제 한계를 깨기 위한 시도를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깻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보다 나아진 자신이 보

이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드림발표회는 참 고마운 행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큰 배움의 기회가 2018년에는 다른 선생님에게도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에 함께 발표회를 준비하며 고생해주신 교육팀 선생님들께 서면을 빌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 1. 기획단 운영에 대한 고민

- 기존 드림발표회는 준비기간부터 발표회 당일까지 학생들이 학교의 구분 없이 담당 업무별로 나눠진 팀에 소속되어 발표회를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까지 크게 교류가 없던 두 학교의 학생들이 합동 작업을 함께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과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많았으며, 학교 별로 시간표 분할 기준이 달라 함께 모이는 시간을 잡는 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해에는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학교별 희망자 위주로 구성된 기획단을 조직하여 발표회 준비 활동을 진행하여 기존에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획단 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이 되었으며 학생들의 활동 참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후에도 기획단 활동을 통해 발표회를 준비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명확한 역할 부여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졸업식에 대한 고민

- 꿈에학교와 이룸학교의 학사 일정의 차이로 인해(꿈에학교의 경우, 드림발표회 이후에도 1달 가량 학교를 더 나와야 하는 상황) 학생들과 준비회의를 통해 협의하여 발표회에서는 이룸학교 학생들의 졸업식만이 진행되었고 꿈에학교는 추후에 따로 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졸업식이 짧고 타이트해져서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한 학교만의 행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하는 졸업식으로서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었습니다. 추후에는 가능한 한 일정을 맞춰 졸업식을 함께 진행하거나, 불가피하게 따로 진행하게 되더라도 서로에 대한 축하의 예를 표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상호 공유하여 함께 축하하고 축하받는 자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발표회라는 형식에 대한 고민

- 이번 발표회에는 공연의 구성이 단순해지고 신선함이 다소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뮤직비디오 촬영 및 상영 등으로 형식의 변화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음악, 노래 관련 발표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학기 중에 학생들과 어떤 방식으로 발표회의 구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및 준비가 보다 더 진행된다면 구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표회의 신선함, 임팩트가 덜하게 느껴지는 것은 단순히 공연 구성의 문제만이라고 보기보다, 어느 덧 4회째가 된 발표회를 계속 관람해 온 입장에서 비슷한 형식의 연말 발표회가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한 식상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드림발표회가 기획자의 기획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해 학교 구성원들의 상황, 의사에 맞춰 준비가 되는 것이기에 여러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반대로 그러한 상황에 맞춰 발표회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연말 성장 공유회를 시도해보는 것도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7

## 청정한 원탁토론회

청소년과 함께 하는 '위기청소년 이슈 발굴' 정책제안 원탁토론회

유선숙

청정한 원탁토론회는 그동안 교육팀에서 해왔던 민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축제의 장입니다. 그동안 함께 이 소통을 배우고 실천하셨던 선생님, 학부모, 청소년 등을 초대하여 우리의 방식으로 나와 주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변화의 시작을 함께 하였습니다.

과연 위기청소년이란 누구이고 현재 그들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러한 물음을 안고 이 물음의 주체인 청소년과 평등한 시선을 가진 원탁토론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비록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모든 것들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이러한 물음의 최전선에 있는 누군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청정한 원탁토론회
- **목적** 위기청소년에 대한 이슈를 원탁회의라는 평등한 소통 방법을 통하여 공유하고 중요한 이슈로 공론화 시킬 수 있다.
- **목표** 1.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관계자가 모여 나눈 위기청소년 이슈를 공유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후년에 실질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2. 퍼실리테이션의 방법을 큰 틀에서 실습하고 공유할 수 있다.
- **대상** 청소년, 학부모, 관련 학과 대학생, 관련 사업 전문가 및 실무 관계자
- **일시** 2017년 11월 2일(목) 14:00 ~ 17:00
- **교육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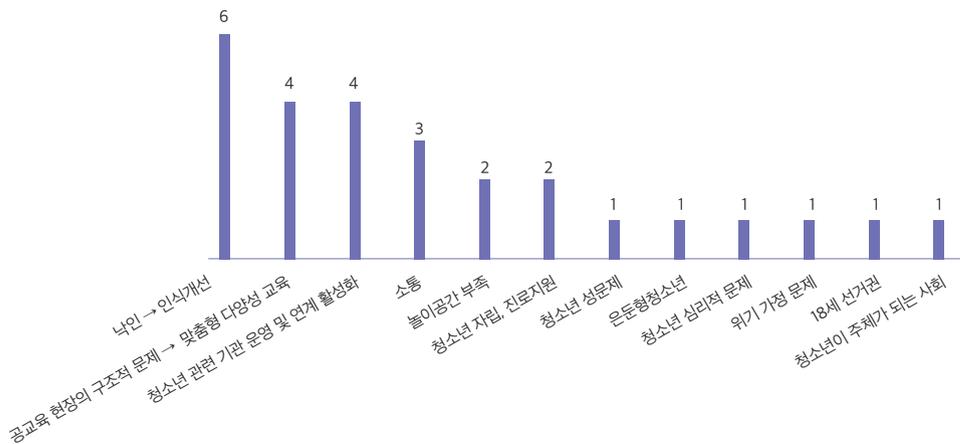
구분	청소년	청소년 실무자	일반인
인원	32	41	18
계		91	



-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분석
  - 위기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사용자들의 인식 및 관심을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위기청소년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 원탁토론회
  -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분석 발표
  - 주제 관련 발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기청소년 패러다임 전환 및 지원, 정책 제안
  - 원탁토론회 : “위기청소년 이슈 발굴”을 주제로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실무자 등 다양한 분야 참석자와 테이블별 퍼실리테이터들이 모여 토론
- 자료집 발간
  - 빅데이터 분석 자료, 발제 자료, 토론회 회의 내용 및 분석 자료 등이 담긴 자료집 제작·배포

• 위기,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  
 드림센터 교육팀의 2017년 평등한 소통의 축제였던 청정한 원탁토론회가 ‘위기청소년 이슈 발굴’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각 조별 토론 내용의 정리와 토론회의 의의 점검을 통해 토론회를 돌아 보려 합니다.

<위기청소년 이슈 발굴에 대한 조별 토론 내용>



---

원탁 토론회는 10개의 조로 나누어 각 조별 퍼실리테이터의 주관 하에 청소년 전문가 및 실무자, 관련 학과 대학원생(대학생), 청소년 등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퍼실리테이션의 방식으로 위기청소년의 3대 과제를 제안하고, 토론하였습니다.

각 조별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14개의 과제(중복된 과제 포함)가 도출되었습니다. 각 조별 과제(제안) 중 가장 많이 나온 의견으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낙인감(6개조)**, **공교육 현장의 구조적문제(4개조)**, **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 및 연계 활성화(4개조)의 공통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공교육 현장의 구조적문제**에 대한 이슈로는 주입식교육의 역기능, 획일화된 교육과정 및 입시교육의 근본적 변화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교 밖 또는 경계선상의 위기 청소년이 되는 경우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다양성에 기반을 둔 교육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낙인감**에 대한 이슈 제기는 위기와 비위기를 나누는 방식이 공교육으로부터의 탈락으로 규정되는 것에 대한 청소년의 문제제기 또는 항변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공교육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위기 청소년으로 낙인 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관련기관 운영 및 연계 활성화**의 대한 요청은 이들이 제도권 학교를 벗어나 대안학교를 넘나들며 하게 되었던 다양한 경험 속에서 청소년 관련기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탁토론회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은 위기청소년이란 위기 상황의 청소년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교육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는 결코 위기 청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드림센터 교육팀의 위탁형 대안학교와 도시형 대안학교 학생들이 주로 참석하여 토론에 참가하였고 토론회의 참가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이 학생들의 시선을 통해 나머지 실무자 및 대학생, 일반인들의 시야를 넓히는 분위기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는 위기청소년 특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열심히 다니며 자신만의 학습을 이루어내는 청소년조차 이런 부정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행 또는 별다른 개인적 위기 상황이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자체로 위기청소년으로 분류하는 세상의 시선에 대해 토론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본인들은 그저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말하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낙인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나온 소통(3개조)에 대한 제안은 위기 청소년들이 소통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현재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가정과 또래 사이에서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통의 부재는 청소년들이 위기의 상황으로 빠져들 때 그들과 소통하고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줄 존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소통의 부재는 청소년들을 더 큰 위기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별 과제 두 개 조에서 공통으로 나온 이슈는 청소년 자립과 진로지원(2개조), **놀이 공간 부족**(2개조)으로 나타났습니다. 놀이공간의 부족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청소년 이슈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쟁과 서열화를 통한 입시교육의 환경에서 공교육에서 탈락되거나 그 경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놀 거리,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찾고 있지만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만이 청소년 성장의 도구로 인정되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회를 차단당한 채 성인의 환락적인 놀이문화에 빠져들어 성인의 흉내를 내며 똑같은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청소년들이 아직도 놀이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여전히 청소년의 놀이를 청소년 성장의 과정에서 또 다른 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임을 보여줍니다.

**청소년 자립과 진로지원**에 대한 이슈는 맞춤형, 다양성 교육의 이슈와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 대다수 청소년에게 제도권의 교육이란 그저 대학을 가기위한 수단일 뿐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민은 정작 대학에 진학해서 하게 됩니다. 자립과 진로지원에 대한 요청은 자신의 적성을 알고, 자립과 진로를 준비할 때 오히려 교육에 대해 현실적인 욕구가 생겨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학력의 우열보다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로 나아가리라는 전망 속에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하나의 교육 시스템으로 모두 통합할 수 없으며 그들을 위한 다양한 자립 및 진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원탁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이슈들은 현 사회의 위기 청소년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청소년의 성비행과 성매매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성교육의 이슈는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은둔형 청소년과 그들의 심리적 문제는 점차 이 사회가 해결해야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슈입니다. 또한 비행문제 폭력문제 등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은 가정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 스스로 가정문제를 이슈로 제기할 만큼 가정문제는 근본적이며 해결의 방법 역시 쉽게 찾기 어려운 이슈입니다. 마지막으로 18세 선거권 이슈는 위기 청소년 문제뿐 아니라 청소년 정책 자체를 좌우하며, 청소년 삶의 질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올 이슈이나 기타의 다양한 이슈로 제기된 것은 아직은 청소년들 스스로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관점의 이슈들을 종합해 본 결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현재 청소년들을 만나는 교육 현장 및 기관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 그들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 지원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하며,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는 교육의 현장은 이런 다양한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교육시키기에 부족하며 마치 한가지의 목표만을 준비시키는 학원과 다름없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안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담아 낼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이 가는 각자의 길이 위기라는 말로 규정되어 모두가 틀렸다고 바라볼 때 그것이 그저 서로 다를 뿐이고 이를 위한 사회의 준비와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 청정한 원탁토론회를 진행하며

2017년 교육팀의 큰 행사였던 원탁토론회는 그간 교육팀에서 해왔던 다양한 소통방식을 펼쳐보는 축제의 장으로써 위기청소년 이슈발굴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부분의 포럼 혹은 연구 등의 정책 관련 행사에서 진행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참가를 제일 주요한 원칙으로 세우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평등한 소통을 위한 원탁토론회에서 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점은 토론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참석한 어른들이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항상 어른들끼리 모여서 청소년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반영하던 시기에서 지나 청소년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변화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직 토론회는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다양한 이슈들 교육의 다양성, 위기청소년에 대한 낙인, 어떤 것이 진짜 위기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가 찾아나갈 때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저 이야기로 멈추지 않고 변화의 시작이 되어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청정한 원탁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은 드림센터에서 발간한「청정한 원탁토론회」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1



2



3



5



넘나들며 성장하는 배움터 ver 3.0

# 우리들의 2017 이야기

7





4



6



8

1. 그들은 내게 와서 상전이 되었다!
2.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3. 느린 변화에 대한 믿음
4. 이룸에서 우리가 탐구한 인문학
5. 꿈에 앙케이트
6. 이룸학교, 우리 지금 어디쯤에 있는 걸까?



## 그들은 내게 와서 상전이 되었다!

꿈에학교 영어강사 김미진

'대안학교'라는 말은 굉장히 이중적 느낌으로 다가온다. 주어진 질서에서 오는 부족함으로 인해 좀 더 고급적 교육(?)을 지향하고자 모이는 곳과 기존 질서 편입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렇다면 내가 속한 학교는 아마도 후자인 것 같다. 일상에서 우리 아이들 모습은 제 각각이다. 어떤 아이는 그야말로 '권위주의'적 태도에 격렬한 거부감과 노골적 분노를 표시한다. 또한 그들은 감히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행동들은 과감히 해버린다. 반면 어떤 친구들은 자기만의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무거운 침묵과 냉소로 대응한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나의 뇌는 하염없이 쪼그라들고, 질서와 규칙의 나침반도 방향을 가리키지 못한 채 속절없이 획획 돌기만 한다. 그야말로 그들은 내 상전이 되었다.

내 경험치가 부족해서인지 초창기 3년 동안 나는 매일 사표 쓰는 '선생' 아닌 '선생'이었다. 그들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난폭하고 무절제하고 예의도 없어 보였다. 지금은 일정 부분 맷집이 생겨서 그 말은 어느덧 들어갔지만 이와 무관하게 우리 친구들은 여전히 해맑기만 하다.

보통교과 중 하나인 영어가 담당과목이다. 지역적 특성인지, 개인적 능력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학생들은 내신 1등급부터, 영어가 외계어로 자리매김을 하는 친구들까지 정말 다양하다. 다행히도 수준별 분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도 수업에 참여를 해주시는 '상전'들의 기분에 따라 영어수업은 교실 너머, 길바닥으로, 산으로 이리 저리 요동치다 다시 교실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르치는 게 어렵다. 학생들의 마음을 배려하자니 수업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함께 으싸으싸 놀자니 '지금 나는 뭘 하고 있지?'라는 자괴감과 짜증이 밀려오기도 한다. 이럴 때면 한국어로 교재가 된 과목들과 대안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마냥 부럽다. 최소한 무슨 말을 하고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 터이니. 비록 이해와는 무관하게 수업 참여는 온전히 '상전'들의 몫이지만.

나의 '상전'들은 다른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들과 확연히 다른 뭔가가 있다. 모든 청소년기에 상상한 가능한 '일들'이 집대성되어 있다. 그들은 개성적이며 파워풀하지만 집단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그들은 서로 상스러운 말들을 내뱉지만 나름 위계와 의리가 있다. 그들은 해결이 요원해 보이는 가정사와 불안한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곧바로 씩씩해진다. 그들은 정말 이상하다! 강아지 마냥 아프다고 킁킁 거리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다 손길을 뻗으려면 이미 저만치 발랄하게 자기 무리들과 히히덕거리며 앞을 향해 뚝뚝 걸어가고 있다. 그들은 정말 놀랍다!

매 학기 시작 마다 항상 불안함과 기대감이 공존한다. 어떤 친구들과 한해를 같이 할 것이며, 어떤 교재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할지 매번 고민이 된다. 비록 분반 수업을 하지만 그 안의 격차가 큰 경우도 태반이고 학생들 성향에 따라 아무리 상급반이라도 수업이 안 될 때가 허다하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기억은 희미하나 마음과 자세를 바꿨다. 우리 '상전'들은 말이 '상전'이지 철용성 같은 기존 질서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리 저리 휘둘리면서 따라가야만 했다면 이제는 내가 우리 '상전'들을 한 번 따라가 보려 한다. 그러다 보면 분명 서로간의 접점이 있으리라. 그래야 최소한 공평하지 않나 싶다.

---

##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꿈에학교 국어강사 이민형

나는 현재 위탁형 대안학교의 국어과 강사이다. 나는 생각을 길게 하지 않는 경험주의자이자 행동주의자이다. 그래서 강사 이외의 일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 점점 예측이 빗나가고 있다. 현재 나의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보다 더 변화무쌍한 세상으로 뛰어들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어떤 수업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국어라는 과목이 지닌 광범위한 영역 안에서 늘 고민한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을 했다. 결국 원치 않는 학과에 진학하여 자퇴를 택했다. 귀인을 만나 사범대에 편입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육심리 수업 중이었다.

“민형아, 너는 꼭 교사가 되어야 하니? 네 심리검사를 보면 너는 학생들의 친구가 되긴 쉽지만, 다른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많이 힘들거야.”라는 말씀을 교수님께서 자주 해 주셨다. 당시에 나는 목표를 향해선 맹목적이었기에 무시하고 내 길을 갔다. 몇 년 후에 나는 교수님의 뜻을 깨달아 2년 만에 학교를 그만 두고 위탁형 대안학교의 강사가 된 지 6년이다. 하지만 이 일은 비교적 넓은 영역 속에서 폭넓은 대화식 수업이 가능하다. 여건상 어려울 때도 많지만 서두에 밝혔듯이 '과연 교과서의 내용 자체가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까?'에 대한 사유의 결과로 나는 거의 모든 영역을 넘나드는 통합 수업을 하고 있다. 이게 아직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반성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건 당위이기 때문이다.

직업의 특성상 1년에 3개월 정도의 긴 휴가가 주어진다. 지금은 그 시작점에 있다. 나는 강사라는 직업 이외에 다른 일을 늘 구상하고, 준비하고, 실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무언가를 배우고 나는 그것을 최대한 전해주려고 노력한다.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난 수업들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천천히 고민해야겠다.



## 느린 변화에 대한 믿음

이룸학교 소통강사 이춘

서양의 문화인류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모래사막은 늘 그대로 있는 듯 보인다. 동양의 문화도 그렇게 보인다. 아니 아예 아무런 변화도 없이, 서양 문화에 비교해 보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늘의 사막 언덕은 어제의 것과 다르고, 10년 후엔 지금의 사막 언덕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찾지 못한다. 그곳에 사는 그들만이 변화된 그 사막 길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은 서양 문명에 비교하여 동양 문명이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고 한다. 서서히 변화된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그런 이유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단정 짓고 열등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꼬집고 있다.

아이들, 특히 청소년 시기의 친구들이 바로 이런 모래 언덕, 사막으로 둘러싸인 미지의 시공간의 주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영유아기를 거쳐 아동들의 발달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에 비해 중고등 과정의 청소년 시기에 있는 친구들의 변화는 눈에 확연히 들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내는 친구들과 부모, 선생님들은 불안해할 지도 모른다. 이룸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의 첫인상 역시, 이와 비슷한 불안함과 무료함으로 흐느적거려 보였다. 무엇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 반응이란 마치, 벽에서 튕겨져 나오는 공과 같은 기분일까. 더군다나 그 공은 어디도 날아갈지 예상하기 힘들어서 잡을 수도 피하기도 힘든 분위기. 하지만 이룸 친구들 역시 변화하고 있는 중이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이다.

소통 수업에서는 짤막하게 한 주 인사를 나누고, 시 한 편을 낭송해 보고, 다양한 인물들을 삶을 볼 수 있는 소설도 읽는다. 마음에 드는 시를 낭송하면 듣고 있다가 눈물 한 방울 뚝 흘러기도 하고, 감동적이라며 시를 옮겨 적으며 누군가에게 선물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소설 속 주인공의 엉뚱한 행동에 황당해하기도 하고,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해 주고. 때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흥분해서 주인공의 대변인이 되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공감과 반응을 서로 봐주면서 몰랐던 상대에 대해 궁금함이 생기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것에 대해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그야말로 ‘소통’의 장이 된다. 물론 교사 역시 함께 살아온 경험을 나누고 때로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조언을 듣기까지 한다.

조금은 더디고 활기차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 눈에 보이지 않는 빠른 변화가 없다고 해서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룸학교 친구들과의 수업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첫 입학, 첫 수업의 불안함과 무료함을 천천히 다른 모습을 이끌어내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상기된 밋밋한 불을 하고 있다. 그런 친구들 옆에는 또 다른 친구들,

---

그리고 느림의 변화를 현명하게 바라봐주고 믿어주는 선생님들이 늘 함께 하고 있다. 그들 역시 얽은 미소를 짓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며 힘들어 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런 친구들에게 수많은 용기의 말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함께 손을 잡고 들어주고 기다려 주는 일이 아닐까? 무너질 것 같은 바람에 날려 금방이라고 사라져버릴 것 같은 사막 언덕 위를 같이 올라가 주는 것.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걸어 온 먼 길,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 갈 광활한 길을 함께 바라봐 주는 것. 이룸학교는 바로 그런 미지의 공간이며 시간을 만들어 가는 '시간의 창작소'라는 생각을 한다.

스스로도 믿지 못하고 힘들어 할 때, 느린 변화에 대한 믿음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주는 친구들,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이다.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 언덕에서 손을 꼭 잡아주고 같이 가 주는 소통할 수 있는 동행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그 다행스러움과 행복도 서서히 느끼는 이룸학교 친구들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길동무와 같은 친구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느림의 아름다움을, 늘 바빠 움직이는 어른들에게 알려주는 멋진 친구들이라고 자랑하고 싶다. 이룸학교에서의 수업은 이렇게 모두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말이다.



## 이름에서 우리가 탐구한 인문학

이름학교 인문학강사 이훈

어느 곳에서든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은 설레면서도 두렵다.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주체적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판적 사고력과 반성적 사고력을 소개할 수 있기에 설레지만 동시에 익숙하지만 막상 시도하면 어렵고 지루할 수도 있는 비판적 사고력과 반성적 사고력을 청소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두렵다. 그렇기에 나는 청소년들을 만나고 나서 혹은 만나고 난 후에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을 가르칠만한 사람인가 하는 반성적 사고를 한다. 그리고 늘 아직 더 공부해야 하겠구나 하는 답을 내곤 한다. 2017년도 이름학교에서도 나는 똑같은 경험을 했다.

막상 인문학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니 함께 수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부터가 걱정이었다. 나는 사실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말하기보다는 함께 탐구한다고 말을 하고 싶다. 형식적으로는 교사와 학생으로 만나지만 나는 그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함께 탐구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고민을 한 것이다.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거리감이 들어서 내가 만난 그 사람들을 부르기에 적절하지 못했다.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성인에 가까워서 적절하지 않았다. 학생이라고 부르는 것도 함께 탐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나로서 별로 쓰고 싶지 않은 단어였다. 결국 고민 끝에 나를 포함해서 함께 공부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다. 2017년에 이름학교에서 함께 공부한 '우리'라고 말이다.

우리는 일 년 동안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함께 탐구를 했다. 하나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비판해보고 각자 나름대로 이슈에 대한 입장을 만들어 보는 사회 이슈 탐구였고 다른 하나는 우리 각자가 평소에 관심을 가진 주제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는 자유 주제 탐구였다. 두 가지 테마 모두 비판적 사고력과 반성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테마였으며 이런 테마를 다루는 방식은 대화와 토론이라는 고전적이지만 생각을 키워나가기에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었다. 물론 누구나 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름학교에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우리가 있었다. 그렇기에 수업이 쉽지는 않았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 싫어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말을 하기도 했으며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힘들어 했고 어떤 사람은 비판적 질문을 공격으로 받아들여 화를 내기도 했다. 나이와 성별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달라서인지 관심사도 다양각색이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기도 했다. 때로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와서 모두가 놀라기도 했고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함께 탐구하는 시간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서로 말하고 듣는 것에 있어 상대를 배려하는 힘을 조금씩 키워 갔다. 몇몇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여 불꽃 튀는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탐구를 마무리하면서는 각자 자신의 생각을 노트에 쓰면서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도 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비록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었지만 비판적 사고력과 반성적 사고력을 조금씩 성장시킨 것 같다.

---

그렇게 즐겁게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며 해왔던 토론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여성혐오와 동물권에 관한 토론이다. 특히 우리 안에 여성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인지 여성혐오를 비롯하여 페미니즘 관련 주제에 대해 토론할 때는 매우 활기차면서도 논쟁적인 얘기를 주고받았다. 남성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은 당황하기도 했고 변명도 했으며 분노도 했다. 남자도 차별받는 사람이 있고 남자도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도 있는데 왜 모든 남자를 나쁜 사람 취급하느냐는 항변의 소리도 있었다면 남자를 모두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남성성이 우대받는 사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시끌벅적 얘기하다보니 잘 합의가 되지 않는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는 서로에 대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에서는 서로 동의를 했다.

동물권 문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진 주제였는데 동물에게 왜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 동물보다 우리가 더 세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가축은 음식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등 다소 충격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수가 당황스러워 했다. 그렇지만 짜증내거나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동물도 우리처럼 하나의 생명으로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치열하게 논쟁을 했다. 결국 충격적인 주장을 한 친구가 끝까지 자기 생각을 바꾸지는 않아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문학에서 다루는 가장 큰 주제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은 정말 복잡하며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다. 이 복잡하며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진 존재를 1년 만에 다 이해했다는 말은 거짓말일 것이다. 아니 평생 인문학 공부를 했다고 해도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제 첫 걸음을 걸었다. 사람, 즉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공부는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내딛은 소중한 한 발자국이자 첫걸음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욱 가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좋겠다.

나는 생각한다. 삶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에서 인문학은 우리에게 의지와 용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 꿈에, 앙케이트 설문지

꿈에학교 2학년 최민우, 허준원

2017년 꿈에학교 학생들은 1년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며 학교에 다녔을까?  
학교는 왜 오게 되었는지, 꿈에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날은 언제인지, 기억에  
남는 선생님과 친구들은 누구인지...  
마음속에만 있던 질문과 답변을 여기에 펼쳐 본다.

### Q1 꿈에학교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민우** 본교에서의 적응이 어려워서 전학을 다니다 대안학교를 알게 되었다.

**서영** 시설도 좋고 다른데 보다 거리도 가까워서

**선우** 본교 선생님이랑 싸워서

**성현** 아빠 권유

**송** 졸업이 목표

**연정**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는 다닐 수 없고 두 번째로 가까운 학교가 여기라서 그렇다.

**용진** 제 첫 대안학교였고, 제가 방향할 때에 잘 잡아 줄 수 있을 것 같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우준** 본교 퇴학 보류와 아버지 추천으로 들어옴

**준원** 일반학교에 적응이 힘들고 자주 학교를 옮겨 다닐 때, 대안학교 시스템을 알게 되어서 들어왔다.

**준형** 동네 선배 소개로

**현수** 본교에서(실업계 디자인과) 하는 과제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고 애들과의 관계 때문에 오게 됐다.

**혜빈** 진로를 찾고 싶었고, 그 당시 심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싶어 들어왔습니다.

### Q2 꿈에학교에 내년에 또 다닐 수 있게 된다면 다닐 의향이 있으신가요?

**민우** 네, 자유롭게 늦은 등교시간 때문에 오고 싶다.

**서영** 아니요. 대학교 다닐래요.

**선우** 네

**성현** 직업학교를 간다.

**송** 졸업하는데 무슨

**연정** 저는 졸업을 하고 싶습니다.

**용진** 네, 근데 졸업이라 못 와서 슬프요ㅠㅠ

**우준** 꼭 다니고 싶습니다.

**준원** 네, 1년 동안 정들어서 또 오고 싶습니다.

**준형** 당연하죠!





**현수** 아니요, 대학교에 가니까요.

**해빈** 네 있습니다. 부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편도 편하고 선생님이 좋습니다.(모든 선생님 분들!) 이곳에 와서 많은 저를 변화 해 주신 선생님들이 많아, 목표를 위해 꿈을 이룰 것 같습니다... 하하

### Q3 꿈에학교에 일 년 동안 배웠던 과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민우** 수학, 수학 선생님의 귀여운 아들과 놀아서

**서영** 바리스타, 선생님도 좋으셨고 커피 만드는 것, 배우는 것이 재밌었다.

**선우** 없다(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

**성현** 보오오옥~싱, 재밌어서

**송** 음악, 난 음악을 잘해서

**연정** 과학, 수업이 재밌다.

**용진** 바리스타 시간(커피 만들어보고 싶었었고, 선생님도 너무 좋았습니다.)과 보컬수업(제가 원래부터 노래를 좋아해서)이었습니다.

**우준** 목공, 선생님이 친절하시다.

**준원** 보컬시간이 연습에서 무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

**준형** 과학, 무에타이

**현수** 원예 수업이 젤 기억에 남는다.

**해빈** 국어와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문과로 수능 볼 저에게 가장 흥미 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 Q4 꿈에학교에서 진행한 외부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민우** 졸업여행 즐거웠다.

**서영** 2학기 캠프가 재미있었다. 고등학생으로 학교에서 가는 마지막 여행이고 했던 활동들도 재미있어서 가장 인상 깊다.

**선우** 없다(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

**성현** 캠프, 좋아서

**송** 불링장, 다 같이 침으로 단합

**연정** 롯데월드, 기구가 재미있어서

**용진** 여행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훨씬 더 돈독해 질 수 있었던 계기였던 거 같습니다.

**우준** 롯데월드 재밌었다.

**준원** 1학기캠프, 졸업식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딱 생각하면 떠오르기 때문이다.

**준형** 수학여행, 행복해서

**현수** 롯데월드 가서 넘 좋았다.

**해빈** 대학교 탐방! 건국대학교에서 탐방하며 제 진로가 확고해지면서 미래가 준비되는 과정을 가진 것 같습니다.

## Q5 꿈에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민우** 목공쌤 나의 꿈을 찾아 주었고, 심리 상담을 해 주었다.

**서영** 다 좋으셨다. 근데 그 중에서 민지 쌤이 제일 좋다. 친구 말곤 누구한테 내 얘기를 털어 놓 적이 딱히 없었는데 고민이 있을 때 잘 들어주시고 챙겨주셔서 좋았다. 또 바리스타 선생님은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편하게 해 주신다.

**선우** 모두 좋았다.

**성현** 강패, 멋져서

**송** 다 전부다, 누구는 안 친하고 그런거 없는 다 똑같은 쌤

**연정** 중국어 선생님. 착하다.

**용진** 바리스타 서화진 선생님입니다. 수업할 때 저와 많은 얘기도 나누고 조언과 충고들을 해 주시면서 저를 격려 해 주는 게 정말 많은 힘이 됐습니다.

**우준** 없다 - 다들 괜찮았다.

**준원** 국어선생님. 해주는 얘기가 재미있었고 나랑 MBTI가 똑같고 성격도 맞았다.

**준형** 민지쌤, 현태쌤, 현영쌤 다~ !모르겠다.

**현수** 센터장쌤, 넘 친절했다.

**혜빈** 우리 담임선생님. 이민지선생님. 늘 저의 고민을 들어주고 즐겁게 해 주셔서 많은 기억에 남고 제일 좋았어요 ㅎㅎ 알죠? ㅎㅎ 김현태 선생님. 항상 돕직하셔서 ㅎㅎ 또, 담임쌤 제외라니... 중국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저의 진로를 응원해 주신 것 저를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 Q6 꿈에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이름은?

**민우** 허천원(준원) 가장 오래 같이 있었다.

**서영** 김용진

**선우** 다 좋았다.

**성현** 전사고(선우), 귀여워서

**송** 전부다, 다 똑같은 친구이기 때문

**연정** 김승연,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용진** 하서영, 이윤주

**우준** 모두 친했다.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

**준원** 민우랑도 밖에서 자주 놀았고, 선우랑은 오래 본 사이고, 준형이 형은 클럽도 같이 가서 놀았고 다들 잘 친하게 지냈다.

**준형** 대부분 친했다

**현수** 다들 나와 잘 맞지 않아 많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는 없다.

**혜빈** 김유빈 학교를 잘 안 나오는 친구였지만 함께 놀았던 시간들이 즐거웠어요. 용진언니, 서영언니, 고마우셨다. ㅎㅎ



### Q7 교육팀 선생님 중(꿈에 담임 제외) 제일 친한 선생님은?

**민우** 현영쌤, 걸크러쉬한 매력에 친해졌다.

**서영** 다 편하게 해 주시고 좋으신 분들인데 딱히 친하진 않았다. 친해질 기회도 딱히 없었다.

**선우** 없다(병원에 있어서 친해질 기회가 없었다)

**성현** 현영쌤, 편하다

**송** 다 똑같은 선생님이다.

**연정** 현영쌤, 어쩌다가 친해졌다

**용진** 황현영 선생님입니다. 작년 제 담임이기도 했고 볼 때마다 밝은 웃음으로 인사 해 주시고 반겨주시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우준** 모두 친하다.

**준원** 현영쌤이랑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랬다.

**준형** 없다. 모르겠다.

**현수** 없다. 담임쌤 제외하고 없다.

**혜빈** 팀장선생님, 이룸학교 선생님 모두 친한 것 같습니다. 하하 얘기를 할 때 너무 즐거웠어요.

### Q8 꿈에학교의 장점은?

**민우** 좋다.

**서영** 선생님들이 좋시고 시설도 좋고 선생님들이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최대한 얘기를 통해 맞춰주셔서 좋다.

**선우**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소통이 활발하다.

**성현** 편하다. 편함

**송** 자유롭다. 본교와 다르기 때문

**연정** 대화가 다른 곳에 비해 잘 통한다.

**용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냥 고등학생이 아닌 사회 인격체로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준** 학교가 자유로운 편이다.

**준원** 일반학교보다 자유로웠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다.

**준형** 등교시간

**현수** 쌤들이 친절하다.

**혜빈** 학생들의 고민과 믿음 바른 길로 향하게 만들고 기다려 주셔서, 그리고 많은 다양한 체험으로 누구는 진로를 찾고 누군 진로에 다가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 꿈에학교의 장점입니다.

### Q9 꿈에학교의 단점은?

**민우** X, 즐겁고 다 좋다.

**서영** 없다. 딱히 없는데 굳이 생각하면 집이랑 거리가 좀 있는 거



**선우** 방학식이 너무 늦다.  
**성현** 늦게 끝남  
**솔** X, 딱히 힘든 게 없었다.  
**연정** 규칙이 많다.  
**용진** 이런 것처럼 문서 작성이 너무 많아요...  
**우준** 현재뺨, 무서움  
**준원** 5시까지 수업하는 날이 있다는 게 단점이다.  
**준형** 출석일수, 힘들었다.  
**현수** ~~~모르겠다~~~  
**혜빈** 음...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노트북이 느렸어요.

**Q10** 꿈에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은 누구인가요?

**민우** 허준원(재밌다. 멋있다), 준형이형(착하구 재밌다), 노송형(착하구 재밌다.), 하서영누나(인기가 많다)  
**서영** 모르겠다. 각자 한명, 한명 다 괜찮은 사람이고 좋다.  
**선우** 잘 모르겠다.  
**성현** 나, 존잘  
**솔** 나야 나, 내가 짱이니까  
**연정** 연정이, 이빠서  
**용진** 모르겠네염..  
**우준** 나다, 나니까  
**준원** 허준원이다. 무조건 확실하다. 가장 외모와 패션, 재미 면에서 뛰어났고 못 하는 게 없는 것 같다.  
**준형** 민우, 준원  
**현수** 모르겠다-  
**혜빈** 아... 잘모르겠습니다.



**Q11** 꿈에학교의 급식 시스템은 괜찮았습니까?

**민우** 네, 맛있고 깨끗하다.  
**서영** 경찰서에서 먹는 건 맛이 없어서 싫었는데 도시락도 괜찮았고, MG에서 먹는 것도 좋았다. 맛있었다.  
**선우** 네  
**성현** yes, 영간함  
**솔** 만족, 난 솔직히 MG 맛있었다.  
**연정** 그냥 그렇다. 맛있을 땐 맛있고(드물게) 맛있을 땐 맛 없어서 별로다.  
**용진** 초반 경찰서 갈 땐 정말 불만족스러웠는데 MG가 새로 단장하고 주방장이 바뀌면서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우준** 맛있는 편이다. 다른 걸 찾으면 좋겠다.

**준원** 도시락이 좋았던 것 같다. 하지만 MG도 먹을 만하게 다양하게 나왔다.

**준형** 먹긴 했지만 맛있다. 아쉽다. 멀다.

**현수** 먹을만 했다.

**혜빈** 네, 너무 좋았어요. 가는 길이 추웠긴 했지만 맛있었어요.

### Q12 꿈에학교에서 자기가 이뤄냈던 것 중에 가장 뜻 깊었던 것은?

**민우** 지각 안하는 것, 잠이 많은 나도 즐거운 학교여서 잘 오게 되었다.

**서영** 학교를 짚렸을 때, 계속 다녀야 되나 마나 고민 했었는데 꿈에학교를 와서 졸업을 한다는 게 가장 뜻 깊은 일이다.

**선우** 사고 났지만 다시 살아났다.

**성현**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

**송** 졸업하기, 그게 목표였다.

**연정** 기억나질 않는다.

**용진** 두루두루 좋은 인관관계를 노력했는데 나름대로 발전 한 것 같아서 좋다.

**우준** 내가 성장한 거 같다. 모든 분야에서

**준원** 성적도 오르고 출결도 좋아지고 학교생활이 즐거워진 것 같다.

**준형**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갔다.

**현수** 대학교(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한 것)

**혜빈** 진로에 더 확고해지고 자신감을 가진 것!

### Q13 꿈에학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민우** 즐겁고 자유로운 학교

**서영** 한마디로 표현 못하겠다, 그냥 선생님들도 다 좋으셨고 친구들도 좋았고 1년을 재밌게 다녔다. 좋았다.

**선우** 개꿀

**성현** 사고다

**송** 아주 나이스

**연정** 연정이의 마지막 학교, 왜냐면 말 그대로...

**용진** 최고! 최고~!

**우준** Good

**준원** 꿈을 찾게 해 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다.

**준형** 웃음이 나는 학교♡

**현수** 넘 좋다~~

**혜빈** 가족



## 이룸학교, 우리 지금 어디쯤에 있는 걸까?

지난 겨울, 도시형 대안학교 이룸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돌아보고, 도시형 대안학교의 현주소와 대안교육의 교육적 의미, 역할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이룸학교와 공간 민들레 교사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가 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간 민들레 대표이신 김경옥 선생님께서 원고를 작성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의 녹취 내용을 그대로 사례집에 실자는 의견을 주셨다. 누군가의 손을 거쳐 정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여기, 사례집에 날 것 그대로 생생하게 표현 하고자 한다.

### 이룸이 꿈꾸는 내일

공간 민들레 대표 김경옥

가끔 보면 바둑판의 제일 실력자가 훈수꾼처럼 보일 때가 있다. 툭툭 내뱉는 그의 훈수가 예사롭지 않아, 바둑알을 친 주인 공들이 저 소리대로 하면 참 좋을텐데 하고, 귀를 기울이길 바랄 때도 있다. 사실 훈수꾼이 실력을 발휘하는 까닭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저 나오는 대로 내뱉어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주의를 주는 사람도 없다. 이처럼 그냥 맘 편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큰 실력을 발휘하곤 한다. 그런데 훈수꾼에게 책임을 지게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다. 누가 될까 주저되고, 실력이 드러날까 맘대로 지르지도 못한다. 오늘 내가 딱 그 심경이다. 잘난 척 하다가 된통 책임지는 사람이 된 느낌!

겨울, 이룸학교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요청이 왔다. 멀리서 오는 벗은 언제나 반갑고 서로 비슷한 방향을 보고 있는 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다. 이룸학교와의 이야기 자리는 내겐 그런 자리였다. 멀리서 온 벗들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맘껏 훈수 두는 그런 자리. 서로 미주알고주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언제 힘들고, 뭐 할 때 제일 즐거우며,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뭔지도 아는... 그렇게 서로 동병상련하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끼리 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

이렇게 정리하는 글을 쓰려니, 그저 훈수꾼이어서 안 되는구나 싶다. 나도 모르게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말이 진지해지고 무게가 잡힌다. 그래서 나는 다시 내 위치를 다잡아 본다. 우리는 서로 닮은 '못난 감자들'. 우리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벗이다. 이 글은 이룸학교 벗들에게 드리는 응원가다.

####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있나?

##### 대안학교의 흐름 이해하기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까'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서있는 지점은 시간적 흐름과 공간적 흐름을 모두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도시형 대안학교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에서 대안교육, 대안학교라는 말이 쓰인 것은 1990년대 중반이라고들 말한다. 1995년, 1996년. 그래서 이즈음을 20주년이라고 얘기하는 학교들이 꽤 있다. 올해 또는 내년이 20주년이 되는 학교가 많은 것처럼. 우리나라 대안학교 역사에서 올해, 내년 이런 때가 되게 중요한 해다. 20살이 되는 해니까, 20살은 어른으로 성년이 되는 전환의 시기이기도 하니깐. 20년 전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대안교육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할 때에, 대안교육 내지는 대안학교가 위기청소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이 생겨난 것은 위기 교육이 있었던 탓이다. ‘교육이 위기다.’ 하긴 그전에도 ‘교육이 위기다.’라는 말은 널리 회자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 어찌 보면 교육은 언제나 위기였다.

돌아보면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운용된 건 70년대였다. 그때 안정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학교 가는 것에 대한 일종의 열망 같은 게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학교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존중과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개별로 보면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목표가 그 사회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크게 불화하지 않았던 셈이다. 70년대 당시 학교교육의 목표는 당시 국가의 목표와 정확하게 일치했는데, 한마디로 훌륭한 인재 양성이었다. 이때 훌륭한 인재는 현대자동차를 키우고 조선소도 튼실하게 만드는,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를 부강하게 만드는 실력을 갖춘 자였다. 말하자면 배고픈 걸 면하게 해줄 인재를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고, 이것에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사람이 기꺼이 응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배고픈 걸 면해야겠다.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해야겠다며 사람들은 학교를 다녔다. 이런 열망을 품은 사람들과 학교는 궁합이 잘 맞았다. 별 탈 없이 학교는 날로 번창했다. 때리면 맞고 뭐라 하면 고개 숙이며, 사람들은 학교가 하라는 대로 잘 따랐다.

그러다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사람들의 열망도 시대적 소명도 조금씩 변했다. 하지만 학교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80년대 특히 9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사람들은 웬만큼 밥을 먹고 살 정도가 되었다. 경제적인 안정감을 누리면서,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순 없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고, 우리 모두에겐 인권이 있고, 모든 이는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하고, 민주적으로 세상이 운용되어야 한다 등의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근대적 시스템’을 근본에서부터 돌아보는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탈근대’ 담론이 싹트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무렵이다. 튼실한 기둥이 강고하게 버티고 있는, 절대 도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의 국가가 있고 국가의 목표가 있고 이 목표대로 사람들이 키워지고 움직이는 것이 근대였다면, 탈근대는 말랑말랑한 것. 액체 같은 것이라고들 했다. 액체는 어디에 담겨지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동그란 컵에 담기면 동글게 되는 것처럼, 그 사회 모양이 말랑말랑해서 강건한 기둥이 받치고 있는 게 오히려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둥이 없어도 되고, 흔들려도 된다. 이런 담론들이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권위나 움직일 수 없는 진리 따위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가 90년대 중후반이었다.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지만, 그전까지 작동되던 시스템은 여전히 강고했다. 교육시스템인 학교는 변함 없이 인재 양성을 내세웠지만 사람들은 다른 목표를 가지기 시작한 셈이다. ‘훌륭한 인재로 자라고 싶어.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도 물론 있지만 다른 다양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졌다. 학교의 목표와 학교에 오는 사람들의 목표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형성된 새로운 움직임이다. 그 전에도 교육의 위기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를 떠돌고 있었지만, 90년대 중반 이후에 나온 ‘교육의 위기’는 질적으로 다른 질문 속에서 나온 위기였다. 시스템 그 자체에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교육의 위기'는 어떻게 넘어서 타계할 수 있을까?

'전에 없던 교육의 위기'를 넘어서 방향이나 방법 또한 '전에 없던 것'이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가장 먼저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지금의 이 교육시스템이 과연 그 교육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던졌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육시스템 자체를 넘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에 방해되는 시스템은 무시하고, 오로지 교육의 본질적 소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매우 과격한 주장을 했다. 사회시스템이나 제도와는 무관하게, 시스템을 넘어서 교육을 해보자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무리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대안교육 하는 사람들이라고 통칭했다. 이들은 그저 말로만 하지 않고 시스템을 넘어서 '실체'를 세상에 내놓았다. 1996년도에 경남 산청에 문을 연 간디학교다.

당시 간디학교를 만든 사람은 아이들의 자살 소식을 들으며, 더 이상 지금의 교육을 내버려 뒀던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당시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금은 청소년 자살이 사회적 문제긴 하지만... 지금은 왕따나 학교폭력이나 이런 게 자살의 원인인데, 당시는 성적을 비판하여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애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진짜 행복을 지원하는 교육을 해보겠노라고, 만든 게 간디학교였다. 간디학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런 학교를 통칭하는 명칭도 없었는데, 뒤에 붙이기를 대안적인 학교라고 했다. 기존의 학교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대안학교라는 이름을 붙인 학교가 처음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그 학교는 국가인가도 안 받았고, 학력인정도 안되고, 국가의 지원도 없는 그런 형태로 시작했다.

간디학교는 경쟁, 학력주의 등에 대한 일종의 저항으로 만들어졌다. 경쟁을 안 시키겠다. 그 다음에 학력. 대학 입시교육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야말로 사랑하는 마음과 이 아이가 배움의 주제로 서게 만드는 교육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디학교의 교육철학이자 교육목표였다. 그렇게 처음 간디학교가 문을 열고 이어서 대안학교들이 생겨났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진짜 많이 생겼다. 한해에 열군데서 문을 열기도 했다. 대부분이 '교육의 위기'를 넘어서는 하나의 길로 시작한 학교들이었다.

그러던 대안교육 또는 대안학교에 새로운 요구를 가진 이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교육의 위기'를 넘어서려는 게 아니라, '위기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위기청소년을 만났던 사람들이었다. 그 무렵 위기청소년을 만나, 또는 지원하는 사람들의 대응은 주로 복지적 접근이었다. 상담이나 쉼터, 취업, 일자리 알선 등이 주요 활동내용이었다. 그러다 위기 청소년이야말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다. '이 아이들에게 상담도 필요하고 쉼터도 필요하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건 교육이야. 이 때 교육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것의 정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육이야' 하면서 위기청소년들을 돕는 배움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막 대안교육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때였다. 1999년 무렵이었다. '배고픈 아이들. 그다음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 그런데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는 교육.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든 학교가 마포 대흥동에 문을 연 '도시속작은학교'다. 위기의 아이들을 돕는 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위기의 아이들을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니, 지금 학교가 하고 있지 않은 다른 교육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하여 대안교육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아마 2000년도, 마포에 있는 대흥동에 진짜 작은 건물 2층에서 시작한 도시속작은학교는 건물 뒤편으로 작은 테라스가 달린 곳이었었는데, 그 테라스에 나가면 아이들이 피운 담배꽂초가 수북이 쌓여있는 그런 학교였다. 당시 설립을 이끈 이들

은 아이들을 혼내 가면서 또 같이 맞담배 피워가면서, 교육의 장으로 인도해 낸 훌륭한 교사들이었다. 대안교육이라는 흐름이 처음에는 교육의 위기를 넘어서려는 사람들이 만들어간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교육의 위기를 넘어서려는 움직임 속에 또 하나의 지류가 만들어진 거다. 위기청소년 내지는 위기 속에 내버려진 아이들을 대안적 교육으로 지원하는 흐름이었다. '도시속작은학교'를 선두로 주로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류의 배움터가 줄을 이어 만들어졌다. 이른바 대안학교는 주로 시골에 많았다. 학교를 세우는 이들이 돈을 많이 가지도 못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터전을 마련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또 처음 대안교육을 시작한 이들은 생태, 공동체 같은 가치지향을 가지고 있었고, 생태적인 교육, 평화교육, 공동체 교육을 하려면 같이 모여 사는 게 좋겠다. 기숙형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 시골에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위기청소년을 만나서 대안교육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위기청소년이 있는 곳에 학교를 만들어야 하니까 시골로 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도시의 한 귀퉁이에 작은 보금자리 같은, 학교도 아닌 학교를 만들었다.

## **대안교육, 공적인 지원을 받기 시작하다**

### **서울시대안교육센터의 출범**

2000년 위기청소년을 위한 도시속작은학교가 만들어질 무렵, 민들레도 아이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꾸렸다. 민들레는 사실 교육현장을 꾸릴 마음은 전혀 없었다. 책을 만든다던지 새로운 교육에 대한 담론이나 실천 등을, 어딘가에서 실천하고 있는 걸 주워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를 발신하는 메신저이자 매체가 되고 싶은 게 민들레였고, 단행본이나 잡지 민들레를 내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 민들레 출판사에 사람들이 찾아 왔다. 출판사가 그냥 일종의 커뮤니티공간이 됐다. 출판사에 사람들이 와서 책 만들고 수다 떨곤 했다. 돌이켜 보면 그때의 수다가 교육운동이 되기도 하고 커뮤니티 활동이 되기도 하고, 네트워크가 되었다. 허브나 플랫폼의 맹아 같은, 씨앗 같은 것이었다. 누군가 학교 만들고 싶으면 찾아와서 이야기 하고, 별다르게 뽀족한 답을 내 놓지는 못하지만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게 다였다. 모여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뭔가 실마리가 보이고, 사람들은 그 희미한 실마리를 붙들고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열어가다.

이렇게 실마리를 찾으러 오는 사람 중에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야말로 스스로 위기청소년이 된, 말하자면 내몰린 위기청소년이 아니고 스스로 위기청소년으로 된 아이들이었다. 떠밀려서 탈학교를 한 게 아니고 스스로 학교를 탈출한 아이들이, 자기도 살아야겠다는 그런 간절함과 에너지를 가지고 물어물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온 게 민들레 출판사였던 거다. 민들레 출판사는 그때까지도 현장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좀 특이한 출판사를 유지한 채 한참을 아이들과 동고동락했다. 출판사 사람들이 책 만들고 있거나, 혹은 손님이 와서 세상 얘기라도 나누면 아이들은 어느새 끼어들어 함께 하고 있었다. 공간이 넓지 않아 끼지 않을래야 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러다 한꺼번에 20명 가까이 오기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그때는 교육하는 곳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모이는 공간을 만든다고, 이름을 민들레 사랑방이라고 했다.

비슷한 시기에 도시속작은학교, 민들레 사랑방 등이 생겨났는데, 계기는 완전히 달랐다. 도시속작은학교는 완전히 작정하고 만든 거고 민들레는 작정을 했다기보다 어쩌다 만들어진 거였다. 그리고 하자작업장학교가 등장한다. 하자센터가 문을

연 게 1999년이다. 하자센터는 서울시의 청소년시설이다. 하자센터는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시설이었다. 정식 명칭은 청소년직업체험센터다. 서울시는 학교 밖에서 교육이 아닌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다 2000년도, 90년대 말 들어서면서 아이들의 진로가 다양해지면서, 학교가 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니, 트렌디한 진로교육을 해보기로 했고, 그것을 하자센터라는 특수한 시설을 만들어 실행에 옮겼다. 특히 위탁을 연세대 청년연구소가 맡게 되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간이 탄생하게 되었다. 하자는 시대를 반영한 청소년의 진로로 네 가지를 잡았다. 영상, 대중음악, 애니메이션, 디자인이었다. 그 당시 트렌드였다. 당시 서태지의 등장과 함께 영화를 포함한 영상세대도 출현했다. 영화감독이 돼야 되겠다. 또 만화가를 꿈꾸는 아이들도 많았다. 하자의 미덕은 이런 트렌드를 맛만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제대로 경험하게 도와주는 것이었다. '제대로 경험하게 하겠다'를 위한 설계로 '진짜 작업장'과 '맛보게 해주는 교사가 아닌 이 영역의 프로'들을 초대했다. 그래서 그 프로들의 작업장을 만들어줬다. 영상, 진짜 영화감독, 우리나라에서 진짜 영화감독으로 활약하는 사람,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 음악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작업장을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그들과 그 작업장을 만나게 해주었다. 청소년들은 그 사람들의 멋진 작업 풍경을 보는 걸로 매료되었다. (이게 교육에서 정말 중요하다. 아이들 앞에서 뭔가 폼 나게 하고 있는 것. 아이들로 하여금 나 저거 하고 싶어. 저렇게 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 작업장에 놀러오는 아이들이 주로 학교 밖 아이들이었다. 학교에 공문을 뿌리고 열심히 알렸지만 일반학교에서는 거의 오지 않았다. 학교 밖으로 나와 있던 아이들이 소문을 듣고 물어 물어 찾아왔다. 시간이 많은 아이들은 작업장에서 계속 죽치고 했는데, 그들도 학교 밖 아이들이었다. 개네들을 일컬어 하자에선 '죽돌이'라고 하고 하자에서 작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 프로를 '판돌'이라 했다. 판을 돌리는 사람이다 해서 판돌. 그렇게 죽돌들이 늘어나면서, 하자도 이 아이들을 위한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빈 고리를 채우는 교육적 지원도 하고 일상도 돌보는 곳으로 만든 게 하자작업장학교다. 2001년 정도 었을 거다.

2000년대 초반 서울에는 도시형 대안학교의 맹아라고 할 수 있는 하자작업장학교, 민들레 사랑방, 도시속작은학교가 있었다. 그 무렵 우리 사회는 '자퇴생의 증가'라는 새로운 숙제를 받아 안았다. 그 당시에는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부가 돌보지만 학교 밖으로 나오면 누구도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 지자체가 이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다. 이런 아이들을 돌보라는 게 뭐지? 어떻게 돌보아야 하지 같은 숙제를 안은 서울시는, 다시 연세대 청년연구소에 손을 내밀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당시 연세대 조한혜정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은 문제가 아니라 자원이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다 문제야. 쓰레기다. 폭탄이다' 하는 생각이 주를 이루던 무렵 이 슬로건은 파격이었다. 조금 따뜻하게 접근하는 이들도 이들은 위기에 놓여 있으니 돌봄이 최선이라 했다. 그게 상식이었고, 그 상식을 전복시킨 게 '학교 밖 청소년은 자원이다'였다. 일종의 혼돈의 시대에 혼돈의 시대를 자각하고 이건 아니야 하고, 정확하게 논리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이건 어쨌든 아니야 하고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미래의 원동력이라는 게 조한혜정 교수의 논리였다.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미래의 자원을 성장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일을 하는 곳으로 서울시에 제안한 것이 대안교육센터의 설립이었다. 학교 밖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교육적 지원이고, 학교 밖에서 교육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겠노라고 선언하고 시작한 게 대안교육센터다(이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꾼다). 센터는 '학교 밖 아이들에게 교육적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학교 밖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작은 배움터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직 학교라

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이 모여 '배움'이란 걸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을 지원하고, 또 그런 곳을 만들어 내자 했다. 그 때부터 민들레 사랑방, 하자작업장학교, 도시속작은학교가 서울시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공적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최초의 지원은 교사 1인 인건비, 그 다음에 사업비 아주 조금. 그게 현재는 2명의 인건비와 사업비 조금으로 늘어났다. 대안교육센터는 이 세 곳을 지원하는 일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장을 만들어 내는 일을 했다. 낮에는 비어있는 수련관 같은 곳을 이용해서 대안학교를 만들기로 하면서 강북청소년수련관 등의 수련관에 학교들이 생겨났다.

서울이라는 대도시 한 켠의 작은 배움터들에게 이런 공적지원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적지만 지속적인 재정지원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서울시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음으로 일종의 공적인 인정을 받는 배움터라는 위치도 갖게 되었다. 지원을 받는 대안학교들은 사회적 책임감과 공공성 유지라는 큰 숙제를 받아 안은 것이기도 했다. 자각했든 자각하지 못했든...

### 이름학교의 좌표는 어디?

이후 학교박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뀌고, 지원을 받는 현장도 4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들은 앞서 밝힌 대로 '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만든 대안학교'도 있고 그야말로 '위기청소년을 보살피기 위해서 만든 대안학교'도 있다. 초기의 도시형 대안학교들은 자신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방식이나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교육대상은 가능한 분명하게 가져가려 했다. 예를 들면 도시속작은학교는 진짜 위기청소년만 받았다. 그래서 학비도 안 받았다. 꿈틀학교, 꿈학교, 아름다운학교도 비슷했다. 그러다 2010년 전후를 기해 각 대안학교 학생들의 면면을 보면 비슷비슷 해졌다. 크게 차이가 없다. 오는 아이들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밝히려면, 지금 현재 우리의 포지션은 어디쯤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민들레는 센터의 지원을 받고 난 이후 여러 변화를 겪었다. 우리가 하는 활동도 살아 있는 생물처럼 해마다 진화했고, 찾는 아이들도 달라졌다. 특히 애시 당초 형식적 교육과정을 세우지 않는 걸 특징으로 했지만, 2006년 이후 1년제 교육과정을 가지고 학교 밖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업으로 오디세이학교라고 하는 캠퍼스쿨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진화하고 변모하는 가운데 놓치지 않는 '화두'가 있다. 우리는 민들레를 찾는 아이들을 특정하지 않는다. 누구든 여기서 성장을 꾀하겠노라고 하면 그를 환영한다. 다만 우리는 그들에게 자세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는 한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힌다. 우리는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 또 그렇게 성장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본인이어서 본인 스스로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다양한 자극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교육은 거기서 출발한다.

서울의 대안학교들은 저마다 나름의 교육과정과 문화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이름학교가 스스로의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묻고 답하고 싶다면, 교육이란 무엇인지, 그 교육의 넓은 바다에서 이름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 이룸학교와 공간 민들레가 함께하는 평가워크숍 1

<b>진행일시</b>	2017년 12월 19일(화) 15:00-18:00
<b>진행 장소</b>	정독도서관 내 공간 민들레
<b>참가자</b>	드림센터 김현수, 김현태, 박경아, 유선숙, 이민지, 황현영 공간 민들레 김경옥, 김유라, 윤홍설

**경옥** 여기서 제일 오래 되신 분이 누구신가요?

**현태** 제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선숙** 저는 2015년 5월에 왔습니다. 현태쌤이랑 2~3개월 차이나요.

**현태** 저는 2월에 왔어요.

**선숙** 이룸학교가 2014년 말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해서 된 걸로 알고 있고, 전에 이룸학교에 계시던 분은 육아 휴직으로 들어가 계시고 저희 둘(선숙, 현태)은 2015년 초에 와서 학교를 같이 운영했었어요.

**경옥** 그럼 드림센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태** 드림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 있어요. 그 안에 교육팀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경옥** 아, 그러니까 드림센터에 교육팀이 있고 교육팀이 이룸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위탁형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현태** 네, 검정고시 반도 운영하고 있어요.

**경옥** 그러면 이룸학교나 꿈에학교의 철학은 드림센터의 철학과 연동되는 거예요?

**경아** 그렇죠. 어떤 운영방침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 하위체계로 볼 수 있죠.

**경옥** 네, 조직도에서의 하위체계는 철학 속에서의 공유가 되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아** 제가 와서 좀 낯선 자의 시각으로 사실 아직까지 보고 있는데 특별히 기관에서 강조하는 철학은 없으세요. 어떤 방침 이런 것들이 크지 않고요. 오히려 이룸학교만의 것들을 저희 스스로 찾고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오래 된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옥** 선생님은 그럼 교육팀의 팀장이신 거예요? 드림센터 교육팀의 팀장이시고 선생님들이시고.

**경아** 꿈에학교에서는 교무부장의 역할을 해야하고 센터장님, 부장님이 교장, 교감의 역할을 하시고, 이룸학교에서는 대표 교사 역할입니다. 검정고시도 챙겨야하고. 그래서 하나를 놓고 몰입하기가 쉽진 않는데, 사무적인 관리자의 역할과 실제 학교의 교육철학과 비전을 같이 나누는 것도 중요한 역할 인 것 같아요.

**경옥** 그럼 검정고시는 꿈에학교나 이룸학교와는 별개로 또 검정고시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고?

**현태** 점프업 코스라고 검정고시 대비반이 있습니다.

**경옥** 꿈에학교, 이룸학교 드림센터 안에서 하는 검정고시 지원사업이 있구나.

**경아** 네. 거기에 이룸학교 친구들도 교집합이 있는거죠.

**경옥**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오신 분들의 공동된 고민거리라고 해야 하나? 질문은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 대한 고민도 하시는 거예요?

**경아** 오늘은 이룸학교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위탁형 대안학교는 워낙에 시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방침이 있고 운영

해야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도시형에 비해 고민하는 폭이 적은데,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가져가야 될 것들이 명확한데 이름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모습의 학교 모양이 되니까 오늘은 도시형 대안학교의 선생님들이 고민을 가지고 온거죠.

**경옥** 다른 분들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서로 보직은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어떤 때는 위탁형 했다가 어떤 때는….

**현태** 돈 경우가 있긴 한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경아** 바뀔 가능성은 있는 거죠.

**현태** 네, 항상 그런 있지만 보직과는 별개로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름학교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경옥** 네.

**현태** 담당하는 업무는 다르게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같은 공간에서 보는 사람들이어가고 팀 안에서 공유는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

**경옥** 그럼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게

**경아** 사실은 그 고민이 있고 또, 체계가 좀 더 잡히면 팀원 간의 보직이 바뀌어도 그 시스템이나 체계를 가져가면 좋은데, 이름학교가 2015년부터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제 15, 16, 17년. 3년차니까 그 체계를 좀 만들고 철학이나 비전을 공유하는 지점을 만드는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경옥** 제가 지도를 그렸으니까, 그럼 학교를 만들고 싶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선숙** 저희가 오기 전에 원래는 점프업 코스라고 검정고시 과정이 이름학교의 이름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을 2014년까지 하고 계셨는데, 2014년 10월에 팀장으로 부임하신 우수연선생님께서 검정고시 과정을 도시형 대안학교 이름학교로 만드셨고요. 그 때 계신 분이 지금 육아휴직 중이신 교윤하 선생님과 우수연 선생님 두 분이고 그 분들이 정리를 해 나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현태** 맨 처음에 도시형 대안학교로서의 개교를 시킨 분들이죠.

**선숙** 그리고 센터장님이나 부장님, 센터 전체에서도 필요성을 느끼셔서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검정고시 과정을 약간 학교방식으로 운영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 검정고시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섞고 있는데 ‘틀을 잡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서 만들지 않았나하고 추측하고 있어요.

**경아** 저는 작년에 위탁형 대안학교의 팀장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찾아가는 상담, 위기관리, 슈퍼비전 등 사회복지 쪽에서 위기청소년 상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시형 대안학교의 업무는 지금이 처음이라 운영이나 지도교사가 가져야하는 비전,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고민이 되는데 이런 것을 학교 선생님들과 어떻게 나눌지, 공감대를 넓혀가는 연수나 그런 작업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떨지. 이걸 개인적으로 여쭙볼 수도 있으니 나중에 선생님들이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 저희가 가져온 질문페이퍼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현태** 얘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희가 추려왔어요. 우선순위를 정해 온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답을 할까요?

**경옥** 제가 잠깐 전체적인 도시형 대안학교의 지도를 말씀드릴게요. 맥락을 말씀 드리면, 지금 ‘위기청소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에서 대안교육, 대안학교라는 말이 쓰인 것은 1990년대 중반 이렇게 말하거든요? 1995년, 1996년. 올해를 20주년이라고 얘기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년이 20주년이 되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안학교

역사에서는 올해, 내년이 되게 중요한 해가 되는데, 20살이 되는 것은 어른, 성년이 되는 전환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때예요.

20년 전에 처음 우리나라에 대안교육이라는 말이 생겨날 때에, 그때는 대안교육 내지는 대안학교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위기청소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위기 교육이었던 거죠. '교육이 위기다.' 그전에도 '교육이 위기다.'라는 말은 대단히 많이 있었고 언제나 위기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안정 된 건 언제나면 1970년대였어요. 그때 안정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학교 가는 것에 대한 일종의 열망 같은 게 그게 비록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학교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존중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 개별로 보면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목표나 이런 게 그 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목표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1970년대 당시 학교교육의 목표라고 하면 국가의 목표이기도 했는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때 훌륭한 인재는 1970년대 우리나라가 목표로 삼았던 게 부국강병이었으니까 현대사 동차도 굳건하게 만들고 조선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좀 더 경제적으로 일어섰으면 좋겠다. 배고픈 것을 면했으면 좋겠다. 이게 국가의 목표였던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 또한 '배고픈 걸 면하게 해줄 인재를 키우는 것' 이게 교육의 목표였고, 이것에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은 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배고픈 걸 면해야겠다.',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학교에 왔고 다들 이런 열망을 가지고 학교를 갔기 때문에 학교하고 학교에 온 사람들의 공감이 잘 맞았어요. 공감이 잘 맞았으니까 학교가 제일 안정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1980년대 넘어오게 되면서 그 소명을 학교가 다 했다고 해야 하나? 일종의 교육 목표가 달라진 거죠. 1980년대 특히,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때가 되기도 하고 그 무렵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면 '탈근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탈근대라고 하는 것은 근대는 기둥이 확고하게 있어서 이 기둥으로 딱 딱한 집이 지어지는 것. 국가가 있고 국가의 목표가 있고 이 목표대로 사람들이 키워지고 굴러가고 이런 것이 근대였다고 한다면, 탈근대는 '말랑말랑한 근대', '액체근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액체는 어디에 담겨지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동그라미 컵에 담기면 동그라미 모양이 되고 그런 것처럼, 탈근대, 액체근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모양이 말랑말랑해서 기둥이 해체 되도 된다. 흔들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어떤 권위에 대한, 그 다음에 '이게 맞아.'라고 했던 것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는 때가 1990년대 중후반이었어요. 그러면서 국가의 목표는 여전히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학교의 목표도 그러했고. 근데 학교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훌륭한 인재가 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거야' 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보다는 다양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목표와 학교에 가는 사람들의 목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다른 때도 교육의 위기라는 말이 많이 있었지만 '교육의 근본적인 위기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 교육의 근본적인 위기는 어떻게 타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여러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 무리들 중에는 전교조선생님들도 계셨을 거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셨을 텐데, 또 어떤 무리가 있었느냐면 학교라는 공간이 그야말로 한 개개인의 소명, 목표를 가지고 배워야 한다면 그것을 최대한 지원하는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제도와는 무관하게 그냥 이 개개인의 배움의 목표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그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넘어서 교육을 해보자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무리들을 일컬어서 '대안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사회의 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 1990년대 중반이었고 그것이 눈에 딱 나타난 게 뭐냐면 '간디학

교'라고 하는 학교의 설립이었어요. 간디학교가 생겨난 게 1996년이거든요. 그 때 당시 애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왕따나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인데 그때는 무슨 이유가 많았나면은 경쟁이 엄청 심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디학교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행복이 성적순일 수 있느냐, 정말 그 아이의 행복을 지원하는 교육을 해보겠다.' 해서 만든 게 간디학교인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디학교 같은 학교를 일컬어서 이런 학교를 뭐라고 부를지 명칭도 없었는데 후에 이름을 붙이기를 '대안적인 학교다.', '기존의 학교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졌다.'해서 '대안학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1996년에 처음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학교는 국가의 인가도 안 받았고 인가를 안 받으니까 졸업장도 없고 학력인정도 안되고 국가의 지원도 없고 이런 형태로 시작을 한 거예요.

간디학교는 그야말로 경쟁, 학력주의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저항으로 만들어진 학교 거죠. 경쟁을 안 시키겠다. 그 다음에 학력, 대학 입시교육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야말로 사랑하는 마음과 이 아이가 배움의 주체로 서게 만드는 교육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디학교의 교육철학이자 교육목표였어요. 그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간디학교가 문을 열고 그 뒤에도 학교들이 생겨났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진짜 많이 생겼어요. 한해에 10개씩 이렇게 생겨났는데 그때 '교육이 위기다.'해서 만들어진 학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때 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나면 위기청소년을 만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위기청소년을 만나는 또는 지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했나면 교육적 접근을 했다 보다는 상담접근. 그 다음에 쉼터, 취업, 일자리 만들어 준다던지 실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접근방식이 그런 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위기 청소년에게도 교육이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아이들에게 상담도 필요하고 쉼터도 필요하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건 교육이야.', '교육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교육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위기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하는 곳을 만들어야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이게 언제였느냐면 1999년 무렵이었어요. 이때 저는 민들레 출판사에 있었는데 민들레 출판사에 염병훈 선생님이 찾아왔었어요. 007가방 같은걸 들고, 지금도 007가방 같은 것 들고 다니는데, 염병훈 선생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간디학교나 그런데 가는 애들은 어떤 의미에서 배부른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배부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내 소명이 아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나는 배고픈 아이들. 그다음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 그런데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그때 당시 염병훈 선생님이 가지신 목표였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걸 대안교육으로 풀고 싶다.'라는 게 선생님의 목표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제 기억에 2000년도일거예요. 그 때 만든 게 '도시속작은학교', 도시속작은학교가 마포에 있는 대흥동 진짜 작은 건물 2층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그 학교에 처음 가봤을 때, 되게 좁은 이 교실에 반 정도 되려나? 건물 뒤편으로 테라스가 달려있는 학교였는데 테라스에 나가면 담배꽂초가 엄청 많이 쌓여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 때, 지금은 청소년재단에 상임이사하고 있는 황인국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었거든요? 두 사람이 만들었는데 진짜 황인국 선생님이 애들 때려가면서, 같이 맞담배 피워가면서 애들을 일종의 교육의 장으로 끌어드린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대안교육이라는 영역이 처음에는 교육의 위기를 넘어서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지만 그 교육의 위기를 넘어서려는 움직임 속에 또 하나의 지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뭘냐면 위기청소년 내지는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대안적인 교육으로 지원하겠다.', '도와주겠다.'하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특히 도시속작은학교가 생기고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운영이 됐는데, 아까 이야기한 교육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대안교육을 시작한 사람은 주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그런 학교는 어디에 만들어졌나면 시골에 만들어졌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돈을 많이 가진 분들도 아니었고 서울에다가 일정하게 터전을 마련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로 많이 가게 됐고, 또 하나 중요한건 뭐

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교육 철학 중에 생태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런 가치지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태적인 교육, 평화교육, 공동체 교육 이런 걸 하려면 '같이 모여 사는 게 좋겠다. 기숙형 학교이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시골에다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위기청소년을 만나서 대안교육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위기청소년이 있는 곳에 학교를 만들어야 하니까 시골로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시의 한 귀퉁이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마포에 있는 대흥동 한 귀퉁이였던 거죠.

그 다음에 민들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민들레는 사실 현장을 할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민들레는 책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교육에 대한 담론이나 실천이나 이런 것. 우리가 실천하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서 실천하고 있는 걸 주워 담아서 그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발신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은 게 민들레였고,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민들레 출판사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워낙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저희는 1998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냥 민들레가 일종의 커뮤니티공간이 된 거예요. 자기가 걱정하는 것도 아닌데 출판사를 했는데 출판사에 그냥 사람들이 온 거예요. 출판사에 사람들이 와서 책 안 만들고 수다 떨고, 그때는 수다가 교육운동이 되기도 하고 커뮤니티 활동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허브라는 것의 맹아, 씨앗 같은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영병훈 선생님이 학교 만들고 싶다고 찾아와서 이야기 하고, 또 별다르게 뽀족한 답을 내 놓지는 못하지만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게...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뭔가 실마리가 보이기도 하고 그 실마리를 붙들고 가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게 1999년 이때였는데 이렇게 실마리를 찾으러 오는 사람 중에 청소년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스스로 위기청소년이 된 말하자면, 내몰린 위기청소년이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위기청소년으로 된. 자기들은 탈학교 청소년이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스스로 자의식을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니까 떠밀려서 탈학교를 한 게 아니고 스스로 학교를 탈출한 아이들이 그야말로 열정과 자기도 살아야겠다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물어 물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온 게 민들레 출판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민들레 출판사는 그때까지도 현장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청소년들이 모여서 우리는 책 만들고 있으면, 혹은 손님이 와서 얘기 나누고 있으면 자기네도 쬐요. 왜냐면 공간이 넓지 않았으니까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끼리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불려드려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이야기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애네 들이 한꺼번에 오는 숫자가 20명 가까이 된 적이 있어요. 출판사가 정말 좁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감당이 안됐던 거죠. 그래서 출판사에 계속 데리고 있기는 그러니까 '애들을 따로 떼서 자기들끼리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주자.'라고 했고 그때는 '교육하는 곳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주자.' 해서 만든 곳을 '민들레 사랑방'이라고 했어요. 그게 2000년도에 만들어 졌어요. 도시속작은학교, 민들레 사랑방 등이 비슷한 시기에 생겨났는데 생겨난 계기는 완전히 다른 거죠. 도시속작은학교는 완전히 작정하고 만든 거고 민들레는 작정을 했다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그렇게 공간을 마련하게 됐죠.

도시속작은학교 그 다음에 민들레, 제 3의 뭔가를 도시형 대안학교라고 명명하게 된 것은 2004년도 부터예요. 도시형 대안학교라는 분류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일단 도시속작은학교가 생겨났고 민들레 사랑방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하자가 있는데 하자센터가 문을 연 게 1999년이예요. 그 무렵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큰 변화가 있던 시기인거예요. 하자센터가 만들어진 게 드림센터랑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위탁을 준 일종의 특수시설인거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데 하자센터는 세상에 없던 시설이었어요. 드림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하자는 정식 명칭이 '청소년직업체험센터'예요. 1990년대 말, 2000년도 이렇게 들어서면서 아이들의 진로가 다양해지고 이런 진로에 대한 지원을 하는 활동을

해야겠다고 하고 서울시가 특수시설을 만든 게 하자인데 이 '하자를 누구에게 위탁을 줄 건가?' 하면서 공모를 받았는데 그 중에 대상이 된 게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조한혜정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너네하고 싶은 대로 설계를 해봐라.' 이렇게 하고는 말았는데 조한혜정 선생님이 기획을 한 게 어떤 거였냐면 그 때의 기획으로선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지금 직업체험센터는 소방관을 체험한다든지, 바리스타를 체험한다든지, 제과제빵 체험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큰 트렌드를 하자 가 네 가지를 잡았어요. 영상, 대중음악, 목공?, 디자인하고 글쓰기인가? 네 가지 정도였는데. 이게 되게 그 당시에 트렌드였어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때 서태지 나오고 그런 때여서 또, 영화가 전성기였어요. '영화감독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만화를 해야 되겠다.' 만화가를 꿈꾸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민들레도 만화가를 꿈꾸는 아이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때 메가트렌드가 그런 거였는데 이것을 '맛만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제대로 경험하게 하겠다.' 이게 하자센터의 큰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대로 경험하게 하겠다.'를 설계해낸 것이 뭐냐면 이걸 제대로 경험하게 하는 '진짜 작업장' 맛보게 해주는 교사가 아닌 이 영역들의 프로들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들의 작업장을 만들어줬어요. 영상, 진짜 영화감독, 우리나라에서 진짜 영화감독으로 활약하는 사람,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 음악 하는 사람, 이렇게 프로들의 작업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되게 멋졌죠. 흥대에서 놀던 사람들을 하자로 불러서 작업장도 없던 건물건들하던 사람들의 작업장을 만들어주니까 그분들이 엄청 멋지게 해 낸 거예요. 청소년들은 그 사람들의 멋진 작업 풍경을 보는 걸로 매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육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뭔가 품 나게 하고 있는 것. 이게 정말로 교육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애들로 하여금 '나 저거 하고 싶어. 저렇게 해보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하자가 처음에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게 되게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작업장이 4개가 굴러가고 공문을 뿌렸겠죠? 일반학교에다가? 근데 정작 이 작업장에 놀러오는 애들은 학교 밖 아이들. 공문을 뿌렸는데 일반학교에서는 잘 안 오고, 학교에 나와 있던 아이들이 소문을 듣고 물어물어 찾아 온 거예요. 이 아이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작업장에서 죽치고 개기는 아이들이 생겨났어요. 개네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죽돌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자에서 작업장에 있는 이 프로들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판돌', '판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판돌. 지금도 판돌이라고 해요. 이 단어의 어원이 그때 나온 건데 그래서 판돌과 죽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가 하자 안에서 죽돌들이 생겨나서 죽치고 있으니까 하자도 이 아이들을 위한 일종의, 작업장에 가서 작업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장 사이사이에 교육적으로 이 아이들의 일상을 돌보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만든 게 하자작업장학교였어요. 하자작업장 학교의 최초의 모습은 각각의 작업장에서 자기 작업을 하고 사이사이에 인문학 같은걸 공부하고 이게 하자작업장학교의 최초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생긴 게 2001년 정도 였을 거예요. 이렇게 도시형 대안학교의 맹아라고 할 수 있는 도시속작은학교, 민들레 사랑방, 하자작업장학교가 생겨났어요. 이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민들레는 민들레 사랑방 교육과정 이런 게 없었어요. 아가 이야기 한 것처럼 되게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는 아이들이어서 물어물어 찾아온 애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걸 조금만 톡톡 건드려주거나 하고 싶어 하는걸 연결해서, 검정고시가 필요하면 검정고시를 도와줄 사람, 물리학공부가 하고 싶다면 물리 공부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세 개의 학교가 생겨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생겼느냐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생겼어요.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 이름은 '대안교육센터'였어요. 대안교육센터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 세 학교가 있을 무렵에 자퇴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자퇴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그 당시에 지금도 비슷하긴 한데, 그 당시에는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청이 돌보지만, 교육부가 돌보지만 학교 밖으로 나오면 누구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 아이들을 돌봐야 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게 뭐지? 어떻게 돌봐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서

올시가 그 프로젝트를 누구에게 줬냐면 또, 조한혜정 선생님께서 준거예요. 그래서 조한혜정 선생님이 생각한 게 뭐냐. 그 때 내건 catchphrase가 뭐냐면 '학교밖학생이, 학교밖청소년이 자원이다.'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더 공고했던 게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다 '문제아다. 쓰레기다. 폭탄이다. 또는 위기청소년이기 때문에 그저 돌보기만 해야 한다.'가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식을 전복시킨 게 조한혜정의 '학교밖청소년은 자원이다.' 왜냐하면 이런 혼돈의 시대를 '아니야.'하고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사실은 미래의 원동력이라는 게 조한혜정선생님의 논리였어요. '학교밖에 있는 미래의 원동력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성장시키는 일을 대안교육센터가 하겠다.', '성장시키는 건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교 밖 아이들에게 교육적 지원을 하려고 만들어진 게 대안교육센터였어요. '학교 밖 아이들에게도 교육적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그 질문을 가지고 '학교 밖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맹아가 있으면 그들을 돕거나 그런 학교밖청소년을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곳을 만들어 내는 일을 대안교육센터가 하자.'라고 하면서 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시속작은학교, 민들레, 하자작업장학교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최초의 지원은 교사 1인 인건비, 그 다음에 사업비 아주 조금. 지금도 아주 조금이지만 그게 현재는 2명의 인건비와 사업비 조금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대안교육센터가 시작한 게 이 세 곳을 지원하는 일과 함께 이 세 곳을 일종의 모델까진 아니지만 이곳들을 계기로 해서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 일을 한 거예요.

도시 안에 공간이 있어야지 학교를 만들 수 있으니까 수련관이나 이런 데는 낮에는 애들이 학교 가고 없으니까 비어있는 수련관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학교를 만들자는 생각에 당시 2002년, 2003년도 수련관에 대안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북청소년수련관 이런 수련관에 학교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그 시작이었고 그러면서 민간이 만들기도 하고 지금은 대안교육센터의 후신인 이름이 바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네트워크 되어 있는, 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거의 50개 가까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서울시에 지원을 받고 있는 50개 가까운 학교들은 아까 얘기한 '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만든 대안학교도 있고 그야말로 '위기청소년을 보살피기 위해서 만든 대안학교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초기에는 이 두 개의 성격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도시속작은학교는 진짜 위기만 받았어요. 그래서 학비도 안 받았어요. 꿈학교도 비슷한 거였고 꿈학교도 비슷하고. 그래서 돈도 안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미산이나 이런 데는 돈도 많이 받고 이런 데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가 한 2010년을 고비로 해서 학생들의 면면을 보면 비슷비슷 해졌어요. 섞인 거예요. 도시속작은학교는 지금 위탁형만 하고 있고 도시속작은학교에서 분리 되서 나온 '아름다운학교' 엄병훈 선생님이 분리되어 나와서 아름다운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아름다운학교도 위기청소년만 만나다가 아마 2009년, 2010년을 분기점으로 위기청소년만 만나는 게 아니고 '서울에도 작은 도시형 대안학교가 있어.'라고 소문이 나니까 간디학교나 이런데 보내려던 부모들이 그런 애들이 아름다운에도 보내고 민들레도 보내고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애들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섞여있는 상태? 이런 게 현재 서울에 있는 도시형 대안학교의 상황인거고...

그 중에서 이름학교는 어떤 포지션으로 시작을 했는지 사실은 잘 모르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런 맥락 속에서 이름학교는 어떤 맥락이 이어지는지. 근데 우소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안교육센터에서도 일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도시형 대안학교의 흥망성세를 잘 아시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아시고 해서 아마 우소연 선생님은 어떤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현태** 드림센터라는 곳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기관이라는 모토라고 할까요? 그런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안학교라면 정말 힘든 친구들, 어렵고 힘든 친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엄병훈 선생님이 하셨던 거랑 비슷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걸 목표

로 만들었던 게 이름학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죠?

**선숙** 그거랑 더불어서 말씀하셨던 건 드림센터가 특화시설이니까 아무래도 수련관에 혼재되어 있는 대안학교들이 교육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니깐 그런 부분의 모델을 만들어서 보급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경옥** 아,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이 되고 싶은?

**선숙** 네, 그런 모델. 그리고 위탁형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도시형 쪽을 집중적으로 많이 보셨고 운영을 해보셔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것의 일환으로 퍼실리테이션 방법을 활용해서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길러내자.'라는 것을 염두 해 두고 작업을 하셨죠.

**경아** 지금 말씀 해 주셨듯이 위기청소년이나 자기의 고민을 가진 청소년들이 혼재되어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경옥** 지금은 거의 다 마찬가지로요.

**경아** 워낙에 지역적인 특성도 있어서 도시속작은학교나 노원처럼 위기청소년의 면모를 다 갖춘 아이들만 오진 않는 것 같아요. 학교 밖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이긴 한데 경제적인 취약성이 그렇게(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학교에 오는 친구들을 특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옥**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안학교라는 것발을 들었을 때에 강남의 엄마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강남의 엄마들이 쳐다보는 대안학교는 주로 어디였나면 이우학교 같은 곳이었지 드림센터에서 하는 도시형 대안학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2007, 2008, 2009년 쯤 되면서 강남에 있는 엄마들도 그런 대안학교를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도시 안에 있는 작은 대안학교들이 성과를 보이면서, 일정한 교육적 성취를 이뤄내면서 소문이 나니까… 처음에는 대안학교에는 부모 모르게 애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부모 모르게 아이들을 데려오는 곳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람다운이나 꿈틀도 전부 부모교육을 하니까. 일종의 부모의 보호 내지는 동의하에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학생들이 이름학교 뿐만 아니고 다 혼재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름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민들레에 있으면서 저는 가끔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괜찮고, 특강을 듣는 것도 괜찮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어떻게 전설을 계승하고, 예를 들면 우소연 선생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풍을 가지고 학교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계승과 그걸 구현하려면, 교육적으로 그걸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내부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 속에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번 씩 회의를 하거든요. 교사회의를 하는데 그 시간이 교사 교육의 시간이기도 하고 학교를 만드는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단순히 실무적인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워크숍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각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면에서 결국은 내부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 그때 일어나는 쟁점을 함께 토론하고 할 건가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토론을 잘 하려면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해요. 지식이 있어야 하고 관점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토론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냥 7살 어린 애들보고 토론하라고 하면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관점과 정보가 있어야지 토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토론을 잘 하려면 그런 공부의 필요는 필요하죠. 그 공부도 책도 읽어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가능할 텐데. 왜 민들레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신건가요?

**경아** 객관적인 시각으로 저희 상태를 진단하고, 말씀대로 남은 사람들이 구현해 나가는데, 전부 남은 사람들이 만들어 가야하는 상황이니깐 저희가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듣고 싶은 지점이 있었던거죠.

**선숙** 염병훈 선생님은 저희랑 많은 것들을 했어서… 원탁토론회도 해주셨고 교사교육도 해주셨고 그래서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이번에 염병훈 선생님이 계신 기관에서 진행한 심포지엄에 가서 경옥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전에 저희 학교에 오셔서 평가해 주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딱 집어서 이야기 해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께…

**경옥** 제가 뭐라고 했는지도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하하

**선숙** 그래서 팀장님께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민들레 선생님이 해주시면 어떨까요?'라고. 그래서 팀장님께서 연락을 해 보시겠다고...

**경옥** 저는 이런 자리가 언제나 기꺼워요. 좋아요. 뭔가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언제나, 시간만 가능하다면 언제나 좋고, 어떤 방식으로든 괜찮고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서로 응원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아** 저는 이름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나 대안학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간디학교든 도시속작은학교든 위기청소년이 있고 거기에 어떤 교육적인 필요성이나 생각하신 바가 있고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들. 태동한 것들. 이름은 기관이 먼저 있었고 기관의 사업으로서 사실은 청소년 사업? 청소년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무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속에서 '시설형, 도시형 대안학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던 거죠. 그 후에 '대상자 모집과 이런 것들이 따라 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점을 잡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명확했고 그런 만남이랑 태동이 있고, 거기에 틀을 가져가면 사실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쉬운데 실제 '세팅이 먼저 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아이들을 담을까?'하는 고민들이 따라 온거죠.

**경옥** 그건 전 좀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2014년이라고 하는 시점은 아까 이야기 한 위기청소년이거나 아니거나 아니라 어떤 형태든 뒤섞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우수선 선생님 또한 그 현상을 잘 알고 있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을 가지고, 빵빵한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 이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가능하면 좀 더 '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소외계층의 아이들, 또는 힘든 아이들이 오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지만 그런 아이들만 올 거라는 것은 사실 이미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할 필요는 오히려 없지 않았을까? 지금에 와서는 아름다운도 그렇고 꿈틀도 그렇고 민들레도 마찬가지고 위탁형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위탁형을 보고도 좀 힘들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생들이 꼬리표를 달고 오잖아요. 말하자면 문제아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오는데 그 꼬리표를 달고 오는 아이들은 교육적인 성장을 만들어 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교육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돌보는 것과 교육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돌보는 것은 있는 상태 그대로를 인정하고, 상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돌봄인 건데 성장은, 교육은 뭐냐면 어떤 목표지점으로 데리고 가는 게 교육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교육이라고 하는 건 목표지점으로 끌고 가는 거였어요. 끌고 가는 시점이 먹히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애들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오고 싶게 해야겠다. 저기에 가고 싶게 하겠다.' 이게 최근 교육의 패러다임인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동기화 시킨다. 배움의 주체로 서게 한다. 이런 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건데, 배움의 주체로 설 때 열등감이 있으면 배움의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배움의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배움의 주체로 선다는 건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되고 싶은 게 있는 상태. 하고 싶은 어딘가가 있는 상태.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있는 상태. 이게 배움의 상태로 된 거거든요. 배움의 존재로 된 거거든요. 그런데 꼬리표가 붙어. '나는 문제아야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상태면 나는 문제아야라고 하는 이 낙인을 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낙인이 떨어지지 않는 한 배우는 자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 지난하게 지난하게 있어야 하는 거죠. 위탁형 대안학교는 이런 꼬리표를 붙여서 와요. 그러니까 교육이 이루어진 다기 보다 이 꼬리표를 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교사들을 선부르게 뭘 하느냐면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아이들은 도망가고 힘들어지고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꼬리표를 붙인 곳에서는 돌봄은 이루어질 지언정 교육은 일어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위기청소년을 설령 말는다고 하더라도 '우리학교는 위

기청소년을 만나는 학교야'라고 선언하는 것은 비교육적인거죠.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안 되는. '누구나 와도 돼.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이런 도움을 받고 싶으면 누구나 와,' 여기서 A라는 아이가 온다고 하면 A아이는 위기청소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주는 저게 먹고 싶어서 온 거야' 이게 돼야지 저걸 먹는 거예요. 위기청소년이라는 자의식을 달고 오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내놔도 저걸 먹는 순간 내가 더 위기청소년이 되기 때문에, 그 꼬리표가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이걸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일종의 방어기제가 작동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진 않을 거잖아요. 이걸 말로는 표현 못해도 이 심리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저는 이름학교가 절대 그런 것을 선언하면 안 된다. 표시하면 안 된다. 그냥 '우리학교는 이런, 이런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하면 되는 거지 '이런 아이들을 위한 학교입니다.'를 선언하는 순간 교육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야기 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 특정한 대상을 상징하지 않고 시작한 게 오히려 교육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름학교를 하신 분들이 그걸 상징하지 않고 했는데 그냥 '이 좋은 시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해보자.'라고 했음에도 계속 어떤 특정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시설이 그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그런 아이들이 와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일종의 강박 같은 것을 가지고 교육내용이나 교육목표나 그런 것들을 표방했던 건 아닐까요?

위탁형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학교 안에 대안교실도 마찬가지로요. 학교 안에 대안교실도 꼬리표 붙여서 보내거든 대안교실로. 여기 오는 아이들도 사실 똑같아요. 위탁형 대안학교에 가는 아이들이나, 대안교실에 가는 아이들이나 여기 오는 아이들이나 떼놓고 보면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오는 애들은 꼬리표를 달고 온 게 아니고 그냥 민들레를 선택한 거예요. '나 이거 해 볼래.'하고 진짜 '해 볼래.'하는 이 에너지가 아주 많지 않아요 그 순간은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출발하게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같은 아이들인데도 출발선을 다르게 만드는 게 학교들이 '우리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학교입니다.', '우리는 어떤 아이들을 위한 학교입니다.'를 표방하는 게 어쩌면 오히려 출발선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드림센터가 정말 좋은 조건이라 생각해요. 정말 좋은 시설은 복덩이거든요. 그런 좋은 시설에서 애들이 대안적인 교육을 받는 것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위치도 좋고 시설도 좋죠. 그래서 저는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던 이른바 위기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오고, 섞여서 오는데 굳이 어떤 특정 대상을 염두 해두고 교육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 결과적으로도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러하다고 생각해요.

**경아**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지난번에 내부 강사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는 최근들어 경계선이나 지적 발달의 문제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경옥** 그런 아이들은 많죠.

**경아** 학교 운영 자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대비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위기를 상징하지 않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그게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오는 대상들이 실제 인지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라면...

**경옥** 그죠. 근데 뭐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 공간 민들레. 민들레는 처음에 민들레 사랑방으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민들레 사랑방은 교육과정이 없었어요.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얼기설기 만들어주는 것. 그런데 2004년, 200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에너지가 있는, 뭔가 목표의식을 가진 애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기력한 또는 위기에 처해있는 아이들도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애들이 달라진 거죠. 오는 아이들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자, 학생들의 성향이 달라졌으니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거죠. 이런 애들을 불러 모으다가 아니고, 특수학교처럼 이런 아이들에게 최적화한 학교여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큰 줄기는 있어요. 저희가 내세우고 있

는 슬로건은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린다는 건, 저는 이게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수준이 낮은 높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경계선이건 아니건 폭력성이 어떤 시간에 한 사회의 시민으로 자기의 자립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일종의, 우리가 무슨 대학 입시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희의 큰 슬로건인데. 그런데 어쨌든 민들레는 인문학 중심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인문학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했어요. 일종의 도구가 프로젝트인거예요.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강력한 도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자, 2017년도에 아이들을 받았어요. 누구누구만 와라 하고 한건 아니지만, '민들레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와라!' 하고 뚜껑을 열고 보니 말씀하신대로 경계성, 피해자, 이렇게 관계에 찌든,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올해의 프로젝트활동은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기획이 들어 가야되는 거죠. 기존에 프로젝트활동은 이렇게, 이렇게 해 왔는데 목표 중심이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관계를 힘들어한다면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운영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획회의가 들어가 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지 프로젝트 중심으로 한다? 이 도구가 별 의미가 없으면 도구는 바뀌도 되요. 그거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도구가 뭘까? 아까 제가 하자 작업장 학교에 네 개의 작업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프로들이 네 개의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난 거죠. 그것처럼 선생님들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계신지 또는 드림센터라고 하는 이 좋은 공간에는 어떤 도구가 있는지 또는 어떤 도구의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도구는 장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착되어 있는 도구를 가지고 올해 온 아이들과는 어떻게 만날 건가는 그 해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만들어 낸 게 2006년도부터 교육과정을 만들었어요. 무기력한 애들도 오고하면서 스스로 요구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드디어 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요구를 못하니까 애네 들이 출발선에 설 수 있게 스스로 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게 일 년의 교육과정이었어요. 그래서 1학기는 주로 스스로 요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이라고 해야 하나? 그걸 장착하게 하고, 2학기가 되면 조금 요구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1년의 세월을 2006년부터 해서 제가 10년 가까이 하고 났을 때, 2014년 정도 됐을 때 엄청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우린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애들이 불과 1년인데도 성장을 한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 때 어떤 요청을 받았냐면 오디세이학교 요청을 받은 거예요. 저희는 안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애들은 적지만 우리의 실천이, 아까 우수연샘도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한 것처럼 모델이 돼서 공교육하고 접점을 만들고 공교육이 변화되면 좋겠다는 저희의 큰 소명이예요. 그래서 오디세이가 연락이 왔을 때 기뻐했어요. 2014년도부터 TF팀에 들어가서 같이 의논해서 2015년부터 스타트를 한 거예요. 2015년, 2016년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완전 패재를 불렀어요. 그냥 학교 밖 애들보다 공교육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보내다가 오디세이를 선택해서 온 아이들의 변화가, 성장이 아주 눈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잘한다.'는 교만에 빠진 거죠. 올해는 오디세이학교를 하는데 지금 엄청 고민이 많아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온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까? 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거기에 프로젝트 활동이라 하더라도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야하는데 저희가 그냥 믿는 마음으로 고고싱한 거예요. 하고보니 지금에 와서도 12월 마무리해가는 즈음에 와서도 되게 구멍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한명 한명씩 자기 책을 만들거든요? 근데 '왜 책을 만들어야 되요?', '왜 억지로 만들게 하세요?' 이런... 지금까지 그런 애들 한명도 없었어요. 한 10월 달쯤 되면 우리가 어떤 권유를 제안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힘에 부치니까 도와주세요.', '하지 못하겠어요.', '왜 억지로 시키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들으면 당연히 된다. 이런 일종의 관계가 만들어져야하는데 올해는 그게 잘 안됐어요. 100%가 아니고 한 60%? 50%가 안됐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미스가 많았다. 그 미스가 뭘까? 아이들에 대한 진

단을 못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올해는 특히 어떤 경향성이 뚜렷했다면 이전, 작년까지는 자기가 우주에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되게 자기중심적인 아이들, 그래서 조금만 물꼬를 터주면 ‘아, 나만 중심이 아니고 애도 중심이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고 마음을 바꾸는 아이들 그래서 관계가 잘 풀리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그냥 내가 우주, 다른 우주는 없는 거예요. 자기 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듣고 관계도 자기에게 필요한 관계만 맺고 상호하는 것을 모르는 아이들. 경험을 안 해본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랐던 거죠. 표면적으로 이렇게 심한건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막 상호적이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는 애들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출발선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멀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달린 거죠. 그거를 한 9월 달 정도에야 알았어요. 뭔가 펑크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럴까 진단해보니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때 출발선이 다르니까 한명을 이렇게 챙기자 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이렇게 바뀌도 이미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인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반성할 점이 엄청 많아요. 내년에는 이제 그런 거를 보완하는 한 해를 어떻게 갈 건가, 내년에 오는 아이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면 1년 과정이기 때문에 3월 한 달을 엄청 빡세게 하는데 그 3월 한 달은 민들레에서의 배우는 자로 자기를 전환시키려는 전환 작업을 빡세게 하는 게 3월 한 달이에요. 그래서 3월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 배운다는 건 뭔가 지금까지 너네가 배운 건 어떤 거였고 민들레에서 배울 건 어떤 건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고서는 그 설명을 가지고 제주도로 3주를 가요. 제주도에 가서 3주 동안 사는거죠. 제주도에 있는 3주 동안이 민들레 1년을 압축한 리듬으로 해요. 그 안에서 작은 프로젝트도 해보고 마을 조사하는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노동도 하고 밥도 해먹고 이런 걸 하면서 민들레에서 배우는 자로 전환되는 것을 3월 한 달을 한다. 이게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러고 나서 4월 한 달을 시작하는데 이게 올해는, 그 부분을 크게 생각 안했는데 내년에는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제주도에 가 있는 동안, 관계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상호작용하는 거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걸 3월 한 달 내내 할 생각이예요. 작전을 바꿀 생각이예요. 이런 거는 사실은 그때 그때 제대로 진단이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까를 함께 의논하고 해야지 바뀌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18년도 2월이다. 그러면 2018년도의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갈 친구들의 리스트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아이들에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올해는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름학교도 그런 자료가 있다하면 그걸 가지고 한번 함께 교육과정에 대한 의논을 하고 이런 거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들어가면 되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민들레는 어쨌든 올해 그렇게 해서 되게 힘들었어요.

**현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을 찾은 게 있으세요?

**경옥**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는 제주도에 가면 민들레는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린다.’ 이게 그냥이 아니고 일상에 녹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선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가 먹는 것, 자는 것, 세탁. 이런 것 스스로 하고, 스스로 살려야 하니까 서로 방해가 되지 않게 하고 서로 힘을 맞춰서 큰 목표를 이뤄내고, 그 다음에 서로를 살리는 범위 안에는 제주도에서 우리는 항상 가는 곳에 가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과하고 서로 살려야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 활동도 해야 하고 이런 게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린다.’의 교육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기획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지역의 할머니들을 인터뷰해서 책 만들기를 하고, 그때 되면 마을을 수확하는 계절이예요. 또, 미역을 채취하는 계절이고, 마을을 수확하거나 미역을 채취하는 걸 도와주거나...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도 가요. 한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되게 빡세게 움직이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가지 말고 좀 느슨하게 가자. 또 연극이라던지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극적으로 부딪혀서 깨질 수 있으면

서 깨지는 상황 속에서 자기 욕구를 분출시켜 내는 그러면서 상대방의 존재를 알게 되는. 관계를 해결하고 이런 것 까진 아니고 그런 것이 중심이 되게 하자 해서 책을 쓴다던지 이런 머리를 쓰게 하는 작업이 아니고 마음을 쓰게 하는 프로젝트를 하자. 이런 이야기. 지금 구체적인 기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방향성 정도는 그 정도로 이야기 한 상태예요.

**현수** 캠프를 가야하잖아요. 그런데 안가는 친구는 없어요?

**경옥** 저희가 민들레를 선택하게 하는데 옵션이 있어요. 그 옵션 중에 이걸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이걸 하는 걸 전제로 선택하는 거예요.

**경아** 혹시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여쭙보는데 저희도 캠프를 가진 하는데 캠프나 이런 것들이 늘 옵션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서 하는 일로 자꾸만 하게 되면 흥미가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다가오니까... 그렇다고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들을 캠프에 반영하면 캠프가 마치 즐거운 놀이처럼 놀러가는 형태, 여행처럼 되는데 그런 게 '과연 좋은 걸까?'하는 고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경옥** 저희도 이번에 그게 100% 잘 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민들레하고 이룸학교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건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공간이나 이런 건 이룸이 훨씬 더 좋을 텐데... 한 가지 차이는 뭐냐 하면 민들레는 일종의 권위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 거죠. 그건 되게 중요해요. 민들레를 선택하는 거는 저 권위에 내가 따르겠다는 것을 선택하는 거라는 걸 암묵적으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너 민들레 못 와.' 그것만 있어요. 저희가 학생을 가려서 받지 않아요. 근데 '네가 이걸 원하면 우리 너를 받을 거야.'라는 것만 있어요. 학생을 면접하는 게 아니고 학생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고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는 거다.' 이것만 있거든요. 부모도 안 가리고 돈도 안 가리고 아무것도 안 가리고 '네가 선택했는가'만 중요해요. 그런데 애들도 선택하는 시점에서는 선택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짓말인 경우도 많아요. 지도 모르겠죠. 지도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진심이지만 당장 모면하기 위한 진심이었죠. 그 안에서는 실제로 입학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던 않았던 거죠. 모면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진심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너 선택했잖아.' 이게 중요한 협박인거고.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하는 애가 있어요. '책 만들기 왜 억지로 하게 하세요. 저는 싫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기 싫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인데 그런데 저는 아직 그 아이가 우리학교의 관계가 안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확신하게 하게 된 건 '우치다 타츠루'라고 하는 선생님의 책이 저한테는 큰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가 프로젝트 활동이라든지, 자기가 배우의 주체로 선다던지 그 아이가 원할 때 하게 한다던지, 우리가 오해 했던 것, 착각했던 것 중에 대안교육에 대한, 특히 프로젝트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그 날 제가 아름다운학교 심포지엄 할 때 했던 이야기도 저도 그렇게 스스로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원할 때 줘야한다.' 이 명제가 과연 옳은가? 이게 절대 선인가? 교육에서 이것만이 유일한 지침인가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 학습자가 원하는 것. 배우는 자가 원하는 것. 교육은 성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일정한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개를 가진 아이가 20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현재 교육의 목표라고 가정을 해보면 10개를 가진 사람은 11개를 가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단이 있으면 밑에서 보는 거 하고 여기서(위에서)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보는 사람이 '아, 저기 300M 변방에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아이가 금방 가서 11개를 잡을 수 있는데 멀리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당장 10M 안에 있는 것만 보고 '아니야, 어쩐지 왼쪽으로 가야할 것 같아.', '오른쪽으로 가야할 것 같아.', '중간으로 가야할 것 같아.'하고 어깃장을 부리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행히 올바른 방향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에게 안 보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아이 눈이 안 보이는 걸 보게 해주는 사람이어야 해요. 교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아이가 안보고 있는

걸 보게 해주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아이가 '저 사람은 내가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데 이 관계가만 들어져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당장 나한테는 안보이지만 내가 생각할 땐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지만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생각도 없지만 저 사람이 '직진해서 100M만 가 봐.'라고 이야기 하면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될 거야.'라고 이야기 하는 거. 나는 지금 나한테 아무것도 안보이지만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뭔가 되도 돼!'라고 하는 이 관계가 중요한 거지 이 아이가 뭘 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또 아니에요. 제가 민들레를 선택했다는 말을 그게 진심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선택했다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상태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인간에게 자기를 엄청 뿌듯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에너지는 생겨나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 상태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이 메시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 이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건 아이에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만 하게 할 건가?'는 아닌 거예요. 교육이란 더 멀리하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멀리 뛰게 해야 하고 더 멀리 날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보고 있는 것만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것만 먹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저 아이는 이걸 먹으면 너무 좋을 텐데'라는 걸 '이 아이가 받아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다 살이 되고 피가 돼!' 라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관계설정이 되고 나면 뒤에는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이 관계설정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민들레 같은 경우는 3월 한 달 관계설정을 한다고 하지만 3월 한 달에 되지는 않아요. 근데 3월 한 달 아이들이 하는 건 뭐냐면 최대한 우리가 정성을 다해 보여주는 건 아이들에 대한 존중, 존중하는 제스처를 엄청... 존댓말을 쓰기도 해요. 혹하게 만드는 거죠.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훌륭하기도 하고 우리는 가진 게 되게 많아. 그래서 네가 원하면 많은 걸 우리가 도와 줄 수 있어.'라고. 특히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능한 아이들이 많이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세상이나 새로운 배움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여 준다던지 세상의 트렌드 미래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옳다고 증명하는 자료를 있잖아요. 그런걸 보여줘요. 그 걸 전부다 이해하던 못하던, 민들레에서 하는 활동이 옳은 거고 세련된 거고 트렌드이고, 우리가 앞서가는 거고 그런 거를 자부심을 느끼게끔 펌프질을 해요. '그 자부심을 일깨워 주는 사람들이 우리야.'라고 하는 거고 그러고 나면 3월 한 달은 저 하고의 관계가 '아, 저사람 말을 믿고 따라야겠어.'라고 되는 거죠. 우치다씨 표현으로 하면 '김경옥의 제자가 되겠어.' 이거예요. 정말 제자가 되는 것은 '저 사람에게 배워야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무술을 배우러 가서 그 분이 시키는 대로 세달 내내 빗질만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무술을 안 가르쳐주는데도 3년을 빗질 할 수 도 있는데도 거기에 불들려있는. 그게 제자의 마음인데 제자의 마음을 만들게 하는 것 이게 교사가 해야 하는 또는 초기의 교육과정이 세팅되어야하는 베이스인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3월 한 달 4월에 안 돼요. 조금씩 의심하면서 좀 다른데? 믿어도 될까? 말까? 이게 한 학기 내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한번 탁 되고 나면 확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게 프로젝트 활동이거든요? 프로젝트 활동도 일 년짜리 활동이에요. 큰 일 년짜리가 있지만 5월 말 정도에 한번 작은 산을 넘게 도와줘요. 교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한 산을 넘게 해요. 그럼 이 산을 넘고 나면 교사에 대한 존경심, 저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 이런 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고 이 단계에서 실패하면 뒤가 되게 어려워지는, 끝없이 의심하고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라는 걸 지금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건 저희는 그룹핑을 10명 단위로 하거든요? 10명에서 한두 명만 이상한 애들이 있어도 이 그룹 전체의 에너지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2~3명 이상이 되면 개네들은 빨리 분리해서 특별 훈련이 들어가야 해요. 특별 조치가 안 들어가면 우리

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자로 들어오게 되면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되는 것 처럼 제가 내 제자로 들어왔을 때 확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는 게, 분리하는 게 필요해요.

**선숙** 학교에 힘이 될 수 있겠어요?

**경옥** 그렇죠. ‘아, 저 사람 말을 들으니 내가 이렇게 되네?’하는 걸 또는 ‘이 학교가 시키는 대로 하니 되네?’ 작은 산을 몇 개 넘으면 큰 산도 넘거든요. 초기에는 너무 큰 산을 넘게 하면 안 되고 작은 성취감을 맛보게 하면... 그래서 도구는 아이들을 촉하는 걸로 잡을 수 있는데 이 도구를 가지고 애들이 뭘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도구는 찾지만 뭘 원하는 지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끊임없이 교사가 물어다 줘야 되요. 이 재료가 없으면 애들도 못하기 때문에 교사는 정보가 많아야 해요. 정보가 많아지면 권위도 많아지고 아이들이 ‘저 사람 따라 가봐야겠다.’ 이런 것도 생기고. 물론 인간성 이런 건 우리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으니깐 그건 두말할 것 없고.

**선숙** 예전에 들은 것 같아요.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야지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애들한테 끌려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저는 올 한해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학교 그만두고 이런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사실 학부모님이 계속 남자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시긴 했었어요. 현재샘이 옮겨가셔가지고. 그분의 자녀가 첫째는 다니고 있는데 둘째는 그만 뒀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학교 자체가 재미가 없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엄마가 보냈으니깐 온 거라고 토로를 했는데 저도 약간 그 지점에서 우리가 좀 그 친구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니깐 되게 위축되더라고요.

**경옥** 교사가 위축되죠. 그래서 민들레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경옥의 제자가 되고 싶은 아이들도 있을 거고, 유라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게 다 민들레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끼리 상호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끝도 없이 해요. 저 사람의 매력을 본인이 말하기 어렵거나 그런 거를 주변사람들이 끝도 없이 해줘요. 그리고 이 팀워크가 되게 중요해요. 내 제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아이들이 모두의 제자가 되어야 우리가 다 편하거든요. 팀워크가 되게 중요해요. 함께 최대의 성취를, 만약에 내 제자가 A라는 아이가 있다 하면 이 아이의 성취를 이뤄주기 위해서는 이 아이는 나로 인해서 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뒤에는 나와 함께하는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김경옥으로 표상이 되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 교사들하고, 그 팀워크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회의가 그런 회의가 중요한 거죠. 아이의 성취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협력하고 어떤 정보들을 이 사람에게, 만약에 저에게 정보를 몰아 줘야 되면 몰아주는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협의가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경옥** 그럼 이름은 퍼실리테이션을 언제 사용하나요?

**선숙** 공동체회의나 교육과정 구성에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고민인건 아이들에게 의견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런 친구들이 입학할 시작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5명 중에서 3명이 탈락했고 한명은 아예 학교를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집으로 상담선생님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학교의 1/3을 차지하다보니까 의사소통을 할 때, 기운이 떨어지고 그 아이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아이들도 ‘왜 안 나와요?’라고 불만이 쌓여가고 근데 그 친구들이 있건 없건 의사소통이 활성화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고민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2/3 정도가 그런 친구들인 상황에서 이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걸 가지고 갔을 때 효과성이 있는 건가? 처음에 이 의사소통을 선택한건 아이들이 성공경험이 없었으니깐 본인의 의사를 들어주고 그걸 통해 성공경험을 갖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교육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아이들은 그런 힘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지금 아이들은 그 정도 힘까지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경옥** 그럼 이 퍼실리테이션의 방법을 되게 준수하는 거예요?

**선숙** 아니에요. 일단 준수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평등하게 소통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짜고 있어요.

**경옥** 그건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쵸? 저희도 3월 달, 거의 한 학기는 우리가 짜 놓은 것으로 운영이 되요. 근데 한 학기를 그렇게 하면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불만에 대한 것을 논리를 세워서 이야기 하면 바뀌잖나.'라고 해서 평가 회의를 엄청 거창하게 하거든요? 1학기 마지막에 이걸 하게 되면 그걸 반영해서 2학기 때 실행을 하는데 그럼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퍼실리테이션 방법으로 이야기 하진 않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은 우리도 진행하고 있어요.

**선숙** 저희도 방법적으로 퍼실리테이터분들이 하시는 방법을 완벽하게 쓰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모든 의견을 동등하고...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모토로 가져가고 있어요.

**경아**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결정이나 해결을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야기하다보니 시간이 길어지고, 말을 하는 사람만 하고 막상 결정이 됐는데 현장에서 다른 상황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럴 때, 아이들에게 상황을 다시 공유하고 또 기다려서 합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상황들은 선생님을 믿고 선택을 빠르게 해 나가는 게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경옥** 이게 안건이 중요해요. 어떤 안건이냐에 따라서 끝장토론을 하면서 까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있고 그 안건이 크게 의미가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안건 설정, 아젠다 설정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일 책 출간 기념회, 25권의 책 출간 기념회를 해요.

(출간된 책을 보여 줌)

책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제안이에요. '이건 필수다.'해서 진행하는데 이걸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건 설득을 해요. 설득은 논리로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너하고 나의 관계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니?'하고 설득을 할 때도 있고. 이번에도 '하기 싫어요.' 하는 친구가 4명 있었다 하면 두 명은 '배신이야. 흑흑'이라고 하면서 하게 하고 어떤 친구는 논리적으로 하게 하는 애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출간기념회를 한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의견을 받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하지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출간기념회가 시시한 거라면 아이들의 성취는 내가 낸 의견이 이루어지는 게 성취가 아니고 멋지게 이루어지는 게 성취인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뼈다귀를 내면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걸 아이들이 다 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우리가 물 밑에서 해야 하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출간 된 책 구경)

이렇게 되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들이 의견을 낸 것이거든요. 이렇게 결과물이 멋지게 돼서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 할 정도로. 발표회 같은 것도 의견을 모으긴 하지만 이 의견을 모아서 발표회를 진짜 멋지게 해줘요. 그래서 하고 나면 '우리 멋진 것 했다.' 이런 느낌이 들게.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를 느끼게.

**경아** 세상에 한권밖에 없는 책인가요?

**경옥** 한권 값은 우리가 지원하고 그 외는 본인이 내는 거예요.

**현수** 한번 책을 만들면 다 가져가나요?

**유라** 워낙 고생해서 만든거라 다 가져가요.

**현태** 아까 한 친구가 와서 보던데 사람들이 '와~' 하고 보니까 기분이 좋았으려나 모르겠네요. 대단하고 진짜 멋지네요.

**현수** 민들레의 수업 시간표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경옥** 월요일 그룹미팅에는 '너는 어디까지 왔니?', '어디까지 갈거니?', '민들레에서 활동은 너에게 어떤 의미니?' 이런 것을 교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멤버들이 같이 피드백하고 고민하는 것이 월요일 날 하루 종일. 그 다음에 화요일은 하루 종일 프로젝트 활동. 수, 목은 도구학습들. 프로젝트 활동을 하던, 책을 만들거나 글을 쓴다거나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 금요일 날은 몸을 움직이는 것. 이렇게 수업이 되어있어요.

**현태**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활동인가?

**경옥** 체육활동. 춤도 추고, 1학기 때는 춤이랑 바디 포커션을 했는데 바디 포커션은 몸을 두드리면서...

**유라** 몸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고 합주처럼...

**경옥** 같이 산에 가기도 하고, 근데 무지 싫어해요.

**현수** 한 학기 내내 하는 게 아니라 몇 회기, 몇 회기 이렇게 한 과목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경옥** 한 학기 내내 하는 거예요.

**현태** 이룸학교도 그렇고 꿈예학교도 그렇고 체육활동을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위탁형 같은 경우는 하기 싫으면 누워버리는 아이들이라 체육교과를 성별로 나눠서 한다고 해도 성별 안에서도 호불호가 나뉘고, 그래서 체육교과를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참가를 하게 할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춤이나 바디 포커션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참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나요?

**유라** 일단은 돌아켜 보니 3월에 전환여행을 할 때 소개를 하는데 마침 바디 포커션이 젊은 선생님이어서, 형아 같기도 하고 매력적이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멋지다'라는 것? '굉장히 간지 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침활동으로 늘 언덕에 올라가서 바디 포커션을 하고 내려오는 걸 프로그램에 넣었었어요. 처음에는 창피하고 싫고 이랬는데 올라가면 다 해야 하니까 빠지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호불호가 갈려서 '할래!', '안할래!'가 아니라 다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 생겨요. 개네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약간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진짜 싫어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안 오고 요청을 해요. 저희가 '뭐든지 말할 수 있다.', '뭐든지 의논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줬거든요. 그럴 때는 이야기를 하죠. '진짜 싫다.', '왜 싫으냐.' 이렇게 다섯 여섯이 모이면 토론에 들어가고 '창피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도 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요. 그래도 만약에 싫다고 하면 이 시간을 만든 의미에 맞게 '제안해라.', '이 시간의 의미는 몸을 열심히 쓴다.'와 '몸을 함께 쓴다.'라고 이야기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명이 모여서 산책을 2시간 동안 하고 배드민턴을 치고 1학기에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되게 재미있어 할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네가 꾸린다는 건 되게 어려운거예요. 그래서 그룹미팅 할 때 아이들과 이야기하면 재네는 '놀이 있다.', '아니다.'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제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은 친구들은 또 다른 걸 하고.

올해는 어떤 팀이 생겼나면 팀 이름이 마당놀이인데 마당놀이처럼 노는 것과 어떤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든 팀은 길잡이들이 되게 열심히 도와주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도와주자해서 인턴교사 한 선생님이 늘 꾸려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래 내가 선택한 걸 해볼 수도 있고 강제적으로 뭘 할 것도 아닌 애매한 감정이 올라오지만 할 말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아이들이 기획해서 운동회도 진행했어요. 보통은 저희는 기획단이 생기거든요? 그게 4월부터 문화를 만들어서 뭘 하자라고 하면 깃발을

꼭는 사람과 도와주는 사람 있고 기획단이 모이면 길잡이 한사람이 도와주고….

**현수** 싫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나오긴 나오나 봐요?

**경옥**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유라** 뺨치고 다른데 가있는 애들도 있어요.

**현수** 저희도 ‘그게 싫다’, ‘나는 정말 싫다.’라고 해서 그 친구만의 다른 걸 만든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안 나오더라고요.

**경옥** 그게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선숙** 그 친구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커서 지금 상담사를 붙여 둔 상태고 사실 그 친구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게 학교라는 교육시스템으로 데리고 가야하는건가? 물론 기관 내에서는 매일 매일 돌봄을 실천할 여력이 없으니까… 근데 학교는 그게 되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그 친구를 맡았는데 이번학기에 거의 10번? 나왔을까요? 그러고는 완전히 잠적해서… 좀 많이 어려운 친구예요.

**경옥** 저는 사실 위탁형도 비슷할 것 같고, 오디세이도 비슷할 것 같은데 만나는 아이들은 다를 수도 있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학교 밖 아이들을 시스템 밖에서 우리 멋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만나는 것과 공공교육의 틈새로 만나는 것은 제 마음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스스로도 자유로워지려고 하면서도 제가 울타리를 만드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 하면 공공성일수도 있고 책임감일 수도 있고… 저는 그게 아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면서 우리 대안교육의 강점은 대안이라는 말 빼고 ‘진짜 교육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학교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입시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명 한명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 걸 억지로 떠먹이고 있는 건데, 실제로 교육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걸 제외하고 ‘진짜 교육하나만 보고 간다’, ‘이 아이의 성장을 보고 간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디세이를 하면 어떤 게 있냐면 교육청의 평가, 이게 사회적으로 확산되려면 이렇게 성과를 내야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몇 가지 때문에 교육의 본질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과적인 것이 저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정신 차리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만 보자.’라고 생각을 환기시키고 오디세이 안하면 되지, 왜 우리가 오디세이를 하려고 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우린 몇 명 안 되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오디세이 온 친구 중에 어떤 아이가 있느냐면 멀쩡한 애였는데, 여행을 같이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도망쳤어요.

**유라** 오름에 가 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찾았는데 숙소에 가서 짐을 싸가지고 창문으로 탈출해서 공항으로 갔어요. 집에 전화해서 비행기 티켓 끊어서 빨리 보내라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경옥** 이 아이가 면접 볼 때 말도 멀쩡히 하고 ‘저는 정말 오디세이가 필요해요.’라고 했는데… 진심이었을 거예요. 막상 두 경을 열어보니까 그럴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됐고, 동굴 안에 있던 애 인거예요. 근데 우린 모르고 게 말만 믿고 무식하게 데리고 갔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실수를 했던 거죠. 이 아이의 말 뒤에 있던 걸 캐치했어야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때라도 알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애는 학교를 나올 마음은 있는데 못나오는 애였어요. 안 되는 애였어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오디세이를 하는 것은 오디세이에 와야 출석이고 안 오면 결석이고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아이에게 ‘네가 정말 힘들면 학교 밖을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자기는 안 되고 ‘검정고시를 못하겠고 졸업을 해야 한다.’라는 게 그 아이의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음악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음악을 공부하는 걸 기록하게 하고 일주일에 한번 씩 나와서 그 상황에 대해 공유하는 것만으로 출석을 인정해 주기로 저희가 풀었어요. 이런 극단적인 사례도 있어요. 올해 우리가 같이 하는 아이가 40명인데, 학교 밖이랑 오디세이랑. 40명이 진짜 제일 양극에 한 줄 서있어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마

음에 드는 아이만 오길 바랐지만 우리 마음에 드는 아이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명 한명에게 맞춤형으로 큰 골격은 있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무차별 적으로 프로젝트 시키고 책 시키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진짜 교사는 이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체육 문제도 위탁형 대안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무기력한 상태,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들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몸을 안 움직여요. 이 상태를 바꿔 주지 않으면 체육활동은 되지 않을 거예요. 다행히 민들레 오는 아이들은 그 정도 상태는 아니에요. 몇 명 빼고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삶의 의욕이 있는 친구들이예요. 아마도 위탁형 아이들은 그 삶의 의욕 자체가 저 바닥에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당장 체육수업 하기 어려울 거고, 오히려 자의식이나 자존감을 복돋울 수 있는 작업들을 조금씩 하면서 2학기부터 체육수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너무 힘든 아이들은 벤치에 있게 하는 방법도 쓰기도 해요. 상태에 따라서는.

**경아** 학생이 40명이면 선생님은 몇 분이세요?

**유라** 저희가 학생 10명당 한명의 교사가 있어요.

**경아** 그럼 오디세이랑 민들레가 같이 수업을 듣기도 하나요?

**경옥** 따로 또 같이. 저희가 1년짜리 교육과정을 하다가 오디세이 제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하는 게 엄청 자연스러워요.

**경아** 그럼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학교 안의 청소년과 학교 밖의 청소년이... 사실 저희가 예전에 위탁형과 도시형의 수업을 같이 했는데...

**현태** 학생들이 결이 너무 달라서 다 뒤집어엎는 친구들과 잔잔한 친구들이랑 같이 하나까...

**경아** 비행으로 위탁형에 온 친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쉬어서 시도하지 않고 있어요.

**현태** 그때는 애들이 어느 순간 검정고시 수업이 듣고 싶으면 아이가 중간에 사라지고... 저희도 미숙하다보니 헬이었어요. 맨날 감사 선생님들한테 욕먹고...

**선숙** 학교에 왔는데 누워있고 다른 애들은 수업 들으면서도 불만인거예요. 근데 뭐라고 못하고. 그래서 분리를 했는데 이게 저희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일 년에 한번 마지막에 다 같이 하는 발표회 때만 학교끼리 연습해서 같이 올리는 것 정도 진행하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경옥** 맞아요.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건 잘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변화시켜서 가지고 갈 것인가 의논하고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게 맞아요.'라는 게 저는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창조해 낸 게 없어요. 다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우리에게 맞게 변주시켜 낸 거예요. 프로젝트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보면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보면서...

대신 교육이란 뭔가? 학교란 뭔가? 성장이란 뭔가? 이런 답문을 이해할 독서는 필요해요. 공부는 필요해요. 그래야지 변주를 시킬 수 있거든요. 아이들의 발달 과정이라든지 이런 책은 좋은 책이 많아요. 아까 이야기한 우치다 쌤의 책도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치다 선생의 「교사를 춤추게 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공교육 교사를 보고 쓴 책이긴 하지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교육학 책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책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숙** 작년과 이번 1학기 까지 교사시간을 가지긴 했었거든요? 책까진 아니어도 칼럼도 읽고 사실 민들레 책도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도 막히는 것이 있고 올해 아이들 이렇게 되니까 교사로서 힘든 부분이 많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2학기 때는 바빠서 한번? 정도 밖에 못 만났어요. 이런 것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아는데 일상에 치여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기관에서 일하다보니까 떨어지는 것을 쳐내고... 변명 같이 들릴 수 있지만 이런 지점, 되게 착 달라오다가 똑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 인원도 줄었고. 처음에 온 친구들은 동력이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나가면서 남은 아이들을 밀고 가야하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아이들은 따라오지 않고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나.'고 반문만 하고 안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경옥** 그럼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내가 잘 못한 게 아니고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럼 거기가 어딜까? 다시 진단하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잘 못 된 거지 우리가 잘 못 한 것이 아니거든요. 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진단이 잘 못 된 거지.

**유라** 그리고 저희는 올해 뭘 느꼈다면 저도 올해 굉장히 부딪혔어요. 다들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 보면 '새로운 세대가 몰려왔구나.', 우리가 이전까지 만났던 아이들과 쌓았던 노하우가 많잖아요. '아, 새로운 세대 아이들이 몰려와서 기존에 있던 노하우가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는 생각을 해요. 이걸 다 새롭게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 자존감만 무너지지. 이제 지금부터 보여 지는 친구들의 특성이 앞으로 몇 년간 있을 거라서...

**경옥** 이 또한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는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매년 새로운 걸 텐데 우리가 작년엔 온 아이들을 기억하고 올해를 운영하면 안 되는 거지. '매년 새로운 거다.', '매년 어떤 귀신들이 나타날지 모른다.' 아까 이야기 했지만 내일 애들이 흥얼흥얼 내일 질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우리 뒷담화 하지 않으세요?'라고. 뒷담화 한다고 이야기해라. 우리라고 해서 무슨 벌거숭이 임금님이 되는 것이 필요 없을 줄 아느냐. 이런 것처럼.

**선숙** (눈물 흘림)

**경옥**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도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

**현태** 아, 숙연해졌잖아요.

**일동** 하하하

**경아** 이름학교가 2학기 들어 어려워지고 길잡이 교사가 가지는 어려움과 부담이 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선배교사의 눈물을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마음의 짐이 있었나보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같이 나누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흔쾌히 이런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자리가 꼭 필요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옥** 저희한테도 필요해요. 저희는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뭐하고 있지?' 라는 걸 알게 돼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동지로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경아** 저희도 막막했어요. 어느 공간에서 이런 고민을 나눠야하나...

**경옥** 이렇게 삐끗할 때, 서로 불러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 이룸학교와 공간 민들레가 함께하는 평가워크숍 2

<b>진행일시</b>	2018년 1월 3일(수) 14:00-18:00
<b>진행 장소</b>	정독도서관 내 공간 민들레
<b>참가자</b>	드림센터 김현수, 김현태, 박경아, 유선숙, 이민지, 황현영  이룸학교 학생 김시은, 지효정  공간 민들레 김경옥, 김유라, 김준한, 윤홍설

(이룸학교의 김시은학생과 지효정학생이 오늘 평가 워크숍에 함께 참여하기로 함, 공간 민들레 선생님들이 오시기 전 저번 시간에 교사들끼리 나누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짐)

**경아** 선생님들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죠?

**선숙** 일단은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일 년을 마무리 하고 평가캠프를 가지게 됐는데, 그 전에 이 사례집에 이룸학교의 3년과 관련해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나눈 것과 오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을 정리해 가지고 넣고 18년의 발전 방향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회의 내용으로 나온 거, 지난번에 이야기 해 주신 내용을 축약한 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어떻게 이룸학교의 1년을 평가하는지 이런 이야기들 나누다가 효정이가 저희한테... 아, 이 친구는 효정이고 이 친구는 시은입니다. 둘 다 삼년 짜 다니고 있고, 효정이는 올해 졸업해서 스무 살이에요. 효정이가 저희한테 질문을 던진 게 '이룸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이제 저희 이야기를 좀 전달 해 주었고 이제 그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 나온 이야기는 친구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경옥** 중간에 나가는 친구들에 대한?

**선숙** 아, 네 맞아요, 중간에 탈락한 친구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탈락한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냐고 해서 이제 저희가 한 이야기가 잠시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가지고, 아, 기억이 안 나시죠. 다들?

**현영**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왜 학교를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나?', '친구랑 선생님 때문에 결심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안에 있던 아이들도 이제 관계가 어려워져 가게 된 경우도 있었던 거 같고 그 다음에 교사와의 접점이 부족해서 중간에 그만 두게 된 것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여교사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 그래서 학부모님이 남교사를 원한다는 요구를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것도 남녀, 그러니까 남자 교사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요구 자체도 관계의 지점 중에 하나인 것일까? 이런 얘기를 했고 뭔가 바꾸게 되면 아이들이 안 나갈까? 근데 뭔가 바뀌고 그럼 다른 아이들이 나가지 않을까? 바꾸든, 바꾸지 않던 나갈 애들은 나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대안학교가 출발 지점이 다르지만 지금은 되게 많이 혼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잖아요. 그걸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 봤는데 어... 효정이가 느끼기에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녹아있는 학교마다의 특색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얼까? 퍼실리테이션일까? 이런 소통 방식일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것을 너희들도 특색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학생들은 우리 학교의 특색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뭐 이렇게까지 지금 왔던 거 같아요. 그러다가 또 나왔던 얘기는 개별 활동이 좀 필요 할까? 아니면 전체적인 활동이 필요할까? 활동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접근할 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우리가 다 같이 접근 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 보다 소그룹 활동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과 뭐 둘 다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선생님께서 운영 하실 때는 공동체 활동이 이번에 제일 힘들었다고, 같이 하는 활동이 이번에 힘들었다는데 그렇다면 우리한테 맞는 공동체 활동이라는 것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의견으로는 뭔가 이야기 하고 싶기도 하고 풀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사람은 이런 표현이 어떻게 모르겠지만 지적한다는 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의견을 이야기 한다는 게 저 사람이 받아들일 것일까? 아니면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해야 하나? 관계 안에서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경아** 사실 저희가 다 모이면 이제 민들레 친구들도 또 한 두세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 했어요.

**경옥** 두세 명 불러 볼까? 지금 투어 끝났으면?

**홍설** 있다가 파티기획단 아이들이 여기로 올 거거든요.

**경옥** 그러면 몇 명이 오면, 필요하면 얘기를 여기 조금 끼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

**경아** 아니면 또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야기가 되면 와도 되고 안와도 되고 사실은 저도 특별히 그렇게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친구들과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보자고 불렀는데 저희도 그래서 지난 번에 얘기가 조금 됐었고 '우리가 학교 방향이라든지 기점, 이룸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뭐 그런 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그랬더니 효정이 이제 '선생님들이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 어떤 과목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괜찮은지, 선생님들과의 관계, 우리학교가 선생님들이 좋고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재미있어서 혹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학교가 좋고 재미있다고 기억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들하고 먼저 아이들이 일 년 동안 아니면 3년? 이제 3년인가?? 이제 졸업을 하고 산 증인들 인 것 같아요. 저희보다 먼저 와서 경험해 본 친구들이라 흘러온 과정들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은 내가 여기에 다녀야겠다고 생각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뭔지? 그 지점이 또 선생님들은 이것을 표방하고 있는데 실제 아이들에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그런 위밍업을 좀 하고 선생님들과는 어떤 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그 지점들 저도 조금... 요기는 고민을 조금 공유한 정도 인 것 같아요.

**경옥** 아까 이야기를 한 것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때 몇 가지, 왜 이렇게 나갈까?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들, 이룸학교 선생님들이 민들레에 뭔가 이렇게 한수 배우러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이룸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참 부족할 거고, 이룸학교에서 더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민들레도 더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 하시는걸 들으니깐 더 '맞네. 서로 더 비슷하네.' 싶어요. 비슷해도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렇게 서로의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팁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진짜 좀 되게 우리에게도 진짜 감사한 자리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오히려 좀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효정이? 시은이? 하고 두 분이 오래 다녔으면 지금 이제 민들레 친구들도 조금 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그러니까 이룸학교에 어떤 기대를 하고 왔는데 다녀보니까 어떤 건 기대가 무너졌고, 어떤 건 되게 좀 기대가 맞았고 뭐 이렇다면 어쨌든 좀 이 자리는 올 해 또는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모색하는 자리인 거니까 어떤 게 무너졌는지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그것에 대해 좀 더 우리가 고민하면 좋을지 어떻게 타계하면 좋은지, 혹시 또 우리가 변명해야 되는 게 있으면 이룸에서 변명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변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답을 찾아나가

고 방향을 찾아 나가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나갔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묻지 말고 ‘저는 애들이 이  
래서 나갔다고 생각해요.’ 또는 ‘저는 이럴 때 힘들었어요.’ 하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까발려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것  
에 대한 일종의 변명? 또는 ‘아 그건 우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식으로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경아** 워밍업을 저희가 조금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두 개 적었네요. ‘무엇을 기대했는가?’, ‘무엇을 얻었는  
가?’, ‘또 무엇을 얻지 못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효정** 들었지, 시은아? 말해야 한다.

**경아** 아까 화장실 가면서 살짝 물어 보기는 했는데 이름학교에 어떻게 오게 됐어? 시은이가 조금 이야기를, 너의 페이스  
를 선생님들한테 이야기 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시은** 저는 학교를 올 때 기대를 한 게 없거든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작성해야 하는 거 쓰고 엄마 따라서 왔는데 와보니까  
확실히 이야기 할 애들도 많고 수업도 재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불편한 점은?

**시은** 불편한 점?

**효정** 아니. 다른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나가고 뭐 이런?

시은 저는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 하거나 학교 끝나고 같이 특을 할 친구가 많은데 학교를 나간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  
지 않았을까?

**효정**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 제가 찾아보고 들어 간 거 같아요. 커리큘럼을 보니까 선택하는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아, 내  
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겠구나.’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좀 나태한 사람이거든요. 하하하. 그래가지고 학교라도 다  
니면 좀 생활습관이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반 정도 품고 왔는데 물론 생활습관이 고쳐지지 않았고, 선택도 비  
교적 자유로운데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지만, 좋았던 건 소통방식이 아  
무래도 자유롭다는거? 아까 팀장님께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름학교의 특징이 퍼실리테이션이냐?’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게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되게 제가 많이 빠지는데  
도 잘 받아주시고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경옥** 아, 그러면 효정이는 퍼실리테이터 내지는 퍼실리테이션 학교의 특징은 잘 받아 주는 것? 퍼실리테이션 학교는 어떤  
게 퍼실리테이션 학교예요??

**효정** 그냥 뭐라고 해야 하지…. 회의 방식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하나면 주제가 하나 있으면 그것에 대해  
포스트잇을 다 나누어 줘요. 가지고 생각나는 것을 적는 거예요. 키워드로. 포스트잇을 내고 키워드가 뭘 뜻하는지 각자 말  
하고 다음에 같은 키워드 끼리 분류를 해요. 중 그룹으로 묶어서. 만약 선택을 해야 한다면 중 그룹 중에 어떤 것이 좋을지  
를 투표 하고 선택된 중 그룹 안에서 소그룹이라고 해야 하나? 비슷한 걸 묶어 놓은 포스트잇 끼리 또 투표를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되게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한 일 년 쉬었다가 다시 다녀서 시  
은이보다 더 빨리 다녔었는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한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한 세 시간  
동안 말만 하다가 결론이 안 나고. 모두의 의견은 소중하네 주제가 어디로 튀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름학교 3년 동안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방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그래서 특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제가 나중  
에 회의를 한다면 한 번 사용해 보고 싶을 만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름학교 특색이라고 생각 했었어요. 그게  
긍정적이어서 또 남아 있는 것도 같아요. 다른 학교에 가면 적응을 못할 것 같아요.

**경옥** 그거의 좋은 점은 뭐예요? 퍼실리테이션 학교가 어떤 모습인지는 제가 조금 그러지는데, 그렇게 해서 좋다고 했는데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모두가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다든지 주제가 헛갈리지 않아서 좋다든지?

**효정** 모두가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더붙어서 시간이 단축이 돼요. 약간 뭐라고 해야 하지? 5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이걸로 하면 1시간으로 끝낸다는 느낌예요. 그렇다고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경옥** 질문할게 있는데 질문해도 돼요? 제가 최근에서 일본에서 손님이 왔었어요. 일본의 '도쿄슈레'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일본 오래된 프리스쿨인데 그 학교가 1986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되었죠. 여기를 나온 사람들이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대학은 아닌 것 같고 해서 대안대학을 만들었는데 그 대안대학이름이 '슈레대학'이라는 곳이에요. 그분들 이랑 일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 운동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카타리바'라는 것이 있대요. '카타리바'가 뭐냐면 '카타루' 하면 '말하다'거든요. 일본어에서 '말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스'도 '말하다'고 '카타루'도 '말하다'인데, '하나스'는 그냥 막 말 하는거고 '카타루'는 좀 더 '진지하게 말하다.', '깊이 말하다' 이런 의미래요. '카타리바' 하면 '말하는 곳' 이런 말인데 사람들이 자기표현을 못하고 자기를 드러 내지 않고 소통에 어려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세계에 파묻혀서 지내다가... 특히 청소년들이 그런 어려움이 많아서 청소년들이 서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카타리바 운동'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어떻게 하나면 퍼실리테이터를 자원 활동가로 키워서 효정이가 이야기 한 것처럼 일종의 노하우를 가지고 원하는 학교로 파견을 나가서 A학교에 '카타리바'를 만드는 것이다. '자 우리 카타루! 자 이제 이야기 나누어 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 한 것처럼 주제를 꺼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고 아이들이 속 시원히 이야기를 나누고 힘을 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일본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래요. 그 전에 퍼실리테이션 학교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카타리바 운동을 하는 분들이랑 이름학교랑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름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종의 이야기 나누는 방식, 카타리바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같고 다를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만나면 오늘 이야기 나누어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효정이가 이야기를 해줘서... 사실 지난번에 퍼실리테이션 이야기를 할 때는 이름학교에 얼마나 퍼실리테이션이 남아 있을까 조금 물음표가 있었는데 효정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길이가 길이가 가져가야 될 것 같네요.

**경아** 카타리바 일본 선생님들은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시나요?

**경옥** 퍼실리테이터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시작된 회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매뉴얼만 남고 본질이 어디로 가고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효정이가 이야기를 들으니 매뉴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질이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제 의식이 선명해지고 게다가 되게 효율적으로 각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의견 수렴도 잘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회의를 하다 보면 엄청 지루해 하거든요.

**효정** 의견이 스무 개가 나와도 금방 좁혀지니까요.

**경옥** 그게 요령이 필요하겠네요? 그게 소통하는 거예요?

**경아** 일종의 categorize.

**경옥** 범주화 하는 요령이 필요하겠네요?? 그거는 배워요??

**효정** 그거를 누가 할래? 하면서 자원해요.

**선숙** 저희 교사들이 처음에 배웠어요. 선생님께. 기업에서 퍼실리테이션을 하던 선생님이 오셔서 되게 어려운 용어로 한 10가지를 설명 해 주셨는데 한 3가지 정도를 사용 하고 있어요. 그걸 배워서 어떤 방식으로든 쓰고 있어요.

**경옥** 무더기를 나누는 기준은 그 때 그때 달라도 되잖아요. 그날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무더기는 알파벳끼리 모아

도 되고 ㄱ, ㄴ, ㄷ 끼리 모아도 되고 그 날 월 기준으로 모을 것 인지는 유연해도 되는 거니까.

**효정** 그리고 포스트잇 사용이 좋은 게 옛날에 회의에서 말을 잘 안했던 아이들도 글로 써서 내니까 어쨌든 내긴 내니까, 칠판에 붙이면 붙인 이상 키워드에 대해서 키워드 꺼낸 사람은 설명을 해야 하니까 발화의 허들이 낮아진다고 해야 하나?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경옥** 기억에 남았던 내용 있어요? 퍼실리테이션을 이용하여 한 회의 중에 '아이건 기억에 남는다.' 하는 것?

**효정** 많이 있어요. 하하하

**현수**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경옥** 망쳐도, 기억에 남아도 괜찮고.

**효정** 아무리 그래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주제가 자기 계발 이런 쪽인데 갑자기 놀이로 변하기도 하고. 왜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 투표를 하니까. 이런 경우가 꽤 있죠. 그래도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 보다는 낫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경옥** 결국은 만장일치를 만들어 가요?

**효정** 만장일치까지는 아닌데... 70% 정도.

**현수** 어쨌든 결국 따지고 보면 다수결이긴 한데 나도 분명히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도 의견을 내고, 하나하나 확인해서 그 안에서 다시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경옥** 퍼실리테이션은 결국 만장일치까지 가는 것, 전원 합의까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각자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을 납득 시키고 이 과정을 만들어 가고 계속 카테고리화 해 나가는 게 결국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걸 서로 알게 해 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니까 진행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게끔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는 게 진행자의 역할이라서 그런 거를 배우는 것은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

**홍설**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시간이 있나요? 일주일에 한번 하는 회의?

**선숙** 학기 초에는 한 달 정도 하고 준비기간이 있어서...

**경옥** 아, 일종의 퍼실리테이션을 배우는?

**선숙** 교육과정을 짜니까. 애들이랑

**효정** 짜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아요.

**선숙** 캠프 가서 뭐할지, 다 그렇게 방법을 사용 해서 짜니까 2~3주 동안 하루에 두 시간씩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번 공동체 날이 있어서 공동체 회의랑 공동체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평가하고 평가 캠프.

**홍설** 보통 저희도 자치회의가 일주일에 한번 씩 있고 퍼실리테이션까진 아니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요. 물론 중구난방 되고 어쨌든 진행은 하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기억 남는 걸 물어볼 때 자치회의를 말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만큼 특징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외에는 것에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물어보면 수업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에서는 사전에 교육도 하고 모든 회의 구조는 그걸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아이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저희 아이들은 수업이나 프로젝트, 그룹미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차이는 많은 것 같아요.

**효정**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회의 시간이 너무 긴 것에 대해. 준비적응기간이 2~3주 있다 보니 일주일에 한번 수업이 있으면 2~3주면 2회를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2회를 더 할 수 있는 건데 회의를 길게

해서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히 방안을 못 찾고 있어요. 사실은.

**선숙** 어떤 학생은 빨리 끝내고 싶어서 다 동의 했다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효정** 그 회의가 차지하는 분량이 많은 것은 맞아요. 그래서 아마 기억에 남는다고 할 수도 있고….

**현영** 급식이 이번에 먹던 경찰서가 안 돼서 어떻게 먹을까도 투표로 결정했는데 저는 좀 답답했어요. 저는 아이들이랑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를 결정하거나 할 때 참여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것 까지? 점심에 나가서 밥 한 끼 먹는 것까지도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정 안되면 다른 학생은 따로 사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숙** 고기를 못 먹는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경옥** 베지테리안인 거예요?

**선숙** 베지테리안까지는 아닌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고기를 먹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시은이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효정이는 저희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 주는 친구거든요. 시은이 친구들이나 또래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경아** 공동체 회의가 어떤 느낌이야?

**시은** 저는 되게 좋는데…. 아까 이야기 했던 것처럼 저도 회의시간에 잘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종이로 쓰면 예를 들어 종이로 나의 의견을 표현 할 수 있는 거라면 종이로 쓰고 말 안 해도 되니까 좋은 것 같은데….

**경옥** 종이로 쓴 것에 대해 더 설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가?

**시은** 있는데 종이로 봤을 때 본 사람들이 이해가 되면 굳이….

**효정** 키워드에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쓰여 있는데 '내면의 성장' 이라고 쓰면 어떤 성장인지 이렇게 물어 보는 거죠.

**경옥** 그렇게 공동체 회의를 한 것이 다른 생활, 다른 활동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것 때문에 이룸학교가 좋아서 계속 다니고 싶었다든지, 나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있는지. '적어내니까 한결 좋았어요.' 말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성장 했다든지, 배웠다든지 달라졌다는 게 있을까요? 굳이 시은, 효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친구들의 이야기여도 상관없어요. 그런 게 있을까요?

**시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회의를 할 때, 근데 전에는 그냥 이해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조금 이해도 되고 상대방의 상황일 때,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같은 것도….

**일동** 오~ 어마어마한 깨달음

**경옥** 이룸학교 너무 사랑스럽다.

**홍설** 근데 평가를 뭘 하러 오신 거예요?

**경옥** 자랑하러 온 거 아니에요? 자랑하러?

**효정** 말싸움이 줄긴 했어요.

**경옥** 회의시간에 말싸움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그게 확장이 되어서 진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되고 관계가 좋아지고?

**효정** 의견 몰랐던 애들 의견을 알 수 있잖아요. 말을 평소엔 잘 안하니까

**경옥**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명칭해 보이고 저런 생각도 안할 것 같고, 이런 애들이 중요한 키워드를 적어 내기도 하고?

**효정** 뭔가 불만족해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개는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적어 내면 그래도 좀 알

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되고, 궁금했는데 좀 알게 되죠. 제가 말이 많은 편이니까 약간 죄책감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의 발언권을 씹어 먹는 건 아닌가 하는.

**경옥** 선생님들은 효정이 같은 아이가 없으면 기절할 거예요.

**효정** 그런데, 그래도 다른 애들도 말을 해야지 나만의 리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도입이 되니까 제가 더 편하죠. 사실은 마음이.

**선숙** 자기 성찰을 하게까지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길고, 말이 많다고 느끼고, 주변의 친구들을 생각하고 시은이도 3년 됐고 저희가 의미를 많이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해를 해도 본인이 감정이 되게 상하면 그 지점에서 순간 순간에 힘들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내비치기도 해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 얘기를 들을 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회의 시간에는 감정이 상해 말도 안하고, 그러면 다시 뒤에 가서 교사랑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돌아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저 지점까지 끌어 올라가도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저 지점까지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긴 한 것 같아요.

**효정** 그리고 이걸로 중도이탈 청소년을 못 잡았잖아요.

**선숙** 네, 그렇죠. 중도이탈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지점도 좀 고민이기는 하죠.

**경아** 제가 사실 제가 이 중에 이룸학교에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인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한 학기 보면서 저도 그 고민이 되는 것이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좀 맥락이 있는데 다른 수업이 아니라 공동체 회의를 끄는다는 건 사실 뒤집으면 또 그만큼 저희 교육과정내용이나 이게 아이들한테 들어오는 게 없다는 이야기 일 수도 있다는 것 같은 거예요.

퍼실리테이션은 소통하는 방식인데 이 자체는 콘텐츠가 아닌데 그렇다면 어떤 우리가 가진 콘텐츠나 내용들을 소통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을 이용해서 할 어떤 내용들을 채우는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서 채운다거나 두드러지게 만들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돼요. 기법이나 방식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물음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선숙** 한번 되짚고 갈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방법론적인 걸 배우면서 이용하다가 방법만 남은 느낌도 있기는 하거든요. 운영을 해야 하고 빨리 회의를 해서 과목을 선정을 해야 강사를 구하고 막 이러면서 빨리 선정하기에 급급하고

**효정** 왜냐면 이걸 인력이 부족하니까.

**선숙** 바쁜 것들을 쳐 나가는 느낌이 없지 않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에 집중하고 철학에 집중하여 운영을 해야 하는데 회의를 해 나가고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경옥** 저는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좀 질문을….

**준한**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되게 잘 하고 계시는데 뭐가 고민이신건가 싶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오히려 저희가 회의 방법? 퍼실리테이션 그런 것들을 잘 배워야겠다고 생각 하고 있고, 효정 친구 한번 워크샵 하러 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고민지점 중에 하나가 내용보다 문화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뭉뚱그려 문화라고 했으나 예를 들면 회의 문화라든지, 뒤에서 뒷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하는 뭔가 그런 서로간의 신뢰 관계라든지 '나는 어디서든 이야기를 꺼낼 수 있구나.' 그런 게 있었으면, 회의 자체가 잘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문화가 있을 때는 1년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1년 과정이니까 1학기는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2학기부터는 좀 아이들의 변화들이 보이면서 진짜 학기 말에는 뿌

듯한 감정들이 많이 들었던 게 재작년 그림이었다면, 작년에는 힘들었어요. '무엇을 잘 못 챙겼을까?' 라고 이야기 했을 때 아까 이야기 흐름에서의 문화가 잘 안 만들어 졌던 것이고, 1년제와 3년제의 고민은 그 지점에 있어서 다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선배가 있으니까... 선배가 좀 그런 것들을 이끌어서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아** 오디세이는 무조건 1년 과정이에요?

**준한** 민들레는 처음부터 계속 1년 과정이에요. 저희는 학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한 곳.

**경아** 민들레도 그러면 1년? 2년 다닌 친구들은 없나요?

**준한** 그게 2015년 정도까지는 있었는데 오디세이 시작하게 되면서는 1년으로 하고 다른 것을 권하죠. 왜냐하면 오래 다니면 관성화 되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는 어차피 역할을 징검다리로 생각을 하고 있고 1년 여기서 잘 지내고 그 다음 스텝을 잘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1년 과정에 들어온 친구가 훌쩍 과정이 있거든요. 뿌리랑 오디세이 학교가 1년으로 과정이 있는 거고, 훌씨는 좀 자유롭게 자기의 배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가는 경우는 있는데 이 뿌리를 2년간 하는 것은 최근 한 3년간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생각 했던 건 이 문화라는 것이 선배가 없는 상황에서는 길잡이가 솔선수범하고 먼저 보여주고 공간의 세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했었어요. 작년 2017년에는 예전에 비해 잘 안됐었죠. 항상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나는 잘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잘 못하고 있다.' 모두가 그런 예전에는 잘 안될 때 '내가 이렇게 해 볼 테니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풀렸다면 작년에는 그런 상황이 많았어요. '이건 민들레가 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못했다. 이건 하려고 했는데 민들레가 못했다.'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뭔가 신뢰관계가 없는 그런 것? 그래서 뭘 놓쳤을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아직 평가를 안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경아** 우리는 맨날 그러지 않니? 선생님한테 와서?

**선숙** 저희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올해 저희도 아이들 안에서나 신뢰관계, 또 서로간의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긍정적인 지 않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새 학기 기초생활캠프까지 끝나고 1-2개월까지 괜찮았다가, 5월 정도까지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좀 그렇다가 또 학기 초에 괜찮았다가 학기말 되니까 우루루 무너지는 느낌이...

**효정** 학기 말에 너무 바빠서 다들 신경이...

**준한** 저희도 많이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시은친구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 하나인데, 아이들은 학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런 이전에 같이 밥 먹을 친구 한 명이라도 있어야 배움이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중간에 그만 둔 친구들의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연락을 하고 관계를 같이 만들어 갈 친구가 없어서 그만 둔 게 아닐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친구든지 길잡이든지 마음을 트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서, 왜 안 됐을까 고민하게 돼요. 근데 또 많이 관계를 잘 못 만드는 친구들이 많이 올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문화가 있어야지 그런 친구들이 와도 말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시은친구?

**현수** '밥을 같이 모여서 먹어요.' 같이...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다 같이 옹기종기 밥을 모여서 먹어야 할까?

**준한** 우리가 어쨌든 다들 노력을 했을 텐데, 어찌 됐든 뭔가가 부족했던 거잖아요?

**효정** 시은이는 네 속에 담고 있는 말이 있는데, 쉽게 못 꺼낼 것 같을 때 남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자기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

**경아** 질문이 나도 어렵네.

**준한** 그러면 퍼실리테이션 회의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잘 안하는 친구들도 의견을 내고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나요?

**효정** 근데 그거는 그 주제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제가 나를 싫어하  
나?' 아니면 '뭐가 불편해서 저렇게 짜증을 내지?' 이런 거고...

**준한** 그니까 그 퍼실리테이션은 공적이고, 사적으로는 마음 붙이는 게 잘 안 된다?

**효정** 그죠. 사실 하루에 한 번씩 아침마다 오늘 기분은 어땠는지 회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준한** 동시에 사람의 관계까지도 사실 우리가 다 신경을 쓰고 만들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현수** 그렇죠. 그게 딜레마예요.

**준한** 그 관계 때문에 배움도 잘 안 일어나고 그래서 고민이 계속 되기는 해요.

**경아** 근데 어떤 친구들의 경우는 그때쯤에 선생님하고 개별적으로 만나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그 친구를 좀 더 신경 쓰고  
해야 하는 그 지점을 놓쳤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하고 아이들은 몇 명씩 말아야 잘 신경 쓸 수 있  
을까요?

**유란** 사실은 담임이 있긴 하지만 보는 눈이 다 다르니까 어떤 아이한테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담임뿐만 아니라 전체가 고민  
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맞닥뜨리고 있는 담임은 마음이 조금해지고 부담인데 옆에 있는 교사들은 그보다는 덜 부담이 되  
고, 같이 고민하게 되면 그 고민의 무게가 상쇄되니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만두려는 마음이 막 불타올 때 그걸 조금  
유예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주일만 쉬었다 보자.' 혹은 '내일은 쉬고 이틀만 보자.' 식으로 이렇게 고비를 넘  
겨보고, 그래도 여기서의 배움이 싫다고 하면 아쉽지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고비를 넘기고 스리슬쩍 넘겨가는 것 같  
아요. 저도 사실 그래요. 교사로서 같이 여기서 지내기로 했던 아이들과 365일 열심히 가야한다는 강박이 있는데, 사실은  
애하고 3일만 봐도, 백 일만 봐도 되잖아요. 애가 여기서 연을 갖고 계속 해나갈 수 있다면 되는 건데 '왜 꼭 365일을 다 보  
려고 했지?' 하는 마음을 순간순간 느껴요.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죠.

**경아** 그 지점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은 없나요? '저는 300일 다 나오는데, 저는 왜 풍당풍당 며칠만 나와요?'라며 좋  
은 것만 누리러 골라서 나온다고 느끼는 감정이 있지 않을까요? 그걸 교사가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기가 어려운 것 같  
아요.

**효정** 근데 그게 오랜만에 학교를 나왔는데, 분위기가 싸해서 또 학교를 안 나왔다가 또 오랜만에 나오면 또 똑같고 그래서  
나가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경옥** 근데 어떤 면에서 조금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곳이 배움터다.' 다른 정체성을 가진 쉼터나 클럽이 아니고 배움터라  
는 정체성과 학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배우는 곳의 역할을 하는, 배우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사적  
인 관계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조절하고 케어 하는 것. 도우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지만 언제나 염두 해  
두고 있어야 하는 건 우리는 배움터라는 것. 300일 나온 아이가 100일밖에 안 나온 아이를 부러워한다면 우리의 배움터로  
서의 역할이 약하거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이들의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100%로 우리 잘못은 아닐 수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300일 나오면 300일만큼 배우는 거고, 100일 나오면 100일  
만큼 배우는 거니까 이곳에 온 사람들이 아까워서라도 하루라도 더 오고 싶은 곳이 되도록 하는 게 이상적인 거잖아요. 어  
떤 면에서는 이상적인 그림을 갖고 그 그림에 다가가려면 '우리는 어디부터 손봐야 할까?' 2018년에 오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올지 모른다. 그 애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때 100일 나오는 아이들이 300일 나오는 아이들을 부러워하게 할  
수 있을지 디테일하게 점검이 들어가야 하겠어요. 저희가 2017년에 실수했다고 생각이 되는 건 아이들 개개인의 상태에  
대해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지 못했나 싶어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아, 나는 여기서 진짜로 배우고 있어.', '여기서 배우고 싶  
어.'라고 말로써가 아니라 진심으로 생각하는 존재로 전환을 해서 민들레에서의 생활을 스타트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올해 3월 2일에 아이들 인원이 30명이라면 사실 이렇게 이상적으로 스타트 하는 인원은 1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다가 한 3월 15일쯤 스타트 하는 친구들이 2명이 또 늘고, 그 다음에 4월 1일쯤 되면 5명이 또 늘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학교에 대한 정체성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노하우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작년은 이상하게 유형을 알 수 없고, 언제쯤 스타트가 되고,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할지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감당할 수 없는 숙제를 딱딱뜨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작년의 실수로, 작년엔 만났던 그 친구들로 올해는 자신이 있죠. 3월 2일부터는 스타트가 안 되더라도 4월 1일에는 스타트를 시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름학교에 부탁하고 싶은 건, 어쨌든 친구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이들한테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스며들게 해야 하는 것은 여기는 배움터라는 것. 단지 좋은 사람으로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좀 더 자신이 나아지는 경험을 여기 있는 동안에 하고 가는 곳이고, 여기서 해내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걸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퍼실리테이션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를 공유하는 게요. 그래서 공동체 회의뿐만 아니고 노련한 퍼실리테이터를 두고 우리가 이름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걸 세우고, 퍼실리테이션으로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3월에 여러 번 가진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이 되도 스타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저희도 2명을 겨우 말려서 붙들어 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이 친구들은 여기가 안 맞는 아이가 아닐까? 오히려 다른 곳에 가게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오히려 남아있는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게 능사가 아닐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뭔지를 돌아보는 건 필요해요. 죄책감은 아니어도 되겠어요.

**유라** 그래서 저희도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판단한다고 했던 게, 혼자 판단을 하게 되면 교사들이 자꾸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방법이 이 친구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자꾸 개인적으로 후회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의 시각에서 보고 판단해서, 판단이 옳거나 애매하다면 좀 더 유예를 해보기도 하고, 그게 또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아까 시은친구가 얘기했던 것도 우리도 참 많이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연초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과정 안에 많이 넣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의 때에는 회의를 주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누구는 말을 너무 안 한다거나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관심이 없거나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몸 돌 바를 모른 채로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관심 없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비난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 친구들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랬을 때 '그들을 함께 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했어야 했는데 저희는 모두의 만장일치를 끌어내려고 하면서 한 바퀴 다 돌아서 모두가 얘기하게 했던 말이에요. 이게 어떤 친구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수 있겠다고 중반에 좀 생각을 했었죠.

**경옥** 그럴 때 퍼실리테이션 방식을 도입하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로는 표현을 못해도 한마디 적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오늘 굉장히 큰 수확을 한 것 같아요.

**효정** 저 질문이 있는데, 들어보니 민들레에서는 1년 과정에서 개인프로젝트 과정을 하나씩 하나 봐요?

**경옥** 개별 말고 팀 프로젝트가 있어요.

**효정**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개개인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면 배움의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도 이번에 개인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었어요. 자기가 주제와 목표를 잡고 스케줄을 짜서 자기 속도대로 진행하는 걸 해봤는데, 사실 잘 안 됐죠?

**선숙** 약간 절반의 성공 정도?

**효정**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동기부여가 된 것 같지 않아서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가 있을까요? 저희는 작년이 처음 시도였으니까요.

**홍설** 아까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희 아이들은 '프로젝트'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다고 말할 정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많이 해요.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게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이고 길잡이들도 많이 들어가요. 저희는 팀 프로젝트거든요? 애들은 팀 프로젝트 하면 '아, 맨날 애들하고 싸우기 싫어요. 개인프로젝트 하고 싶어요.'라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개인프로젝트가 아이들이 서로 부딪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걸 혼자 이끌어가는 것 때문에 개인 프로젝트가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친구가 더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저희는 같이 하는 것에 대해 더 의미를 두기도 하고, 그 활동에 길잡이교사가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근데 개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개개인에 대한 교사의 개입, 준비, 역할 나눔에 대해 정말로 잘 설계가 되어있어야 하나의 프로젝트를 올곧이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정** 교사의 입장에서 개인으로 하면 담당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질 수도 있어서 부담될 것 같기는 해요.

**홍설** 분명 장단점이 있고, 그 환경에 맞게, 교육철학에 맞게 해나가는 거죠.

**준한** 조금 더 보태면 평소에 사진을 많이 찍던 친구가 '전시회를 해보겠어!' 하면 '어, 그래! 어떻게 도와줄까?'하는 이런 과정도 개인프로젝트잖아요.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친구한테 '어? 이런 것도 해봐!' 식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하게 되는 건 어떻게든 잘 돼요. 크든 작든 마무리가 되는데 작년이나 그 이전에 했던 것 중에 '묵학', '비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 게 있어요. 아이들로부터 비워진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아서 그런 시간을 만들었고, 너희들 요청대로 비워진 시간을 만들었으니 너네가 계획을 세워서 해보라고 됐는데, 사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완성한 친구들이 열 명중에 그나마 둘 정도 될까요?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하려는 친구들을 데리고 옆구리 찔러서 키워보고 마무리하는 거는 해볼 만하겠는데 그럴 만한 준비나 힘이 없는 친구들을 그런 구조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 개인프로젝트에 비해 팀 프로젝트는 서로 북돋우면서, 각자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팀 프로젝트 안에서도 항상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네는 너무 관심이 없어.'같은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조차도 하나의 배움이기도 하니까 뭔가 이런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팀 프로젝트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옥** 이 '배움', '배우다'라는 것. 이걸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배울 마음'이라 하면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하고 내가 이걸 배우고 싶어 해야지 배울 수 있는 게 맞는 건데, 한 인간이 진짜 내가 나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배움은 어떨 때 일어나느냐하면 배워 봤을 때 일어나요. 그게 언제 시작이 되는지, 한 개인에게서 배움이 시작되는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인간은 원래는 배우는 사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보여주는 영상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한 다섯 살짜리 애가 비오는 걸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말리는데도 애는 비를 맞으러 마당으로 뛰어나가는 영상인데 유튜브에 '처음 비를 맞는 아이'로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이에요. 그 아이 표정이 환희로 가득 차 있어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손을 하늘로 펼쳤을 때) 해봤을 때 비라는 것이 내 손에 떨어지는 그 감촉, 이게 엄청 애한테는 환희롭고, 그래서 어른들이 말려도 애는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 호기심, 새로운 뭔가를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엄청 소중한고, 그 느낌을 환희롭게 만난 아이는 그 다음 느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배움, 동기화를 만들어내는 연쇄고리인거지 '자,

앉아서 한 번 생각해보자. 나 뭐 배울까?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기화라는 말은 사실 정말 엉터리인거예요. 가장 중요한 동기화는 배움의 기쁨을 맛보는 것. 내가 배우고 싶단 생각이 없었는데 누구 말을 따라서 억지로라도 해 보니까 '너~무 좋았어.', '아, 해보니 뭔가를 배웠어!' 지금 시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대도 없이 이름학교에 왔는데 퍼실 리테이션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걸 해봤고, 하다 보니 나는 별로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을 하게 됐고, 친구들도 그렇게 된 것 같았다는 걸 느낀 게 이게 바로 배움의 역설이에요. 자기 머릿속에는 없었는데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해봤더니 느끼게 되는 것.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하라고 한다고 인간이 사실 다 하지는 않잖아요.

누가 권할 때 한번 해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건 믿을 만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권할 때, 뭔가 멋져 보이고 폼 나 보이고 좋아 보일 때 하거든요. 후져 보이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름다운학교 가서도 얘기했던 게 그래서 동기화는 멋져보이게 만들어줘야 하고, 폼나보이게 만들어줘야 되고, 뭔가 있을 것 같이 허풍도 떨어야 되고, 나도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시은이가 내 말을 잘 들어주게끔 나도 뭔가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시은이가 나를 보면 '아, 저 사람 말은 좀 따라 봐도 되겠네.'라고 느끼게요. '저 사람 말은 들어봤자 소용없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인간은 누구나 축이 있으니까 시은이의 축에 내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걸리게 나를 가꿀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막 잘 생기거나 옷을 잘 입거나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거로도 끌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관계가 만들어질 때 시은이가 동기화되어있지 않아도 내가 그 매력에 걸려서 원하는 걸 해보면서 '생각보다 재미있다.'라는 걸 느끼면 그 다음 것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성장이 일어나는. 그니까 처음 만났을 때 이 연쇄 반응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가 바로 동기화지, '자, 생각해봐. 너 뭐 하고 싶은지, 너 좋아하는 게 뭐야?'하는 게 동기화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에 미끼를 던지는 것도 중요해요. 필요해요. 혹 뭐가 끌릴지 모르니까. 하나도 안 끌리면 내 제안을 안 받을 거니까. 내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던질 필요가 있는데, 그 제안은 아가 홍설이 얘기한 '설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안을 해서 모이면 그 모인 사람들끼리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서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도 있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결국 민들레는 해내고 싶은 게 뭐냐면 '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좋네?', '나 혼자 했으면 못 했을 텐데 같이 하니깐 해냈네.'를 맛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혼자서 좌충우돌 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맘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거나 발견하거나 끌어들이거나 해서 티격태격하면서도 함께 뭔가를 만들어나가는 연습을 했으며 좋겠다, 그런 걸 터득했으면 좋겠다는 게 민들레가 프로젝트를 팀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리고 왜 민들레는 굳이 개별이 아닌 팀 프로젝트를 할까 하면, 개별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곳은 사실 정말 많아요. 일반학교도 개별 성장이고요. 성적을 올리거나 좋은 대학을 가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잘나게 만들어주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쳐봐야 안 되는걸 되게 깨닫고 있고, 앞으로의 사회는 훨씬 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같이 하니깐 좋다는 걸 맛보게 하는 것, 같이 하니깐 더 낫다는 걸 알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쌓아 나가도록 하는 게 짧은 1년이지만 했으면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생각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팀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모이잖아요? 모여서 끝도 없이 반복해서 하는 게 기획을 해요. 그냥 '자, 기획을 해보자~'하는 건 아니고 사실 매뉴얼이 1, 2, 3, 4 같이 자세히 있는 건 아니지만 주요 요소들은 있거든요. 그걸 프로젝트 하는 동안 반복해서 기획을 하게 해요. 육하원칙이 들어가는 기획서를 계속 쓰게 해요. 6개의 질문을 갖고 계속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하는 거죠.

프로젝트는 산을 계속 넘어가는 길인데 산을 넘을 때마다 작은 기획서들을 쓰고, 또 쓰고 하면서 결국 큰 기획서도 써보게 하는,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가지는 거죠.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좌충우돌, 티격태격하면서도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 그리고 무슨 프로젝트를 하던 기록을 하게 해요. 중요해요. 좀 기록이 잘 안 되는 주제

도 있긴 하지만. 민들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 기억해야지~'해서 기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록해야 기억한다.' 예요. 사진이나 일기, 메모를 보면 기억이 나는 것처럼 기록하는 걸 중요하게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잘 하기 위해서 말과 글 수업을 하고, 질문을 잘 던지기 위해서 질문하는 수업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게 프로젝트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공을 들이는 편이구요. 끝도 없이 기록하게 하고 잔소리 하고 근데 그렇게 작은 산을 한 번씩 넘다보니, 기록도 하고 기획서도 쓰고 뭔가 혼자 하는 것 말고 같이 해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서울 시장실 가서 시장을 만나고 온 것도 김경옥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있기도 하고, 같이 우루루 가는 거니까, 같이 하니까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작은 산을 하나 넘어보면 '어, 내가 이 산을 넘었네? 재미있네.' 하면서 그 다음 산을 넘어볼 힘이 생기고 동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거를 잘 도와주는 것, 적절한 산을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한 교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제 운동화를 신었는데 내일 '에베레스트를 가자!' 하면 못 가니까 처음에는 북한산, 한라산, 그 다음에 또 더 높은 산을 가듯 적절한 미션과 적절한 제안을 해 주는 게 엄청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효정** 재작년에 말했었던 성취동기 같은?

**경옥** 뭐? 무슨 동기?

**선숙** 성취동기

**효정** 성취하면은 동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경옥** 맞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동기가 잘 없는 아이들, 마음이 안 생기는 아이들은 그게 계속 꺾였을 거예요. 자기 인생을 15년 살았다면 15년 동안 선생이 꺾었을 수도 있고, 엄마가 꺾었을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꺾었을 수도 있고 계속 꺾었기 때문에 그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룸학교에서는 그 기운을 북돋아 주는 이제 불쏘시개로 계속 불을 지피는 역할을, 시인이가 조금 살아났으면 그 다음 동기가 살아날 수 있게 불을 지퍼주고 이런 역할을 끊임없이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관찰하고 근데 그게 혼자 관찰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니까 힘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같이 팀워크를 맞춰서 관찰하고 적절한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거죠.

**효정** 성공의 경험?

**선숙** 학교가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낸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그 의견으로 뭔가 긍정적 경험을 얻으면서….

**경옥** 맞아요. 그게 다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동체 회의에서 '퍼실리테이션으로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종의 성공과 성취에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는 회의에 대한 부정적 감각이 없어 진거잖아요. 그러면 회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할 말 하는 사람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다른 것에도 조금 적극적이 될 거고… 이걸 이렇게 연쇄반응으로 일어나는 건데 어딘가에서 단절이 있다? 그럼 이게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단절이 있다 하면 그 단절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관찰해서 수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큰 이야기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단절의 장면이 다 제각각 다르고 사실 오늘도 저희 단절의… 시청에 가서도 단절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빨리 수습할지. 이런 게 사실은 그 때 그때의 우리의 교육력 인거죠. 그게 우리의 힘 인거죠. 교사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느긋하게 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과 만나는 순간에는 머리는 막 회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컴퓨터 엄청 그런 것처럼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온갖 이 정보를 끌어 당겨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작업을 줘야 할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게 교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교사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세상에서는 계속 머리가 돌아가고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컴퓨터를 가동 시켜야

되니까 애도 좀 쉬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숙**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돌아보면 어떤 순간에 좀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몇 개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탈락한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저희 둘이서도 얘기고, 팀에서도 이야기 하고, 이제 어디였지? 강사선생님들과도 회의에서도 한번 이야기 했었고, 뭔가 그때도 되게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그 순간에 왜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일을 이야기하지 못했냐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확실히 전달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딱 받아들여지지 못하게끔 정도까지 했던 거 같아요. 올해 특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 한분께서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 안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주제가 틀림없이 있을 거데 그걸 선생님들끼리 그냥 감당하거나 하지 말고 뭔가 수업 적으로 같이 녹아내거나 아니면 모든 강사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 공유하고서 함께 풀어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사실 내년에는 그걸 좀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 어떤 아이들 안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그게 강제적인 것 일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수업에서 다룰 수 있게 하거나 다는 안 되겠지만 그게 가능한 수업에서, 그 지점이 있었던 건 분명 했던 거 같아요. 어떤 놓쳤던 지점, 아니면 부족했던 지점. 순간적으로 빨리 대처하지 못했던….

**경옥** 저는 효정, 시은이에게 궁금한 게 이름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혼재되어 있는데 처음 대안교육은 두 부류가 있었지만 지금은 혼재되어 있다가… 이름학교도 혼재되어 있을 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류의 아이들이 있다 그런 게 있어요?

**효정** 의무감에 하는 착실한 아이들 보다는 자유분방하고 기분 따라가는? 그런 게 많죠. 착실한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기분파가 많죠. 아무래도.

**경옥** 재미있는 것만 하려고 하고?

**효정** 네, 맞아요. 저도 그렇고요. 사실.

**경옥**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치?

**효정** 맞아요.

**경옥** 시은이는 어때요?

**시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개인의 세계? 혼자 조용히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옥** 좀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힘들어요? 시은이는?

**시은** 아니요.

**경옥** 좋아요?

**시은** 저도 그래서….

**경옥** 오, 진짜? 안 그래 보이는데?

**현태** 동굴이 좀 크지.

**경옥** 아, 여러 명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선숙** 혼자만 들어가지는 않아요.

**경옥** 그 동굴에 이 선생님들도 같이 데리고 들어가지. 혼자 동굴도 있어요? 혼자 동굴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시은** 약간 개인의 세계가….

**경옥** 그럼 아까 민들레는 '혼자서 사는 것 보다 같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다. 그걸 배우게 하고 싶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이야기 했는데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시은** 좋은 것 같아요.

**경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

**시은** 같이 보다는 혼자가 좋긴 한데….

**경옥** 이 복잡한 마음을… 그럼 시은이를 팀 프로젝트를 하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은** 하자고 하시면 할 거예요.

**경옥** 하자! 시은이랑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시은이 내년에 뭐해요? 3년 다녔으면 졸업하는 거예요?

**현수** 아니요. 또 다닐 수 있어요.

**경아** 민들레 받아주시게요?

**경옥** 네, 저 스카웃 하고 싶어요. 훌륭한 선생님이로. 우리 교환학생이나 할까?

**현수** 아까 이야기 나왔잖아~ 교환학생 이야기

**효정** 세븐틴에 관한 논문을 써 봐.

**경옥** 세븐틴은 7명이에요?

**시은** 17명이요. 아, 13명인가?

**현수** 13명 아냐?

**현영** 마음이 식었어? 하하

**경옥** 일러 줄거야. 세븐틴에 이룰거야~

**효정** 아, 방탄이야?

**시은** 아, 섞었어. 애들을

**현영** 시은이는 팀 프로젝트 하면 아이돌 백서 이런 책 만들면….

**일동** 되게 잘 할 거야!

**현영** 그럼 팀 프로젝트 할 것 같아요.

**효정** 보현이랑 해라~

**경옥** 팀 프로젝트 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에이전시에 팀 프로젝트 이름으로 보내는거야. 시은이 이름으로 하면 열어보지도 않을 거야.

**시은** 팀으로 해서 보내도 보지도 않을 걸요?

**경옥** 다 열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뺨이 있어. 우리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박시장이랑도 잘 아는 데 이런 식의 뺨을 쓴다던지….

**효정** 어디어디 센터의 프로젝트 담당. 이렇게?

**경옥**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서울시 도장을 딱 찍어서 등기로 보낼 수도 있어. 이런 게 팀 프로젝트의 장점이야. 혼자서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학교의 이름으로 하면 되게 되는 일이 많아. 직접 그 SM, YG 찾아 가볼 수도 있어.

**현수** 세븐틴은 플레디스

**경옥** YG랑 SM 말고는 몰라요.

**선숙** 이 친구는 방탄소년단 팬이거든요. 세븐틴이랑 그 두 회사가 아니에요.

**현영** 그 문어발 거기가 플레디스 사무실이잖아요.(사실은 키이스트)

**선숙** 저희 회사 근처에 건물이 하나 들어왔는데 거기가 무슨 연예인 기획사예요.

**효정** 저희 학교 근처에 로엔도 있어요. 아이유 있는데.

**경옥** 아이유는 한번 보고 싶다.

**선숙** 저희 인턴십 현장 발굴할 때 로엔 가서 들이 밀어보자고!

**경옥** 그래! 아이유 특강 같은 것. 이름에서 마련 해 주세요. 우리 가게.

**현태** 아이유~ 그거 저기 어디 따로 잡아야겠다.

**현수** 사업으로?

**경옥** 한번 해봐주세요.

**효정** 돈이 없다.

**경옥** 그런 분들 돈 안 받고, 돈으로 초대하기는 어려워. 명분으로 초대해야 해.

**선숙** 저희는 그래서 그런 공동체 활동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경옥** 동굴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숙** 1학기는 그래도 잘 되어서 2학기 때 까지 이어서 해보려다가 폭망했거든요.

**경옥**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폭망한 사례 우리도 많이 들 수 있는데….

**선숙** 내년에도 뭘 해야 할까? 하루정도는 유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도 하루정도는 같이 나와서 회의 하고, 그래도 서로의 얼굴을 보고 발견도 하고 서로의 의외의 모습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유지를 하기는 하는데 여태까지 했던 공동체 활동 중에….

**효정** 부정적인….

**선숙** 네, 단 하나도 100까지는 아니어도 긍정적인 활동이 많이 없었던 거 같아요.

**홍설**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해요?

**효정** 잘 안 들어내요. 시인이 말대로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꺼려하는 게 보이죠. 눈 마주치지 않고 가고 지나가고 인사 안하고 막 이런 식이죠. 나중에 진짜 화나서 ‘너는 왜 그따구로 말하냐?’ 이런 식? 한꺼번에 터지는 쪽일 거예요. 담아뒀다가 그런 애들이 많아요.

**현수** 자기에 대해서 너무 혼자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를 표현해 보는 것으로 1학기 때는 중점을 잡아서 개인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되고 ‘네가 만든 거에 대해 살짝 설명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학기 때는 공동 작업을 조금씩 해보자 하고 약간 이렇게 돌려 봤죠. 근데 이제 공동 작업을 한다고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뭘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이거 왜 해요?’

**효정** 맞아. ‘이거 왜 해요?’

**현수** 어, ‘이거 왜 해요? 이거 무슨 수업인지 모르겠어요. 뭘 배우는 수업인지 모르겠어요’, 만족도도….

**경옥** 비슷한 경험이 많았어요.

**현수** 그리고 ‘커리큘럼이 없어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효정** ‘일년 동안 뭘 배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마음이 아파.

**현수** 저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하면 그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안 나오고 ‘아, 난 가야 될 수업이나 하자.’ 그대로 또 불만. 이게 어느 정도 나오고, 나오고 만져지고 해야 하는데 이게 나오니까 ‘그래 뭘지 모르겠고 그냥 하자.’ 이러니까 계속 불만인 거예요.

**경옥** 사실 배움은 크게, 크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운전을 배운다. 영어

회화를 배우기 위해 영어 학원에 가입한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 너무 눈에 보이고 그것을 하고 나면 바로 이렇게 '내 손에 들어오는 게 명확하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개가 나한테 뭘 가져다줄지 모르지만 그냥 지낸다던지, 함께 협상을 해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장 매뉴얼 있는 것도 아닌데 학원에서, 사실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데도 있어요. 사실 되게 고가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데도 있지만 그걸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인간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배우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던 것을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한 게 100가지 중에 98가지가 대답하기 곤란한 거예요. 한 두가지 정도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민들레에서 하는 것도 '이거 뭐에 좋은 거예요?', '뭘 할 때 먹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감기약이다.' 하면서 먹고 싶은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만병통치약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되게 쉽지 않아요. 그것을 설명해내기가 그래서 진짜 설명을 포기하는 거죠. 그냥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해.' 이럴 때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준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신뢰관계가 곧 배움을 만든다는 건데, 저 개인적인 것으로만 봤을 때 지금까지는 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지만 항상 어떤 신뢰관계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 난 저 사람을 싫지만 저 사람은 참 이런 건 잘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런 걸 제안하면 난 같이 할 수 있어.' 그런 종류의 신뢰관계가 있어 왔는데 작년에는 좀 제가 그게 잘 안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멘붕이랄까?

**경욱**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사람이 한 두명 정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한** 방금도 경욱샘이 이야기 했지만 한 학기 끝나고 저희 반 친구들과 얘기를 평가처럼 했는데 '작년에 기대했는데 잘 안됐던건 뭐냐?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배운 건 뭐냐?' 그 이야기 나오면 다 있자나요. 다 뭔가 이야기 나오면 '배움이 그런거다.' 뭔가 커리큘럼을 보고서 유명한 사람이 와서 김제동이 한 학기 강의 한다고 해서 배웠는데 결과적으로 별로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저 사람 별로라고 생각 했는데 지나고 나니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네 흥미라던가 그런 걸 제발 따지지 말고 해보자.'라고 이제 한 학기 평가를 하면 저와 신뢰관계가 있는 친구는 그걸 되게 잘 받는 거죠. '아~ 맞아요. 2학기에는 그런 것 재지 않고 한번 해 볼게요.' 그렇지 아닌 친구는 '흥칫뿡!' 하면서 잘 안 듣는 거죠. 좀 그런 지점들이 되게 어려웠는데...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제가 최근에 11월 말에 키노쿠니학교를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프로젝트를 많이 가져왔거든요. 저희도 거기 프로젝트에서 많이 벤치마킹해서 온 게 있는데 항상 고민이었던 게 아이들의 흥미를 맞추면 아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넌 뭘 하고 싶니?'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아~ 난 이런 건 좋은데 난 저런 건 싫어.' 그래서 팀이 잘 안되고 무슨 느낌인지 잘 알잖아요? 친구도. 그랬는데 키노쿠니에서 거기는 프로젝트가 워낙 핵심이고 오래된 학교인데 발표를 봤는데 소재들이 프로젝트 소재들이 도자기, 도자기 프로젝트가 제일 핵심프로젝트고 아프리카 음악. 매년 아이들이 토론해서 만드는 것이긴 한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이 별로 관심 갖지 않을만한 주제인거죠? 근데 거기서는 일종의 오랜 공동육아 아직도 하나요?

**경욱** 지금은 없지만, 한 적은 있어.

**준한** 어쨌든 초등부터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이긴 한데 물론 고등으로 편입을 오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고등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공간 안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재든지 간에 그냥 전에 선배들이 했던 것. 선배들이 좋다고 했던 것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그런 것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죠. 그나마 그냥 하고 싶은 것으로. 아이들 발표를 들으니 애들이 다 도자기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자기 프로젝트하면 마치면서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물론 앞으로 그 친구들이 도자기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깊게 학습을 하거든요. 도자기라

는 것이 어떤 문화적인 맥락과 정치적인 맥락으로 연결되는지 해외 탐방도가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깊게 파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일차적으로 선호하든지 '이건 내 기대에 안 맞으니까 안 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뭔가 배움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신뢰의 문화랄까? 아니면 신뢰의 관계를 만든 것이랄까?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내용적으로는 '진짜 소재 상관없이 무언가를 깊게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깊게 해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도자기 관련된 직업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맥락을 이해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져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깊게 공부한 친구들은 다음 스텝을 계속 바라본 다음 스텝을 찾는 거죠.

저희 친구들도, 저희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사실 저희가 원한 건 민들레에서 1년을 지나고 나서는 1년 과정의 목표이기도 한데 '올해는 이렇게 지냈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은 잘 했던 것 같고 이런 건 부족 했었고 그렇다 보니 나는 내년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 나의 스텝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을 만들어 온 게 1년 과정인데 올해는 그것도 잘 안됐던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순 없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다음 스텝을 찾았다면 올해는 '뭘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게 많았는데... 아, 그래서 저 스스로 생각했던 건 '아, 너무 깊지 않았구나! 뭔가 내용적으로 깊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네.'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경욱** 내용이 깊어지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키노쿠니는 내용이 깊어지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테마, 그러니까 일종의 미끼를 누가 만드느냐면 교사가 해요. 도자기, 음악, 농사,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준한** 일본에 대한 것.

**경욱** 그게 농사팀에서 이번에 했었거든? 이렇게 네 가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네가지 프로젝트, 다섯 가지가 있나? 그런데 도자기 받은 도자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실제로 전기 가마도 아니에요. 나무 가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노쿠니학교라는 게 오사카를 나와서 시내에서 다시 기차타고 한 시간 정도? 가서 기차에서 내려서 하시모토역이라는 곳에서 내려서 20분을 골짜기를 올라가야 하는. 마을이 하나도 없는 산골짜기 안에 그들만 있다. 처음 초등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지금은 완성체로 있는 그런 대안학교인데, 인가 받은 학교예요. 초등학교도 인가받고, 중학교도 인가받고, 고등학교도 인가받은 학력인정이 되는 그런 일종의 사립학교인데 되게 좋은 사립학교 인거죠. 우리나라 식으로 이야기 하면.

거기에서 인가 받는 조건이 '진짜 일본은 정말 되게 유연하구나.'하는 건데, 우리나라 각종학교보다 훨씬 유연해요. 교육과정이. 이 학교 처음 인가 받을 때는 고등학교는 프로젝트를 안 하다가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이제 5년 됐나? 그런데 진짜 이제 깊이 하는데 그 깊이 하는 걸 위해서 도자기 하는 사람이 도자기하고, 그 다음에 음악. 자기가 학교일 말고 민간 오케스트라를 하는 단원이 음악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음악을 해요. 농사짓는 사람은 자기가 농사나 유기농이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좋아하는 관심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테마를 던지는 것이예요. 누구나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빠짐없이 들어가야 해요. 올해 우리 멤버가 모였다하면 도자기는 베이스고 '이 도자기를 통해 우린 뭘 배울까?'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의 내용이 되는 것이예요. 이게 '이 도자기에 대해 뭘 배워볼까?' 할 때 시은이랑 효정같이 민들레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도자기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 있다. 10대가 무슨 도자기에 대해 관심이 있겠어. 그런데 이 리더 교사가 일반적으로 한국사회는 '아이들이 하게 내버려두는 것'을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하게 하는 것' 이걸로 오해를 많이 하는데 민들레도 그렇게 안하려고 하고 키노쿠니에서 배웠다든 게 그게 핵심인데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점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도자기를 되게 좋아하고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서 가마에 불 때서 직접 만들어 내는 것을 즐겨워하는 걸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작업을 자기가 먼저 하는 것이지. 교사가. 그러면 아이들이 보고 '근데 너 이게 일본의 어디를 가면 도자기를 많이 하는지 알아?' 이렇게 교사가 질문을 던지면 '한번 조사 해 보자.' 해

서 그러면 '이런 도자기 여러 종류 중에서 올해는 그럼 이 도자기를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계속 던져주는 거죠. 목표도 던져주고 허들도 던져주고, 던져주면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게 연결해 내는 이런 작업을. 음악만 해도 올해는 아프리카 음악이면 어떤 때는 영국음악. 올해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클래식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마다 음악이라는 테마가 있지만 다 다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키노쿠니는 우리와 다르게 환경이 좋은거예요.

우리가 도자기를 한다고 도자기 가마를 만들 수 없고, 홍설은 힐링밴드라고 하는 밴드를 하는데 여기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에서 기타도 제대로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연습할 장소 마련하라, 뭐하라, 고생을 많이 하는데 홍설은 되게 좋아해요. 그걸. 그러니까 그걸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홍설이랑 프로젝트를 한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끝나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연습하는 것 너무 싫었고 곡 하나 정하는데 싸우고 했지만 되게 많이 배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홍설이 좋아하면서 꾸준히 옆에서 계속 쿡쿡 찌르는 역할을 한 것 그게 되게 맞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준한**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되게 정리가 되는 게 뭐냐면, 처음 얘기 꺼냈던 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걸 따라 가도 어렵거든요. 팀 프로젝트로 하면. 그래서 느꼈던 게 이끄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깊이랄까요? 깊이에서 나오는 맛? 간지라 할까요? 그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아이들이 하게 되는 것이지...

**경옥** 아이들에 대해서도 내가 다 가지고 있는거야. '자, 이제 오늘은 SM가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진짜, 그걸로 딱 평정이 되는!

**준한** 그렇죠. 예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지만.

**효정** 자기 담당 교수님이 엄청 존경하는 교수님인 약간 그런 느낌?

**경옥** 맞아. 그거. 그게 있어야 해. 실력이 있어야 해.

**준한** 그걸 보고, 간지를 보고 '저 사람 멋있다.', '멋져 보인다.'로 따라 가게 해야 하지 '뭐할래?', '뭐 해볼까?' 로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경아** 근데 우리가 사실 자발적인 동기화라는 어떤 신화? 이런 걸...

**경옥** 그 신화도 그 잘못된 신화인 거예요.

**경아** '자발성에 기초하고, 자발적인 욕구에 기초해야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깔고 가다 보니까...

**경옥** 세상에 자발적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세상에 1000명 중에 한명 정도? 그 신화는 그들의 신화인거예요. 진짜 그러니 그런 신화 따위는 깨 버려.

**준한** 저는 너무 웃긴 게 아까 개인 프로젝트 같은 수업도 이야기 했지만, 저희 수업 안에서도 '우리 이런 거 말고 다른 수업 하고 싶다.' 그런 요청도 작년에 많이 있었어요. 1학기 지나니까 평가 하면서 '그래?' 고민하고 '그래! 열어보자. 해보자.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겠다.' 해서 눈술이니 사진이니 자기들끼리 흥미를 그래도 카테고리들 맞춰서 열었는데 사실 제대로 된 게, 한 다섯 개 열었는데 제대로 된 수업이 하나? 될까요? 웃긴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중간 중간에 보면서 '너네 뭐하는 거냐.', '너네가 하자고 해서 수업을 열었는데 우리의 지원이 부족했냐?' 그런 건 아니래. 그럼 '왜 그러냐.' 그럼 너희가 하겠다고 해서 한건 데 개인프로젝트 저희는 창의 수업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창의수업이라든지 그런 것 보면 저는 그런 이야기들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것도 소중한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 내년에는 이렇게 말해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려면 해봐라.'

**효정** 저희 인문학이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요. 훈쌤이 미끼를 잘 던지거든요.

**선숙** 저희 인문학 선생님이 계신데 수업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그 선생님. 그 선생님의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효정** 카리스마가 있는 것 보다는 뭐라 해야 하지?

**현태** 결국은 깊이이지.

**효정** 주제가 갑자기 툭 튀어 나오면 그 것과 연계된 주제를 갑자기 뱉어 주세요. '우리 이거에 대해 토론 해 볼까?' 이러면 아이들이 '오~' 이러면서 달려드는 거죠.

**경옥** 사실 다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시민 이야기 가만히 듣고 앉아 있잖아요. 그냥 TV에서 수다 떨고 있어요. 유시민이. 근데 듣고 앉아 있잖아. 나는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는, 대중이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일종의 지적인 욕구? 그것이 주는 기쁨?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TV에서 하는 것은 진짜, 그 문턱이 진짜 낮은 것이거든요. 그게 특정한 사람들만이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다 있다고 봐도 상관없는 것인 거예요. 하물며 아이들, 청소년 들은 더. 저는 그 어떤 지식... 인간이 만들어놓은 아름다운 지식에 대한 자극이 들어오는 건 되게, 저는 정말 이렇게 가뭄 때 물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거든요. 진짜 우리가 잘못 다가가서 그런 것이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업 은 훨씬 더 고퀄리티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배움의 기쁨을 느끼면서 동기화가 되는 것이죠. 재미없는 국어, 영어 수업만 하다가 다 싸이 잘린 것이잖아요. 어쩌면 그 기쁨을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있는 거니까 호기심도 없 어지고, 욕구도 없어지고. 그니까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재미있는 수업 재미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재미있는 것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 나는 어떤 것에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든 그것을 준비하는 게 어쩌면....

**준한** 그래서 저희 길잡이들 뿐 아니라 강사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10명~15명이 되는 어른 중에는 아이들이 분명 매력 적으로 느낄 사람이 한명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다 붙잡고 물어봐도 최소한 한명은 나올 거예요. '아, 이분 멋있 었다.', '이 수업 너무 좋았다.' 그런 건 다 있는데... 작년에 조금 안됐던 건 핵심이 프로젝트기 때문에 원했던 결과랄까요? 그런 거는 '일 년 해보니까 정말 같이 하기 어렵지만 같이 하니 좋았다.'가 우리의 목표였는데 그것까지는 안 된 거죠. 그 런데 아이들이 수업에서는 '좋았다.' 그건 나오긴 했는데 오히려 저는 단순하게 수업을 통해서 '인문학이 좋았어요.' 그것 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멋진 어른들의 풀만 있으면 적어도 한명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다고 그걸 짜는 게 정말 학교의 목적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고... '함께하니 좋았다.'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게 사실은 민들 레, 배우는 자가 함께하길 원하는 자고 민들레 1년 목표인거고 그러길 위해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서 좀 마음 이 안타까운 거죠. 너무 '특정 과목이 좋았다.'에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준한** 이름학교는 만약 '퍼실리테이션을 잡는다.' 이게 제일 만족도가 있으면,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확 장시켜 나갈까? 어떤 걸로 연결시켜 나갈까?' 이게 이제 만들어 지면...

저희는 프로젝트는 길잡이 교사들이 하나씩 말아서 하거든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시간표 보여 드렸나? 이 름학교의 그것을 시간표를 기획 할 때 같이 설계도 한번 해보고, 우리 연수 할 때 시간표 설계 해 보고 할 거예요. 연수 못 오시면 한 번 더 뵈고 같이 설계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어쨌든 좀 평가 하고 내년도 설계하고 이런 것 있을 때 같이 한번 설계 해봐도 좋겠다. 내년에 프로젝트 활동을 한다면, 수업을 한다면 강사나 이런 것은 주변에 있는 분 들 섭외를 해야 하겠지만 어떤 게 좋을지.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경아** 저희가 사실은 지난 가을인가? 2학기 시작하면서 여름방학사이에 프로젝트를 고민을 조금 본격적으로 해서 위탁형 선 생님 한분, 도시형 대안학교 선생님 한분을 모시고... 그런데 도시형 대안학교 선생님오신 날 우리가 사건이 있어서... 그 래도 위탁형 선생님 프로젝트 강의를 듣고 조금씩 시도를, 지난 2학기 때 조금 위탁형은 위탁형대로 도시형은 도시형대로 조금 시도를 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연수를 해야 하나? 키노쿠니도 가시고 그러시니까 저희는 조금 더

모시고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요약해서 특강 10시간 짜리를 30분 한 느낌?

**선속** 저희는 원래 아이들이 개인 활동으로 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개인 학습시간이라고 해서 반별로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 시간을 올해 위탁형 선생님의 교육을 듣고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걸 또 계획을 했는데. 물론 그 전에 목표도 세우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했지만 뭔가 정리된 틀 없이 진행을 했어가지고 그 틀을 그 위탁형에서 따와서 한번 해 운영을 해 본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완전 실패를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학기 말에 방학식 하는 날 발표를 했는데 아이들 나름 본인의 성장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아예 그렇지 않지만 이게 과연 이 틀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진로활동을 중심으로 흥미가 있는 주제나 그런 활동으로 직업인 인터뷰나 인턴십을 큰 그걸로 하고 있었는데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나? 생각해요. 프로젝트라는데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경옥** 그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 중에 누군가가 사례발표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코멘트를 하면서 일종의 집단 계획을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도 사례발표 하나 하고, 같이 들어주면서 좀 서로 피드백 해주고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 활동은 난이도가 좀 있는 활동이거든요. 근데 일반 공교육에서 하는 프로젝트 활동은 진짜 교사들이 손쉽게 가는 활동으로 생각하거든요. 매뉴얼만 주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건 진짜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떤 큰 우리의 맥락이 있어요. 뭐 '우리는 배움터다.', '배우기를 배운다.' 뭐 이런 큰 맥락이 있는데 그게 관철되는 것 같은 날도 있고 영 아닌 날도 있고 진짜 그래요. 기분 나쁜 날도 많고, 이거 뭐하는 거지 이런 날도 있고 근데 진짜 일회일비 할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교육 하는 곳은. '아, 나 뭐하고 있지?', '아, 이거 안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게 어찌면 되게 위험한 게 아닌가. 물론 자기반성이나 돌아보기가 되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함 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거야.'라고 이야기 한 것이 어느 날 장벽에 부딪혔다고 '이건 아니야.', '다르게 해야 해.'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도 또는 거부하는 반응이 있어도 그냥 해 보는 것. 그게 내 눈앞에서는 아이가 달라지지 않았어도. 그렇게 던진 일종의 자극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준한이 작년에는 뭔가 이렇게 닿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안하던 그 아이들도 어딘가에서 준한과 거리를 두었을 때, 준한을 떠올릴 것이고 준한이 했던 말을 떠올리고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고,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진짜 어느 날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일비 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잘 하셨으면...

**선속** 저도 사실은 저랑 좋았던 친구들도 있고 저를 통해서 좋았다고 느낀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약간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순간순간 짜증나고 약간 그럴 때도. 선생님 말씀처럼 일회일비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대거 이탈된 경험이 없어서 되게 충격 받기는 했었어요. 올해.

**홍설** 어, 얼마나 이탈이 됐어요?

**선속** 15명 중에서 4명이요.

**현태** 근데 작년 제작년도 비슷했어요.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그 정도 인원은 빠졌어요.

**효정** 초반에도 빠졌잖아요.

**현태** 그래. 초반에도 빠지고, 중간에도 빠지고, 말에도 빠지고, 작년에도 4명 넘게 나갔잖아요.

**선속** 그땐 20명이었잖아요.

**효정** 하긴

**경옥** 우리 정리할까요? 시은이와 효정이 이야기를 끝으로?

**일동** 고생했다~

**호정**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재미있었고, 흠이 있다면 의자 끝에 앉아서 허리가 아파요. 저는 떠날 사람이라 제가 아니라 올해 다닐 사람이 와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안온다고 했으니 어쩔 수 없긴 하죠.

**경옥**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있으면….

**호정** 제발 사이 좋게 지내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맘대로 안 되죠.

**경옥** 시은이는?

**시은** (비몽사몽한 얼굴로 인사)

**경옥** 못 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해요.



## 2018년, 드림센터의 교육팀은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가고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시민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은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고, 드림센터 교육팀의 선생님들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희망과 좌절이 공존하는 일희일비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팀은 지난해에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대안학교의 틀로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을 만났고, 이들의 검정고시 자격 취득을 도왔고, 자기를 발견하는 여행을 떠나도록 했고, 이룸학교와 꿈에학교 친구들과 동고동락하며 배우고 익히고 즐겁게 놀기도 하며 아이들의 성장만큼 선생님들의 경험과 삶에 대한 성찰도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그 어려움을 넘기고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무엇보다 팀장님이 새로 온 일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고, 이룸학교 친구들이 서로 어려워하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누군가는 학교를 떠났기도 했을 때, 꿈에학교 친구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오토바이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 있을 때, 그리고 일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의 이야기에 충분히 귀 기울여 듣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게 되지는 않았는지..

지나온 어려움을 우리가 얼마나 잘 들여다보고, 다독이고 다시 새롭게 해나갈 힘을 내고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동료와 같이하는 협력을 통해 그 부족함을 채워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팀의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일입니다. 가르치고 성장을 돕기 위해 교사 스스로 배워야 한다고 했듯이 먼저 동료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아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터전으로 교육팀이 자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 배움터에서 2018년 이룸학교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익힐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물이 이룸학교의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룸학교가 지향하는 바, 무엇을 배우고 익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육과정 안에 이런 계획과 실천을 위한 방법을 잘 담아 이것이 전통이 되고, 아이들의 방향을 찾아줄 수 있는 등불이 되어 주도록 2018년에는 이룸학교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이라는 그물을 잘 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에학교는 담임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진로탐색 수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로특성화라는 학교의 특색에 맞게 꿈에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잘 하는지 알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 가지 체험과 배움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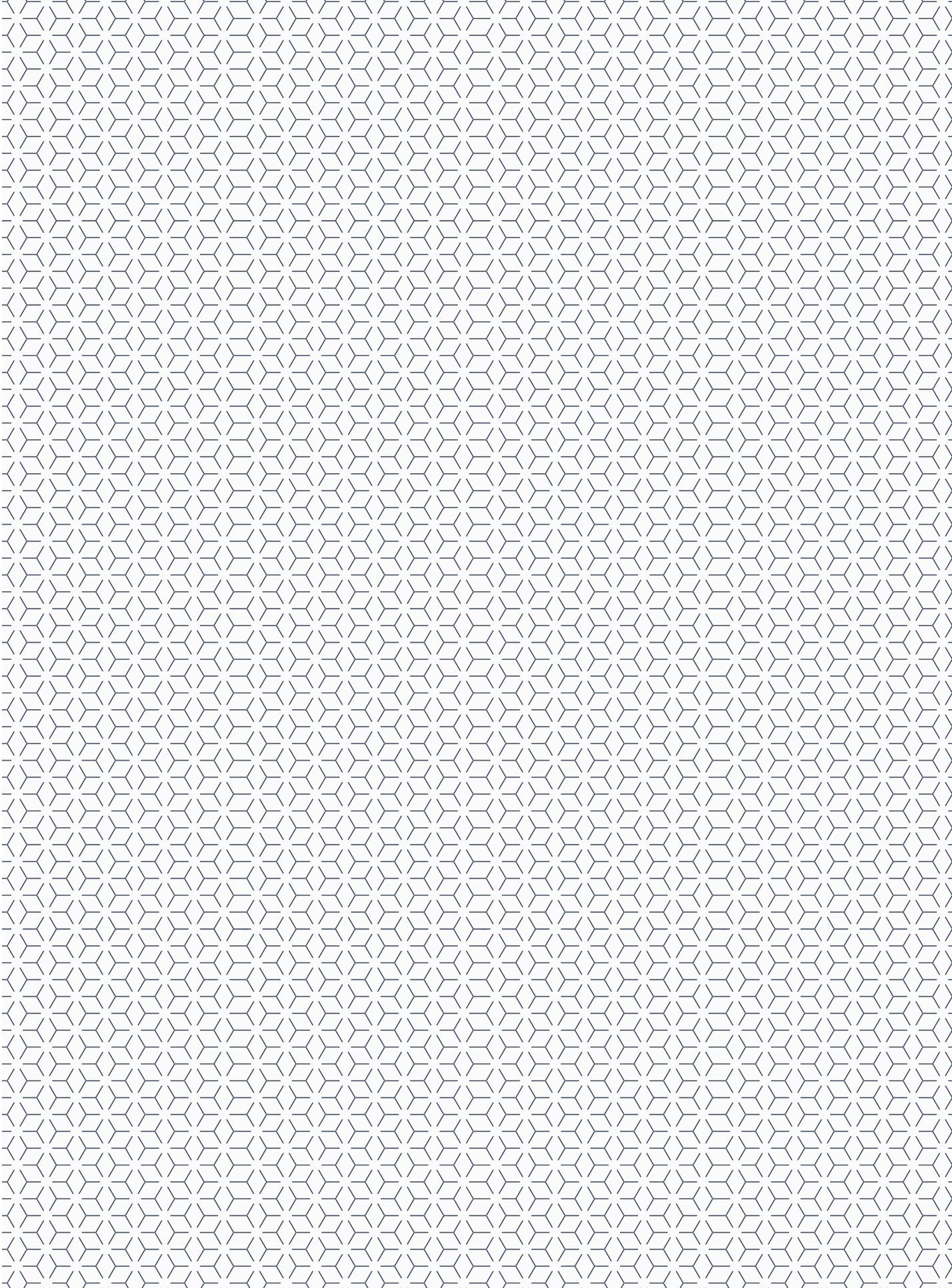
점프업 코스의 친구들도 교육팀의 울타리 안에서 검정고시라는 현실을 뛰어넘어, 여행을 통해 자신과 미래를 생각하고, 한 걸음 더 성장해서 사회로 나갈 수 있기를...

올해도 우리는 작년에 하던 일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성숙해진 이전의 우리가 아니듯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청소년들도 더 이상 이전의 그들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최선을 다해 함께 하고, 오늘을 즐겁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제 막 시작된 2018년, 우리 교육팀 동료들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우리의 일과 삶을 위해 또! 같이 삽시다~ 살아봅시다~

교육팀장 박경아

넘나들며  
성장하는  
배움터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135-740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삼성동 171-1)

홈페이지

[www.dreamcenter.or.kr](http://www.dreamcenter.or.kr)

Tel

02-2051-8600

Fax

0504-984-4623



비매품